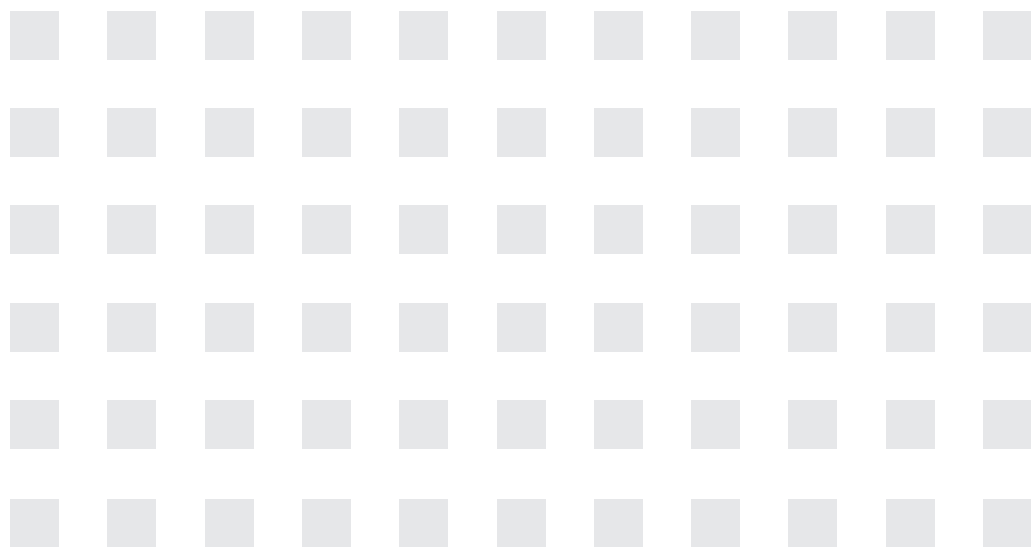


JRI

이어도 설화 스토리텔링방안 연구 - 장소성을 중심으로

—

주민욱·최미경



발 간 사

이어도는 우리나라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수중암초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바다 사이 위치해 있는 이어도는 UN해양법에서 인정한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는 곳으로 한국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장소로, 제주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연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이상향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어도에 대한 연구와 작품들은 많았지만, 시공간 개념에서 이어도의 장소성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주사람들의 누적된 삶의 경험과 체험이 이어도라는 공간과 만났을 때 이어도는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도라는 공간이 더욱 구체화되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어도 설화에서 제주사람들은 삶에서 이어도라는 공간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했는지를 찾아내 장소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성을 중심으로 한 이 연구가 갖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어도 설화 속에서 장소성을 도출해 내고, 제주사람들이 이어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활용될 지 주목됩니다.

이 연구를 위해 책임연구를 맡아 애쓰신 이어도연구회 주민욱 박사님과 최미경 공동연구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 수행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제주학연구센터 임승희·고은솔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목 차 CONTENTS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제주 문화산업 이끄는 이어도	1
1-2. 문화콘텐츠의 꽃 이어도	2
1-3. 또 하나의 제주, 이어도	2
1-4. 이어도의 진화를 위한 단상	3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8
II. 이론적 배경	12
1.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힘	12
2. 이어도 공간의 스토리텔링	15
III. 이어도 설화의 분석	18
1. 이어도 설화의 수집현황	18
2. 이어도 설화의 문예콘텐츠 분석	20
2-1. 이어도(離汝島) · 이용호, 『聽春漫稿』	20
2-2. 강봉옥(1923)의 저술 『한국 구비문학 大系 -북제주군 편』	22
2-3. 다카호시 토오루 “民謠에 나타난 濟州女性 - ‘이허도(離虛島)’ 전설 朝鮮”	25
2-4. 진성기 「신화와 전설」	28
2-5. 현용준 · 김영돈(1980)의 저술 동김녕리 채록	30
2-6. 현용준 · 김영돈(1983)의 저술 서귀포시 대포동 채록	31
2-7. 고은(1976)의 저술	32

IV. 설화 속 이어도의 장소성	36
1. 이어도의 공간 이미지	36
2. 텍스트 공간적 스토리텔링	51
2-1. 장소 스토리텔링	51
2-2. 공간 스토리 발굴	54
3. 상황의 설정과 전개 방법	67
3-1. 이어도 스토리텔링	69
3-2. 이어도 Viewpoint	71
3-3. 공간설정 방향	73
3-4. 체험시설(할망당) 구상	74
3-5. 상징물 건립 추진 시스템 구축	75
V. 스토리텔링의 활용 방안	76
1. 공간과 이야기를 결합한 지역문화 자산화	76
2. 문학작품으로 재탄생	80
2-1.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 활용	80
2-2. 이어도 설화의 그림책	82
2-3. 이어도 설화의 동화책	92
VI. 결론 및 제언	105
1. 결 론	105
2. 제 언	106
참고문헌	107
Abstract	109

표 목차

〈표 III-1〉 이어도 설화 채록 현황	19
〈표 III-2〉 이용호 콘텐츠 분석	20
〈표 III-3〉 강봉옥 콘텐츠 분석	22
〈표 III-4〉 다카호시 토오루 콘텐츠 분석	25
〈표 III-5〉 진성기 콘텐츠 분석	28
〈표 III-6〉 현용준·김영돈(1980) 콘텐츠 분석	30
〈표 III-7〉 현용준·김영돈(1983) 콘텐츠 분석	31
〈표 III-8〉 고은 콘텐츠 분석	32
〈표 IV-1〉 캐릭터 설정 비교	57

그림 목차

〈그림 II-1〉 스토리텔링의 개념	12
〈그림 II-2〉 '몽중등과시'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러	15
〈그림 II-3〉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	16
〈그림 III-1〉 『청용만고(聽春漫稿)』 사본	21
〈그림 III-2〉 『개벽(開闢)』 사본	24
〈그림 III-3〉 『조선(朝鮮)』 212號 사본	27
〈그림 IV-1〉 장소성 형성과정	46
〈그림 IV-2〉 이어도 향로	50
〈그림 IV-3〉 토비아스의 20개 플롯	55
〈그림 IV-4〉 캐릭터의 원자료	63
〈그림 IV-5〉 스토리텔링의 구성 전략 - 질문하기	66
〈그림 IV-6〉 상황의 설정과 전개 방법	67
〈그림 IV-7〉 보편적 이야기의 스토리텔링	68
〈그림 IV-8〉 스토리텔링 구성요소	68
〈그림 V-1〉 맷돌을 갈면서 부르는 이어도 노래	99
〈그림 V-2〉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상	101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 이어도 관련 구전설화의 채록 작업은 일제 강점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음. 일제강점기, 주로 일인 학자들에 의해 수집되기 시작한 구전설화는 대학,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과 개인들이 참여하면서 이어도 관련 소리와 설화자료를 수집해 왔음.
- 기존 수집된 이어도 관련 설화에는 이어도를 배경으로 해양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제주인의 삶과 문화가 잘 나타나 있음. 그러나 이어도 설화는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고 채록된 지역마다 각기 다른 불완전한 이야기가 각 편으로 되어 있음. 이 같은 원인은 설화의 구술성(orality)에 있는데, 구술하는 과정에서 청자가 참여하기도 하고 청자의 반응에 따라 이야기가 첨가되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의존하여 변화하기 때문임.
- 스토리텔링 시대는 권위적 전문가에 의해 전달되는 억압적 담론이 아니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삶에서 상연된 이야기들(enacted stories)”을 통해 활력을 얻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다수의 주체들(타자들)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능력”을 복원하는 시대임. 아직까지 이어도 설화는 수집에 그친 상태이고 이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전무한 상황으로, 지금까지 수집 채록된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음.
- 스토리텔링 연구는 이어도 설화의 가치론적 관점에서 이어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결합할 필요가 있음. 이어도는 우리나라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지점에 위치해 있음. 우리나라와 중국바다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이어도는 중국과 UN해양법에서 인정한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가 중첩되며, 이로 인해 중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을 내포하고 있음.

-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장소이며, 이어도는 제주인의 일상생활이 확장되어 제주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연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공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간개념에서 이어도의 장소성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이어도라는 공간이 더욱 구체화되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어도 설화에서 제주사람들은 삶에서 이어도라는 공간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했는지를 찾아내 장소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제주사람들의 누적된 삶의 경험과 체험이 이어도라는 공간과 만났을 때 이어도는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며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임. 수많은 공간속에서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특별한 장소가 되듯이 이어도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은 제주사람과 육지사람들이 다를 수밖에 없음. 공간이 장소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고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며, 제주인의 일상에서 이어도는 어떤 의미이며 이어도에 어떤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는지 스토리텔링 방법을 통해 연구할 필요가 있음.

1-1-2. 연구목적

- 이어도 설화를 통해 제주인의 생활사 측면에서 그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설화 속에 나타난 이어도의 장소성 도출
 - 이어도 설화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설화 속에 나타난 이어도라는 공간의 맥락을 찾아내 이어도의 장소성을 부여하고 이어도의 존재가치를 증명
 - 이를 통해 예부터 제주사람들이 이어도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면서 정신적, 역사적으로 관할해온 사실의 근거를 발굴
 -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도라는 공간이 제주인의 삶에 미쳤던 의미를 찾아내는 문예콘텐츠의 발굴과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이어도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을 위해 이어도설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은 더욱 의미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스토리텔링을 통해 장소의 정체성과 특징 연구
 - 이야기를 통한 각인의 효과로 공간의 이미지 형성이 쉽고 지속성을 지닐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과 공간의 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되는 것임. '이야기는 장소성을 강화한다.'는 말처럼 장소에 대한

경험이 정체성으로 이어져 의미 없는 공간이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장소성을 갖게 되는 것임.

- 제주 사람들에게 수많은 의미와 가치가 있었던 이어도에 대하여 실제적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해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갔던 제주인들의 삶과 생활이 녹아있는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이유임.

○ 텍스트 소통적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한 이어도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연구

- 이어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연구자들마다 제각각이며 한마디로 쉽게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음. 이는 이어도에 대한 이야기가 꺾어지지 않고 구슬처럼 흩어져 있기 때문임.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꿰어서 목걸이로 만들지 팔찌로 만들지는 이야기를 어떻게 말 하고 듣느냐에 달려있음.
- 특정한 담론에 의해 개념화된 공간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전용하며 재구성해나감으로써 기존의 공간에서 의미 생산 소유권을 독점했던 고정된 권력을 해체할 수 있는데 이처럼 공간 텍스트의 의미가 비판적으로 확장되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연쇄작용인 '텍스트 소통적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어도설화의 스토리텔링 방안에서 이어도가 실재 있었던 공간으로 살려내려고 함. 이는 이어도가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명확하게 이어도를 선점하기 위함임.

○ 이어도를 재조명하여 스토리텔링 함으로써 이어도가 제주인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장소성'을 강화

- 이어도설화의 스토리텔링은 옛 해양대국 탐라에 이어 제주에서 산 사람들의 생활사 측면에서 이어도를 재조명하여 스토리텔링 함으로써 이어도는 예로부터 제주인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장소성'을 강화

1-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1-2-1. 선행연구 현황

- 이어도 설화에 대한 연구는 수집 단계에 그쳤고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임. 다만 이어도에 대한 장소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민정은 이어도의 토포필리아(장소애)와 여성성을 고찰하였음. 이청준 소설의 연구 중에서 이어도는 특히 주목받아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간 개념에서 토포필리아(장소애)에 대한 분석이 미흡

했고, 그 장소에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체와 타자에 대한 검토 또한 미흡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선행연구에서 이어도에 대한 장소성에 대한 고찰은 있었지만 스토리텔링에서의 장소성 강화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흡한 편임. 장소성 파악을 통해 흩어져 있는 것들이 특정한 이미지로 모여 공간의 정체성을 만들게 되며, 장소성을 파악하는 것은 공간의 맥락을 하나로 집중시켜 공간에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는 일임.

1-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이어도라는 공간적 배경을 매개로 사람들에게 제주사람들이 이어도를 배경으로 살아왔던 이야기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제주인의 삶의 터전인 이어도에 이야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였음. 어떤 공간에 대해 사람들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때 그 공간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는데, 이는 아는 곳이 곧 장소라는 의미이며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은 그 장소에 대한 그 사람의 경험이 보태어져 의미 있는 곳이 되기 때문임. 이를 텍스트 공간적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며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재미와 흥미를 위해 그리고 목적에 의해 얼마든지 픽션이 가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
- 본 연구에서는 이어도 설화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어도라는 장소성을 도출해내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어도가 제주인의 삶의 공간이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연구.

2. 이론적 배경

2-1.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힘

- 스토리텔링은 어떤 사건을 겪은 사람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번 걸러진 지식을 알기 쉽고 느끼기 쉽게 이야기하는 한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은 시공간적 현장성, 상호작용적 소통성, 참여적 개방성을 지닌 담화

양식과 그 같은 이야기의 장(field) 자체를 지칭하는 개념임. 이야기는 어떤 사건에 대한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여기에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뒤섞여 전달됨.

- 스토리텔링은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형할 수가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체험이 공공의 체험으로 발전되고 개인적 경험이 갇힌 틀 밖에서 세상으로 나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임.
- 스토리텔링은 체험적 소통의 가치가 있으며 공간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되고 체험되며, 공유됨.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공간은 지속적으로 인간과 상호 의미를 생산하는 장소로서 그만의 본질, 즉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임.
- 스토리텔링은 없는 것을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며, 이미 존재하는 구슬을 꿰어 보배로 재창조하는 과정임.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흥미를 갖고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점임. 여기에 덧붙여 이어도설화의 스토리텔링에서는 이어도가 현재 종합과학기지가 있는 곳이라는 대 국민 홍보에 최적화된 스토리텔링이 중요함. 이어도라는 장소성을 강화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이유임.
- 구비문학은 스토리텔링의 대표적 장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대에 와서 스토리텔링이란 개념은 구비문학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광의의 개념으로 다양한 함의를 가지며, 특히 지역문화에서의 스토리텔링은 지역을 홍보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함.

2-2. 공간의 스토리텔링

- 스토리텔링의 요소는 현재성, 입체적, 현장성, 행동성, 역동적, 상호 작용성, 유연성 등이 있음.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고 서사가 풍부하다고 해서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고 참신하면서 새로운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이야기를 우선 순위화 함.
- 이야기는 장소성을 강화함. 장소에 대한 경험이 정체성으로 이어져

장소성을 형성함. 장소는 물리적 공간에 인간의 경험과 태도, 그리고, 가치 등 추상적 개념이 부여됨. 장소성은 장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장소에 대한 감성 등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본 특성이며, 장소성이 선명한 공간을 보유하면 지역문화콘텐츠 상승효과를 가져옴. 장소성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 이야기이고, 스토리텔링은 그 장소를 잘 표현하는 좋은 도구이자 방법임.

- 스토리텔링을 도입했다고 하면 이전과 다르게 장소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다른 곳과의 차별화에 성공해야 함. 전설은 증거물이 있지만 민담의 경우 증거물이 없음. 이어도에 대한 비록 작은 화소라 하더라도 장소와 연관이 있어야 청중들의 주의력 유지가 가능함.

3. 이어도 설화의 분석

3-1. 이어도 설화의 수집 현황

○ 이어도 설화 채록 현황

- ① 이어도(離汝島) · 이용호, 『聽春漫稿』(이태영 역, 1996).
- ② 강봉옥(1923)의 저술 『한국구비문학 大系 -북제주군편』.
- ③ 다카호시 토오루 “民謡에 나타난 濟州女性-‘이어도(離虛島)’ 전설” 朝鮮, 212號 昭和 8年(1933년)
- ④ 진성기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서, 1959.
- ⑤ 현용준 · 김영돈(1980)의 저술 동김녕리 채록
- ⑥ 현용준 · 김영돈(1983)의 저술 서귀포시 대포동 채록
- ⑦ 고은(1976)의 저술

- 채록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제주사람들은 고기잡이 나간 아방과 물질나간 어멍이 돌아오지 않을 때 먼 바다 어디쯤에 있는 이어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은 어찌면 고단한 삶을 살다간 그들이 죽어서라도 편히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살아있는 자들이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이었을 것임.

- 이어도가 실재하는 섬인지 아니면 단지 설화에 나오는 상상의 섬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설화 즉 전설에 나오는 지명들은 실재하는 것들로 실재하는 지명이라야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고 후세에 계속 전승할 수 있음.

3-2. 이어도 설화의 문예콘텐츠적 분석

- 국내외의 설화를 분석한 김영돈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이어도는 고해인 차안과 정도인 피안 사이에 소용돌이가 두루 설정됨을 확인하여 유토피아라고 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어도에 대해 도출해낸 장소성은 제주도 서남쪽 중국으로 가는 항로에 있다는 섬이라는 점임. 또 이 섬 주변은 파랑이 거세어 파선되고 사람들이 흔히 몰사했다고 전해짐. 고은 역시 해녀들에게 있어서 이어도는 그들이 괴로운 나잡 어업이 끝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하며, 영혼의 닻을 내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어도는 제주 섬 신화 중의 ‘서촌 꽃밭’과도 같은 세계로 생각하였음.

4. 설화 속 이어도의 장소성

4-1. 이어도의 공간 이미지

- 장소성 파악을 통해 흩어져 있는 것들이 특정한 이미지로 모여 공간의 정체성을 만들게 됨. 장소성을 파악하는 것은 공간의 맥락을 하나로 집중시켜 공간에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는 일임.
- ‘이어도’ 또는 ‘이여도’라는 지명은 제주도의 민요, 전설, 신화 등 구비문학으로 전해지고 있어 언제, 누구에 의해 그렇게 지어졌는지 분명하지 않음. 다만 ‘이어도’라는 말은 제주 사람들이 쓰는 ‘여’ 혹은 ‘여섬’에서 파생된 말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닷속의 조그만 바위를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주 사람들은 지금도 바닷가의 작은 바위 덩어리를 ‘여’라고 부름. 맷돌노래나 방애노래에 나오는 “강남을 가난

해남을 보라(강남을 가면 해남을 보라)/이어도가 반이엿 해라(이어도가 반쑤이라고 하더라)”라는 가사에서 지명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제주도의 민요, 전설, 신화에 등장하는 이어도가 세상에 밝혀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이어도 암초에 부딪쳐 좌초되었는데, 영국해군은 이듬해인 1901년 측량선을 보내 암초의 위치와 수심을 확인하고 ‘소코트라암초’라고 이름을 붙이게 됨.
- 이어도 항로는 제주도의 민요에도 등장하는데, 이는 이어도가 중국을 오가는 바다 길목의 중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이어도항로는 예나 지금이나 동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바다에서 가장 험한 바닷길이고,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일 뿐 아니라 고대 이래 수많은 제주해민들을 수장 시켰던 돌풍(영등바람)의 발상지이기도 함. 제주 사람들에게 바다는 땅이 척박했던 제주에서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바다에 있는 밭이었으나, 이런 제주 사람들에게 해난사고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음. 시신을 찾지 못한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체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제주사람들은 실낱같은 희망으로 실종자의 귀환에 대한 바람 대신 이어도라는 이상세계에 가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음.
-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어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장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맥락 분석을 통해 장소성을 특정한 테마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4-2. 텍스트 공간적 스토리텔링

-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하는 일임. 성공한 스토리는 속담이나 격언처럼 간단명료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지녀야 하는 단순성,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성, 허황되지 않은 구체성, 진실하고 정직하며 믿음을 주는 메시지로 신뢰성을 획득하고 상대방을 움직이는 감성, 이 모든 것을 한데로 풀어낼 수 있는 통합적이고 독창적인 이야기(story)가 필요함.
- 장소성 파악을 통해 흩어져 있는 것들이 특정한 이미지로 모여 공간의 정체성을 만들게 되는데, 장소성을 파악하는 것은 공간의 맥락을

하나로 집중시켜 공간에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는 일임.

- 본 연구는 이어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서의 중요성과 해양 영토로서 갖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그런 점에서 이어도는 옛날 그 옛날 부터 우리 제주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연구함.
- 스토리텔러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이념을 스토리텔링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사회관, 경제관 등을 확립하여 정의롭고 신념에 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

4-3. 상황의 설정과 전개 방법

-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보편적이면서도 참신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여야 함. 대부분의 신화, 설화, 전설 민담은 야생적인 사고/이성적 사고, 이성/감성, 합리성/비합리성과 같이 대립되는 짝패구조를 이루는데, 신화와 전설, 민담,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친밀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 스토리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처럼 익숙한 이야기임. 가장 보편적인 스토리텔링이야말로 누구의 마음이나 가장 와닿는 친숙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음.
- 인간은 상상과 체험, 기억에 의해 완성되며, 인간의 이야기는 상상, 체험, 기억의 각 요소에 의해 창작되기도 하고, 두 요소 혹은 세 요소들의 혼합에 의해 구성되기도 함. 상상이 무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체험이 중요함.
- 이야기의 '재미'는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몰입을 가능하게 함. 흥미를 주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통된 체험과 인식 그리고 삶의 보편적 모양새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체험이 중요함. 개인의 경험이 녹아 있는 이야기는 더욱 감동을 주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모험을 즐기는 이야기는 흥미를 더해줌.

5. 스토리텔링의 활용 방안

5-1. 공간과 이야기를 결합한 지역문화 자산화

- 이어도설화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국민들이 이어도라는 장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맥락 분석을 통해 장소성을 특정한 테마로 구체화 시킬 수 있음. 이러한 작업은 선악에 관계없이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며, 스토리텔링은 어떤 관념이나 개념적인 정보보다는 맥락이 장소성과 닮아 마치 신화나 전설처럼 자연스럽게 흘러 공간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
- 오래전부터 여러 지역에서 그 지역의 신화와 전설을 활용한 축제를 개발해왔으며, 그 지역만의 차별화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 축제는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발전시켜 왔음. 이처럼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통한 가치창출이 강조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지역축제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제주지역 정체성을 잘 표출할 수 있는 이어도설화와 고동지, 강씨부인, 여똥할망들 캐릭터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 개발하여 특성화된 축제로 발전시킬 수도 있음.
- 차별화된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지역의 대표 캐릭터와 결합하여 스토리텔링해야 함.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설화스토리텔링을 토대로 이어도설화 캐릭터인 고동지, 강씨부인, 여똥할망을 특성화하여 이어도를 보다 쉽게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5-2. 문학작품으로 재탄생

-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방안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함. 우선 고동지 설화를 배경으로 한 동화나 그림책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이어도에 관련된 수많은 학자와 연구자들 누구도 이어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를 어려워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그러한 면에서

이어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참신성과 흥미를 더해 보편적 가치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안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6. 결론 및 제언

6-1. 결 론

- 이어도라는 장소는 생활 체험을 토대로 인지되며 친밀감이나 거리감을 비롯한 여러 감정이 부여되어 상징적으로 의미화 됨. 장소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 일정한 경계가 있는 현장으로서 정체성이 형성되고 유지되며 변형되면서 의미 있는 틀을 제공함.
-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은 옛 해양대국 탐라에 이어 제주에서 산 사람들의 생활사 측면에서 이어도를 재조명하여 스토리텔링 함으로써 이어도는 예로부터 제주인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장소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6-2. 제 언

- 본 연구는 막연한 이어도의 공간적 거리를 문헌이나 구술되어 전해지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찾아보는 것으로 의의를 가짐.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륙사관으로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의 극동지역의 반도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를 낮게 평가해 왔으나, 해양사관으로 우리나라를 살펴본다면 우리나라는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어 지리적 위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이어도는 제주의 소중한 지역문화콘텐츠로 제주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브랜드 확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따라서 이어도라는 공간에 깃들여 있는 우리 제주인들의 집단기억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어도의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많은 문학작품은 물론 영화의 기본적 자료가 되어 지역문화콘텐츠로서 빛나는 성과를 내기를 기대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주에는 상상력이 넘쳐나는 신화와 전설이 많다. 제주의 천지개벽 신화와 섬을 재창조한 설문대할망 이야기, 생명의 여신 삼승 할망과 농경의 여신 새경, 바람을 관장하는 바다의 여신 영등 이야기 등 제주도는 신들이 넘쳐난다. 가히 신들의 고향이다. 인간의 역사를 시작한 삼성 신화 역시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해진다.

왜 제주에는 이처럼 상상력이 넘쳐나는 이야기가 가득한 것일까? 그것은 제주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절박함, 공포, 그리고 극한상황에서 상상력을 발휘한다. 바람, 파도, 그리고 돌투성이의 척박한 환경, 철저히 고립된 섬에서 살아야 했던 제주인들은 어떤 감정을 갖고 살아왔을까? 끝없이 이어지는 중노동 속에서 그들은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왔을까? 특히 칠성판을 지고 열길 깊은 물속을 드나들며 해산물을 캐고, 거기다 밭농사, 자식 농사까지 도맡아 했던 제주 여인들이 겪어야 했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결국, 그들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죽음을 희망으로 받아들였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자탄가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었다. 제주 사람들은 이성을 떠나, 가고 싶은 곳으로 이어도를 그려냈다.

1-1. 제주 문화산업 이끄는 이어도

21세기를 가리켜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문화는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창출하기도 하고 혹은 산업과 상호작용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 문화산업의 핵심은 역사, 문화적 인자다. 특히 역사·문화는 특유의 지역 정체성이 개성으로 빛을 발하며 세계문화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 가치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힘은 바로 이야기이다. 지역의 작은 스토리가

각종 콘텐츠로 창출되는가 하면 산업 또는 기업의 이미지와 결합하면서 파워브랜드를 만들어낸다.

제주에는 세계적인 이야기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여성 신화와 이어도와 같은 풍부한 상상력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문화산업으로 또 지역파워브랜드로 접목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 이어도의 귀환을 시작으로 제주의 창조적인 스토리가 세계로 나가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1-2. 문화콘텐츠의 꽃 이어도

제주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고 있다. 올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관광산업이 정체된 상황이지만 연초에만 해도 1,500만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주 관광산업에서 아쉬운 것은 세계관광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단순한 볼거리 관광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선진관광지의 흐름은 문화관광이다. 단순한 자연에 의존하는 원시 관광은 더 이상 장점을 갖지 못한다.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제주다운 문화관광으로 탈바꿈해야 제주 관광의 장래가 밝아질 것이다. 문화관광의 소스는 바로 이야기이다. 제주에는 신들의 고향이라 불릴 만큼 곳곳에 이야기가 가득하다. 그러나 제주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관광지는 없다시피 볼모지에 가깝다. 제주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박물관과 테마공원이 들어서고 제주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 만인 주제로 꾸민 관광지가 넘쳐난다. 또 이미 있는데도 똑같은 테마를 가진 비슷비슷한 관광지들이 늘어난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업자들의 안목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 문화에 대한 지방정부와 학계 등의 관심이 지극히 미미하고 창조적인 발상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제주의 역사, 문화적 소재를 새로운 이야기로 포장하고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창출하는 시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1-3. 또 하나의 제주, 이어도

이어도의 스토리텔링과 상징물 설치 작업을 통한 보편적 이미지 확산은 결국 국민의 마음을 파고드는 감성적 접근이다. 아리랑 하면 우리의 리듬이요, 우리의 정서, 우리의 것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일듯 이어도를 국민적 정서로 끌어올려야 한다. 더불어 세계인들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그것은 먼저 이어

도가 제주 사람들의 진정한 대표적 정서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제주만큼 어려웠던 역사적 과거를 가진 지역이 또 있을까? 탐라 시대를 거쳐 고려 시대엔 몽골의 침략으로 70년간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조선 시대에는 유배지로 버려지다시피 했다. 해방공간을 지난 현대사에서는 4·3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 어려웠던 시절, 절망을 버거운 긍정으로 토해냈던 힘은 바로 이어도와 같은 자탄의 이야기였다. 비록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달라지고 풍족해졌지만, 옛 어른들이 얘기하듯 “옛날이야기 하면서 살자”라는 여운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바로 이어도의 이야기처럼 말이다. 어려움을 딛고 오늘의 제주를 이어온 힘은 이어도 이야기처럼 자탄의 소리가 뱉어낸 상상력이었다. 결국, 오늘의 제주도는 과거 제주 사람들이 그려냈던 또 하나의 이어도인 것이다. 나아가 이어도가 제주의 대표적 정서로 주목 받을 때 이어도는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영토로 그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고착될 수 있을 것이다.

1-4. 이어도의 진화를 위한 단상

1-4-1. 중심가치 구현의 시발점, 이어도

제주만큼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소홀히 다루는 곳도 없다. 지구촌이 온통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성을 띤 개성 찾기에 혈안이지만 제주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설령 관심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본질은 왜곡되고 우선순위가 뒤바뀐다. 우선 제주의 가장 자랑스럽고 대표적인 역사·문화가치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테면 조선 시대인가? 아니면 탐라 왕국인가? 체계적인 가치 정립을 통한 정체성 확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제주, 제주인의 중심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절실하다. 중심가치를 토대로 주민들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중심가치를 개성으로 포장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승화해야 한다.

제주에는 한반도에서 존재하지 않은 개벽 신화에서부터 창조신화 여성 신화 등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 신화는 인간의 역사를 여는 시발점이다. 신들의 역사와 더불어 인간의 역사를 여는 삼성 신화가 대표적이다. 그리스신화처럼 제주의 신화는 어느 지역에서도 가질 수 없는 차별화된 값진 문화유산이다. 특히 원시 형태를 간직한 여성 신화는 제주의 보배이다.

사물은 보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생각도 그 접근방법에 따라 확 달라진다. 이를테면 여성 신화 가운데 등장하는 서천 꽃밭 같은 설정은 상상력의 극치이다. 제주가 온통 아름다운 꽃밭이고 그 생명은 관장하는 것은 생명의 여신 삼승이다. 이러한 신화적 상상력을 테마파크

같은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낸다면 제주다운 아름다움을 간직한 멋들어진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러나 제주의 관광을 돌아보면 온통 남의 것 흉내 내기에 급급하여 비슷비슷한 구조물을 만들어내기에 급급해 있다.

이는 이야기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이 없는 형식에 치우친 관광이다. 이야기가 없는 상징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야기가 없는 관광은 감동을 줄 수 없다. 이제 제주주는 제주의 역사, 문화적 자존심을 건 제주 중심가치 구현의 효시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1-4-2. 원 소스 멀티 유스의 주제, 이어도

일정한 공간에 이어도의 이야기를 잘 살린 스토리텔링은 인류의 보편적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방법과 아울러 병행해야 한다. 표지석이나 상징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해 상호보완하면서 그 홍보를 극대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는 만큼 이야기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 단지 표면적 이야기만을 전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자기 생각과 판단을 더 해 이야기한다. 조직사회의 의미와 조직사회의 생성과정에 대한 총체적 이야기가 생성되어 전달된다. 여기에 배경이 되는 장소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장소는 반복적이고 복잡한 연관 관계에서 기억과 경험이 쌓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장소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에 접근한 연구는 다른 지역 관광학 분야에서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그러나 장소의 특수성과 장소의 감성적 역할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지 못했다.

이어도의 가치는 실로 대단하다. 연간 수만 척의 상선과 어선이 통과하는 길목이며, 일본과 중국, 대만 등을 연결하는 요충지인 데다 황금어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에 와서는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어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스신화가 세계를 대표하는 신화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작가들의 끊임없는 작품 활동이 있었다. 책으로 쓰이고 연극으로 올려지고 그림으로 묘사되면서 세계 신화의 주류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한 것이다. 이어도 역시 많은 시인의 소재로서 등장하고 소설로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무슨 연유인지 국내에서조차 그 인지도를 넓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것은 이야기이다.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다양한 콘텐츠와 접목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이나 국가,

기업의 유력 상표를 창출하고 있다. 이른바 원 소스 멀티 유스(One source multi use)이다. 하나의 콘텐츠가 성공하면 다른 분야와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콘텐츠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다.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이 이러한 현상을 잘 뒷받침한다. 지역의 작은 이야기가 문학으로 성공하자 영화로 또 게임산업으로 관광 콘텐츠로 뜬 대표적 사례이다.

지금까지 수집되어 있는 이어도 관련 소리는 주로 노동요에서 나타났다. 멧돌 가는 소리(42수), 방아 찧는 소리(25수), 해녀 노 젓는 소리(49수), 망건 짜는 소리(9수), 양태 짜는 소리(7수), 탕건 잦은 소리(1수)로 이어도 관련 노동요는 총 133수에 이르고 있다.¹⁾

이어도 관련 설화는 총 7편이다. 구한말 이용호의 청용만고, 강봉옥의 제주도의 민요 오십수에서, 진성기의 초천리 채록본, 현용준 김영돈의 동김녕리 채록본, 현용준 김영돈의 서귀포시 대포동 채록본, 마지막으로 고은의 산지포에서 채록본 등이다.

설화는 쉬운 말로 ‘이야기’이다. 그렇다고 아무 이야기나 설화는 아니다. 설화는 민족적 집단의 공동생활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 공동의 의식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설화 속에서 민족의 역사, 신앙, 관습, 세계관을 찾아볼 수 있다. 이어도 설화에는 해양생활을 하던 제주인들이 이어도를 배경으로 체험한 삶과 문화가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어도 설화는 채록된 지역마다 각기 다른 불완전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완결성이 떨어진 여러 개의 각 편이 존재한다. 설화는 화자의 마음과 머릿속에 기억된 이야기가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변형된다. 이처럼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각 편(version)이라고 한다. 각 편은 이어도라는 소재는 같지만, 주제나 내용은 서로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이어도 설화의 문예콘텐츠적 분석이 필요하다.

설화는 신화(神話, myth), 전설(傳說, legend), 민담(民譚, folktale)으로 세분되기도 하는데 이어도 설화는 민담에 가깝다. 민담은 청중의 흥미를 사로잡기 위해 아무런 제약 없이 전승자가 이야기를 꾸며낸다. 그래서 민담은 구체적인 공간도 시간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저 ‘옛날 옛적에 어느 고을에’로 시작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그렇듯 이어도 설화도 이야기가 전해지는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각기 다르다.

민담의 주인공은 평범한 인물로 우연한 행운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화가 출생의 과정을 신성시하고 전설이 죽음의 과정을 신격화한다면 설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민담은 전승의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아 이어도 설화의 각 편은 우리 삶의 보편적 진실을 찾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담아내기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설화의 구술성(orality)에 있다. 구술하는 과정에서 청자의 반응에 따라 화자나

1) 한림화. 『제주도 전승 구비문학으로 본 이어도』. (사)이어도연구회 연구보고서, 2011.

청자의 이야기가 더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야기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 시대는 권위적 전문가에 의해 전달되는 억압적 담론이 아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삶에서 상연된 이야기들(enacted stories)'을 통해 활력을 얻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능력"을 복원하는 시대이다.²⁾ 이어도 설화 속에서 제주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고 이어도를 어떤 공간으로 인식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은 옛날 제주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의 역사, 사회적 상황을 그려보고 제주인들의 살아온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어도 설화는 수집에 그친 상태이다. 수집된 설화에 대한 문예 콘텐츠 적 분석은 물론 어떠한 스토리텔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슬도 꺾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까지 채록된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은 여기저기 흩어진 구슬을 모아 꿰는 작업이다. 이야기는 단순히 읽을거리를 떠나 옛 제주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보존 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어도 설화의 각 편은 문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이야기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여러 각 편에서 그럴싸한 부분만 인용하여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를 가진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이유이다. 물론 여기에 문학성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이겠다.

이미 채록된 7편의 설화는 본 연구에서 다룰 이야기의 원형이다. 이 원형이 음식의 재료라면 이야기 속에 전달할 소재나 주제,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어도 설화의 가치론적 관점에서 전달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본 스토리텔링 연구에서 가치 있는 메시지로 설정한 것은 이어도의 장소성이다. 설화 속에 나타난 이어도가 지금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

이어도는 우리나라와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지점에 있다. 우리 바다와 중국 바다 가운데쯤 있는 이어도는 중국보다는 우리 바다와 가깝다. 이어도를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거리는 UN 해양법에서 인정한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가 넘지 않을 만큼 가깝다. 다시 말하면 상당 부분 겹치는 바다가 생긴다. 문제는 이어도가 그 겹치는 지점에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은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어도 설화나 제주인들의 노동요를 살펴보면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장소이다. 이어도는 제주인의 일상생활이 확장되어 제주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연과 경험이 축적된 공간이다. 그러나 정작 이어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육지

2) 아서 프랭크, 최은경 옮김, 『몸의 증언 : 상처 입은 스토리텔러를 통해 생각하는 질병의 윤리학』, 2013

사람은 물론이고 제주 사람들도 이어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시공간개념에서 이어도의 장소성에 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어도 설화에서 이어도라는 공간을 더욱 구체화해 제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어도라는 공간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했는지를 찾아내 장소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 사람들의 누적된 삶에서 그들의 경험과 체험이 이어도라는 공간과 만났을 때 이어도는 더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제주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수많은 공간 속에서 의미가 부여되면 특별한 장소가 된다. 제주 사람들의 이어도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은 육지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공간이 장소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려면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고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인의 일상에서 이어도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어도에 대한 어떤 경험을 기억하고 있을까? 설화 속에 이어도라는 장소는 어디쯤 있을까?

본 연구의 목적은 이어도 설화를 통해 제주인의 생활사 측면에서 그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설화 속에 나타난 이어도의 장소성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도 설화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설화 속에 나타난 이야기의 맥락에서 이어도라는 공간을 찾아내 장소성을 부여하고 이어도의 존재론적 가치를 증명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예부터 제주 사람들이 이어도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면서 정신적, 역사적으로 누려온 온 사실의 근거를 발굴해낼 것이다.

이것이 오랜 역사 속에서 제주인의 삶에 이어도라는 공간이 차지했던 의미를 찾아내는 문예 콘텐츠의 발굴과 개발이 필요한 이유이다. 특히 이어도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을 위해 이어도 설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은 더욱 유의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장소의 정체성과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간의 이미지 형성을 쉬우면서도 지속성을 지닐 수 있게 해야 이어도라는 장소가 이야기를 통해 각인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어도라는 공간의 소통을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이어도 설화에 관한 연구는 수집 단계에 그쳤다.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이에도에 대한 장소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민정은 「이에도」의 토포필리아(장소애)와 여성성을 고찰했다. 이청준 소설의 연구 중에서 「이에도」는 특히 주목받아 왔다. 그런데도, 시공간개념에서 토포필리아(장소애)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고, 그 장소애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체와 타자에 대한 검토 또한 미흡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간이 더욱 구체화하여 형상화된 '장소'에 제주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에도'를 장소애로 귀착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장소애 속에 드러나고 있는 여성성이 무엇이고,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고찰해 보았다.³⁾

송성대는 험난한 바다를 배경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 해민들의 삶 속에서 이에도를 죽어서 복락을 누리는 '이에도피아'라는 공간으로 상정했다. 제주해민들은 18세기까지도 출항자의 절반 이상이 배가 난파되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제주 속담에 '저승 돈 주서당 이승에서 쓰는 사람이다(저세상 돈 주어다가 이 세상에서 쓰는 사람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훈백 상자 등에도 지곡, 칠성판을 등에 지고, 저승길을 왓닥갓닥"이란 구절의 노동요에서도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3대 보재기에 꼭 수장하는 액운신다(3대가 해상활동을 하면 그중에 꼭 수장(水葬)되는 가족이 있게 된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천연의 혜택이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 있는 원망의 장소이기도 했다. 이에 제주 사람들은 물질 나간 어명도, 고기잡이 나가 돌아오지 않은 아방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도에 가서 복락을 누리며 잘살고 있다고 생각했다.⁴⁾

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현정은 제주도 구비서사물에 나타난 강남천자국, 벽랑국, 이에도를 해상 타계라는 공간으로 구분하여 동해용왕국처럼 본래 해신적 속성을 띤 상상의 공간인 해저 타계와 구분하였다. 이 글에 사용된 해상 타계라는 용어는 해양 타계의 하위개념으로 해상 타계의 특색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해양 타계를 해상 타계와 해저 타계로 구분하였다. 해상 타계는 바다 건너 저편에 존재하는 것이고 해저 타계는 바닷속에 위치하는 것이다. 강남 천자국 벽랑국, 이에도는 해상 타계로 동해용왕국은 해저 타계로 나눈 것이 특이할 만 하다.⁵⁾

3) 이민정, 「이청준 '이에도'의 토포필리아와 여성성 고찰」, 문화와 융합 제41권 2호, p.965~987

4) 송성대, 『제주 문화 원류의 이해』, 도서출판 각, 2019

5) 이현정, 「제주도 구비서사물에 나타난 해상 타계의 변주 양상과 의미」, 한국무속학회, 36, 357~389

이들 선행연구에서 이어도에 대한 장소성에 대한 고찰은 있었지만, 이어도가 어디인지에 대한 ‘장소성 강화’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소성 파악을 통해 흩어져 있는 것들이 특정한 이미지로 모여 공간의 정체성을 만들게 된다. 장소성을 파악하는 것은 공간의 맥락을 하나로 집중시켜 공간에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는 일이다.

장소는 심리적 장소, 물리적 장소, 경제적 장소로 구분될 수 있다. 장소는 인간 활동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서 인간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원이 된다. 장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 가운데 극적 요소가 채택되고 이것이 가시성을 획득하면, 사람들이 이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장소성이 형성된다. 이어도는 예부터 제주 사람들이 해상 활동을 통해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공간적 배경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곳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어도라는 공간적 배경을 매개로 사람들에게 제주 사람들이 이어도를 배경으로 살아왔던 이야기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제주인의 삶의 터전인 이어도에 이야기를 부여하는 역할이다. 이어도를 스토리텔링 할 때는 원래 공간에 존재하는 이야기에 가상의 이야기가 합해진다. 그래서 이어도라는 공간에 존재하던 이야기에 변화된 이야기가 합해질 것이다.

어떤 공간에 대해 사람들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때 그 공간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된다. 아는 곳이 곧 장소라는 의미이며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은 그 장소에 대한 그 사람의 경험이 보태어져 의미 있는 곳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텍스트 공간적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며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재미와 흥미를 위해 그리고 목적에 의해 얼마든지 허구가 가미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어도 설화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어도의 장소성을 도출해 내고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 있다. 완결된 스토리를 통해 이어도가 제주 사람들에게 삶의 공간이었다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수집된 이어도 설화의 문예콘텐츠적 텍스트 분석이다. 지금까지 수집된 이어도 설화는 총 7편이다. 수집된 설화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등장인물,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주요사건, 이어도에 대한 장소성, 주제, 화자, 문화 콘텐츠를 분석하여 이어도 설화가 가진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스토리텔링 하는 데 도움이 되려는 방안을 고찰할 것이다.

둘째, 설화분석을 통해 각 편으로 된 7편의 설화를 한편의 스토리로 구성하여 제주인의 삶이 잘 표현되도록 상황을 설정하고 기승전결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스토리텔링 할 것이다. 이어도는 제주인의 특별한 문화권역⁶⁾이다. 제주사람들은 이어도를 죽어서 가는 곳이라

6) 강정원, 「웅기 문화지도 작성에 대한 이론적 모색 - 문화 전파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논총』 3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8, 80~84쪽

고 생각했다. 고동지 설화 속에서 고동지는 이어도에서 복락을 누리며 이어도에서 여인들에 둘러싸여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는 이어도가 바닷속 용궁 같은 해저세계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해상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 하다. 이어도 설화의 대표적 인물로 ‘고동지’를 설정하고 그 인물의 구체화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고동지를 대표적 인물로 설정하게 된 것은 유일하게 이어도를 다녀온 인물이라는 특이점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고동지’ 하면 이어도를 떠올려 이어도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하고 또 대중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주인의 행동과 이야기 맥락에서 이어도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를 부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맥락은 장소의 역사적, 지형적, 인간의 행위적인 특성 속에서 드러난다.

셋째, 이어도 설화의 문예 콘텐츠 분석을 통해 텍스트에서 이어도라는 ‘장소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장소성이란 장소의 인지된 특성으로 인간이 체험을 통해 애착을 느끼게 되는 어떤 장소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일컫는 것이다. 장소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으로 인간이 체험을 통해 공간을 이해하고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장소의 생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장소감(sense of place)은 개인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 부여하거나 생성(획득)된 장소와 관련된 의미이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발생한다. 반면 장소정신(spirit of place)이란 장소와 관련된 집단적 행위와 가치 부여를 의미하는데 상대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형성된다. 장소성(placeness)이란 장소감이나 장소정신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적 차원에서 사회적 의식으로 승화되었을 때 생겨나며, 결국 장소성이란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집단적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그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장소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⁷⁾

이어도라는 공간에서 장소성 도출이 중요한 이유는 제주인이 이어도라는 공간을 체험활동을 통해 어떻게 기억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이어도라는 공간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창출해냈는 가이다. 이야기는 사람의 삶의 체험활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공간특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주 지역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차별화해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어도라는 장소 내의 이야기 자원을 확대하거나 초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소는 물리적 공간에 인간의 경험과 태도, 그리고 가치 등 추상적 개념이 부여된 것이다. 이어도 설화의 텍스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어도라는 공간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작업과 공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감성을 길러내는 과정이다. 이어도라는 공간에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를 발굴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여 현대 제주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어도를 생각할 때 체험의 정서적 효과를 높여 이어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특별

7) 이석환·황기원, 1997: 최병두, 2002: Relph, 2005. 최인호·임은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장소 마케팅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학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68), 한국관광학회, 2008, 413쪽에서 재인용.

하고 의미 있는 장소로 여기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간이 사회적 구조와 행위의 산물로 이해되는 시각과 행위들은 공간과 관련한 문화적 상상력에서 파생되었다. 기존 공간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것은 공간 속의 물질적 층위만을 변화시키거나 새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영순은 경제적 가치와 편의적 기능으로 분할된 현대의 공간을 의미화하여 '가치들의 안식처(장소)'를 만드는 과정을 연구했다. 그에게 공간은 무엇보다 '에쿠메네(인간 삶의 거주지)', 즉 '삶의 공간'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는 몸으로 직접 공간을 경험하는 거주자 스스로가 이야기 재현의 주체가 된다.⁸⁾ 이어도 설화에 나타난 이어도는 제주인의 삶과 밀착되어 제주 사람들과 이어도가 상호 작용하는 예를 잘 보여준다.

8) 백선혜, 「소도시의 문화예술축제 도입과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대한지리학회지 39-6, 888-906, 2004

II. 이론적 배경

1.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힘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story) +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⁹⁾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어떤 사건을 겪은 사람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번 걸러진 지식을 알기 쉽고 느끼기 쉽게 이야기하는 한 방법이다.¹⁰⁾ 스토리텔링은 시공간적 현장성, 상호작용적 소통성, 참여적 개방성을 지닌 담화 양식과 그 같은 이야기의 장(field) 자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¹¹⁾ 이야기는 어떤 사건에 대한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여기에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뒤섞여 전달된다.

〈그림 11-1〉 스토리텔링의 개념



9) 조정래, 「스토리텔링 육하원칙」 지식의 날개 2010

10) 이인화,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 살림출판사, 2005

11) 박진, 「스토리텔링 연구의 동향과 사회문화적 실천의 가능성」 어문학, 122, 527~552, 2013

스토리텔링은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형할 수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체험이 공공의 체험으로 발전되고 개인적 경험이 갇힌 틀 밖에서 세상으로 나와 새로운 의미가 있게 된다.

스토리텔링은 체험적 소통의 가치가 있으며 공간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되고 체험되며, 공유된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공간은 지속해서 인간과 상호 의미를 생산하는 장소로서 그만의 본질, 즉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¹²⁾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새롭게 이야기를 창조하고 그 내용에 알맞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창작하고 전달하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스토리텔링에서 이야기 전달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감정적 표출이 재미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화자는 집중을 유도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 한다. 이런 방법이 교육적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알고자 하는 욕구에 재미가 더해지면 효과적인 소통의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스토리텔링에서 전달과정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감정의 교환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집중시키는 힘은 효과적으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게 하여 교육적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가 단순한 이야기이거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야기꾼이 단순 화자로 남아 있게 된다면 스토리텔링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야기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체험, 생각, 느낌 등을 공유하면서 정서적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¹³⁾

사람들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등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접할 수 있고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각 주제에 대하여 데이터는 많은데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주제는 사라지고 다만 하나의 정보, 즉 데이터로만 존재한다. 데이터 자체는 사실상 거의 무의미하다. 21세기는 무제한의 정보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다. 그것은 결국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자기화되었을 때라야 의미가 있다. 정보, 즉 데이터를 주제와 본래의 목적에 맞는 이야기로 꾸미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스토리텔링은 없는 것을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다.

12) 김영순, 정미강, 「공간 텍스트로서 ‘도시’의 스토리텔링 과정 연구, 텍스트 언어학 23, 2008, P.167~192

13) 송정란,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서울 문학아카데미, 2006

이미 존재하는 구술을 꿰어 보배로 재창조하는 과정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흥미를 갖고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덧붙여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에서는 이어도가 현재 종합과학기지가 있는 곳이라는 대국민 홍보에 최적화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이어도라는 장소성을 강화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야기는 사건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야기에는 개연성, 관계성, 환원성, 확정성을 갖고 상호작용함으로써 말하기를 통해 소통의 과정을 거친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흥미와 전달력이 달라진다. 또 듣는 사람이 어떤 호응을 하느냐에 따라 화자는 이야기를 신이 나서 계속 부풀리기도 하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운을 잃고 맥이 빠지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현장성과 몰입도가 강화되는 스토리텔링은 현실적이고 상호 관계적 성격을 지닌다.

스토리텔링에서의 이야기가 언제나 사실일 이유는 없다.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위해서 사실에서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왜곡도 허용된다. 스토리의 목적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에 대한 믿음과 신빙성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⁴⁾

구비문학은 스토리텔링의 대표적 장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스토리텔링 일례로 경기도 안성에 칠장사라는 절이 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이 절은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스토리는 암행어사 박문수가 나한전에서 기도해서 과거에 급제했다는 '몽중등과시' 스토리이다.

때는 1723년 조선 경종 때였다. 지금의 천안시 입장면에서 살았던 박문수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기 전날 어머니는 “내가 들으니 안성의 칠장사라는 절의 나한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고 하더라. 너도 과거 보러 가는 길에 꼭 들러서 은덕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빌고 가거라.”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칠장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박문수는 나한전에 초청 유과를 공양하고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박문수 꿈에 나한전에 있던 부처님이 나와 과거에 나올 시제를 알려 주었다. 총 8줄 중에서 7줄까지는 알려주고 나머지 한 줄은 너 스스로 알아서 쓰라고 하였다. 공교롭게도 과거시험을 보러 간 박문수는 꿈속에서 부처님이 알려준 시제가 나와서 꿈에서 알려준 7줄에 마지막 한 줄을 더해 써냈고 바로 장원급제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의 힘으로 칠장사는 각종 시험을 눈앞에 둔 수험생들이 기도를 발원해 뜻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는 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찾아오는 사람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14) Ian M.&John. G. H. (1999), How storytelling shapes memory and impressions of relationship events over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3)

〈그림 II-2〉 ‘몽중등과시’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러



이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룰프 예센은 ‘Dream society’에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여 움직이는 사회라고 했으며 꿈이 담긴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라고 했다. 꿈의 진정성이 공유될 때 스토리텔링의 가치는 오랫동안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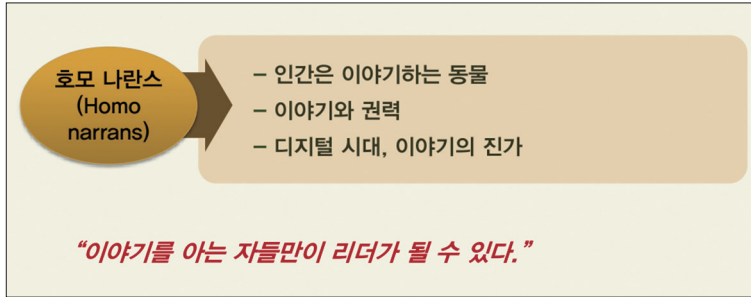
2. 이어도 공간의 스토리텔링

‘이야기는 장소성을 강화한다.’라는 말처럼 장소에 대한 경험이 정체성으로 이어져 별 의미 없는 공간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장소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제주 사람들에게 수많은 의미와 가치가 있었던 이어도에 대한 스토리텔링에서 실제적 역사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 해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갔던 제주인들의 삶과 생활이 녹아있는 이어도라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설화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이유이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다. 이야기는 권력의 도구였다. 이야기를 많이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

이어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는 연구자들마다 제각각이다. 이는 이어도에 관한 이야기가 구술처럼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완결성을 가진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한 줄로 꿰어져 어떤 보석으로 탄생할지는 스토리텔링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림 II-3〉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



특히 이어도의 장소성을 나타내는데 특정한 담론 때문에 개념화된 공간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나타난 이어도의 공간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간에서 이미 생산 소유권을 독점했던 고정된 권력을 해체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공간 텍스트의 의미가 비판적으로 확장되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연쇄작용을 ‘텍스트 소통적 공간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른다.¹⁵⁾

제주 사람들은 이어도를 죽은 자들이 복락을 누리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어도 사람들에게 이어도가 실제로 있는 곳인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이승에서의 고단한 삶 대신 저승에서라도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이는 죽은 자에 대한 애도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본인을 위한 위로였다. 앞으로 살아갈 용기를 북돋우는 장치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 사람들에게 이어도가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중국으로 가는 길 머나먼 바다에 어디쯤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어도가 실제로 있었던 구체적 공간으로 살려내려고 한다. 이는 이어도가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명확하게 이어도를 선점하기 위함이다. 스토리텔링의 목적은 메시지의 전달이다. 그 시대가 필요한 이야기를 때로는 과장되게, 때로는 대조적으로,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메시지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주인과 이어도라는 공간이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은 옛 해양대국 탐라에 이어 제주에서 산 사람들의 생활사 측면에서 이어도를 재조명하여 스토리텔링 함으로써 이어도는 예로부터 제주인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이어도가 우리 바다라는 ‘장소성’을 강화할 것이다.

이야기는 글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이야기를 통해 인간으로서

15) 김영순·정미강(2008), 「공간 텍스트로서 도시의 스토리텔링 과정 연구」 『텍스트언어, 학』 24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74, 178쪽
박진(2013), 스토리텔링 연구의 동향과 사회문화적 실천의 가능성, 어문학, 122, 527~552, 재인용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와 지혜들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의 공통점이라면 주인공에게 닥쳐오는 위기와 시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공감을 얻는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야기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속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위기와 갈등은 이야기의 변치 않는 본성이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의 요소는 현재성, 입체적, 현장성, 행동성, 역동적, 상호작용성, 유연성 등이 있다. 이야기가 지닌 의미가 중요하고 서사가 풍부하다고 해서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고 참신하면서 새로운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이야기를 우선 순위화한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의 원형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수행되는 스토리텔링은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원형적(Archetypal) 이야기들을 어떻게 가공하는가에 따라 단계별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원형적 이야기란 스토리텔링의 지표, 근본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소재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의 개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원형적 이야기가 완성된 캐릭터의 형태로 구현된 것을 1차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며 1차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야기를 변용시키는 과정을 2차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스토리텔링의 이야기 확장성, 이야기의 창조적 재구성, 주체 간 상호작용성, 향유의 지속성이라는 특징과 관련이 있다.

지자체 캐릭터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자원 스토리텔링 개발은 지역 이야기 자원의 '발견', '보존', '확장', '창조'에서 출발하여 1차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지자체 캐릭터와 목적에 의하여 지역 이야기를 변용시키는 2차 스토리텔링의 확장성, 이야기의 창조적 재구성, 주체 간 상호작용성, 향유의 지속성의 과정을 통하여 개발될 수 있다. 지역 이야기의 범주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캐릭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이야기 발굴 및 자원화 개발과정은 탐색, 분류, 구성, 다듬기, 공유의 5단계로 진행된다. 수원시 캐릭터 수원을 중심으로 수원시 이야기 자원을 허구형과 실재형으로 구분하여 융합 스토리텔링 모델을 제안하고, 스토리텔링 개발 프로세스를 정리하였다. 지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은 캐릭터에 지속적인 생명력을 불어 넣고 지역 이야기 자원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지만 궁극적 목표는 '스토리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지자체 캐릭터가 탄생과 쇠락을 반복해왔다. 지역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캐릭터가 외부에서 사랑받을 수는 없으며 지역주민의 상징성과 정체성이 담긴 이야기가 있는 캐릭터일 수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존 가능성은 커진다. 따라서 지역 이야기 자원을 활용한 융합 스토리텔링은 침체된 지자체 캐릭터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¹⁶⁾

16) 이승영(2018). 지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 이야기 자원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2), 549~560

Ⅲ. 이어도 설화의 분석

1. 이어도 설화의 수집현황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 등이 있으며 각각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다. 신화는 천지창조, 왕조의 탄생 등 신성한 이야기를 다루며, 전설은 어떤 지명이나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많고, 민담은 흥미 위주로 창작된 이야기로 구분되지만, 그 경계는 모호하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구전설화가 문자로 기록되면서 문헌으로 남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구전되는 설화는 구비문학으로 문헌에 남은 설화는 기록문학으로 분류된다. 구비문학의 특징은 구전된다는 데 특징이 있다. 구전되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화자에 의해 새롭게 각색된다. 화자에 따라 이야기의 흥미와 중요성이 달라지고 화자에 따라 각기 다른 꾸밈을 받기 때문이다. 이야기로 전해지기 때문에 내용이 전달하기 쉬운 내용으로 복잡하지 않은 표현으로 이야기는 구술된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말하는 사람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풀어가기도 하고 또 대충 얼버무리기도 하듯 설화의 특징은 듣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구전문학은 어느 순간 문헌에 기록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문헌에 기록된 것은 다 설화가 아닐까? 문헌설화가 이미 구비문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변성이 제거되었다고는 하나 문헌으로 남기 전까지는 구비전승되었기 때문에 문헌설화도 설화의 범주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구전설화의 채록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현지 조사에서 직접 채록한 것은 현장성이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다.

설화는 구술되어 전해지거나 혹은 문헌에 기술된 상태로 전해진다. 이어도 설화중 『聽春漫稿』와 강봉옥의 “濟州島의 民謠 五十首,”는 이태영과 강봉옥에 의해 기술된 상태로 전해지며 나머지 다섯 편은 각각 채록된 상태로 전해진다.

〈표 III-1〉 이어도 설화 채록 현황

번호	제목	저자(채록자)	출처	형태
1	이어도	이용호	『聽春漫稿』(이태영 역, 1996)	기술
2	이허도	강봉옥	강봉옥, “濟州島の 民謠 五十首,” 『開闢』, 제32집(1923)	기술
3	이허도	다카하시 도오루 [高橋亨]	“民謠에 나타난 濟州女性-‘이허도(離虛島)’ 전설” 『朝鮮』 212號 昭和 8年(1933년)	모슬포에서 채록
4	이어도	진성기	『신화와 전설』, 제주 민속연구서, 1959.	조천리에서 채록
5	이어도	현용준 · 김영돈	『한국 구비문학 大系 -복제주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203~206.	동김녕리에서 채록
6	이어도	현용준 · 김영돈	『한국 구비문학 大系 -서귀포시 남제주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232~233.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채록
7	이어도	고은	『제주도-그 전체상의 발견』, 일지사, 1976, p.67~69.	제주시 산지포에서 채록

기술자나 채록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으로 제주 사람들은 고기잡이 나간 아방과 물질 나간 어멍이 돌아오지 않을 때 먼바다 어디쯤 있는 이어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것은 어쩌면 고단한 삶을 살다간 그들이 죽어서라도 편히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살아있는 자들이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어도는 제주해민들의 집단기억(memoirs collective)에 의해 재현되는 장소이다. 1900년대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모리스 알바시가 제시한 ‘집단기억 이론’에 의하면 기억이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것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했다. 기억은 항상 특정한 집단에게만 유효할 뿐이며 보편성과는 거리가 멀다. 알바시의 이론에 의지한 ‘기억의 티’ 연구는 한 민족의 집단기억이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과정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사’ 이후의 대안적 관점을 제공해 준다. 집단기억 속에서의 장소는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구체적 공간으로 그 속에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며 일상적 의미가 추구된다. 따라서 이어도라는 장소는 생활 체험을 토대로 인지되며 친밀감이나 거리감을 비롯한 여러 감정이 부여되어 상징적으로 의미화된다. 장소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 일정한 경계가 있는 현상으로서 정체성이 형성되고 유지되며 변형되면서 의미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어도가 실재하는 섬인지 아니면 단지 설화에 나오는 상상의 섬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설화 즉 전설에 나오는 지명들은 실재하는 것들로, 실재하는 지명이라야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고 후세에 계속 전승할 수 있다.¹⁷⁾

17)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p.231, 도서출판 각, 2019

2. 이어도 설화의 문예콘텐츠 분석

2-1. 이어도(離汝島) · 이용호, 『聽春漫稿』(이태영 역, 1996).

〈표 III-2〉 이용호 콘텐츠 분석

등장인물	유배 온 선비(이용호), 관인(館人), 방아 찧는 제주 사람들
시간적 배경	구한말 갑오개혁
공간적 배경	제주의 한 유배지
주요사건	유배 온 선비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노래를 듣고 관인에게 물으니 제주 사람들이 방아를 찧으며 부르는 소리라고 하였다
이어도에 대한 장소성	어디인지 모르나 제주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
주제	너와 이별한 섬
화자	유배 온 선비 (이용호)
문예 콘텐츠	연지방아, 유배관

이어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설화 기록물은 문집 『청용만고(聽春漫稿)』이다. 『청용만고』는 제주에 유배되었던 석촌(石村) 이용호(李容鎬)(1842~1905)¹⁸⁾의 문집이다. 『聽春漫稿』란 방아 찧는 소리처럼 생각 내키는 대로 엮은 시문이란 의미이며, 바로 여기에 ‘이어도(離汝島)’가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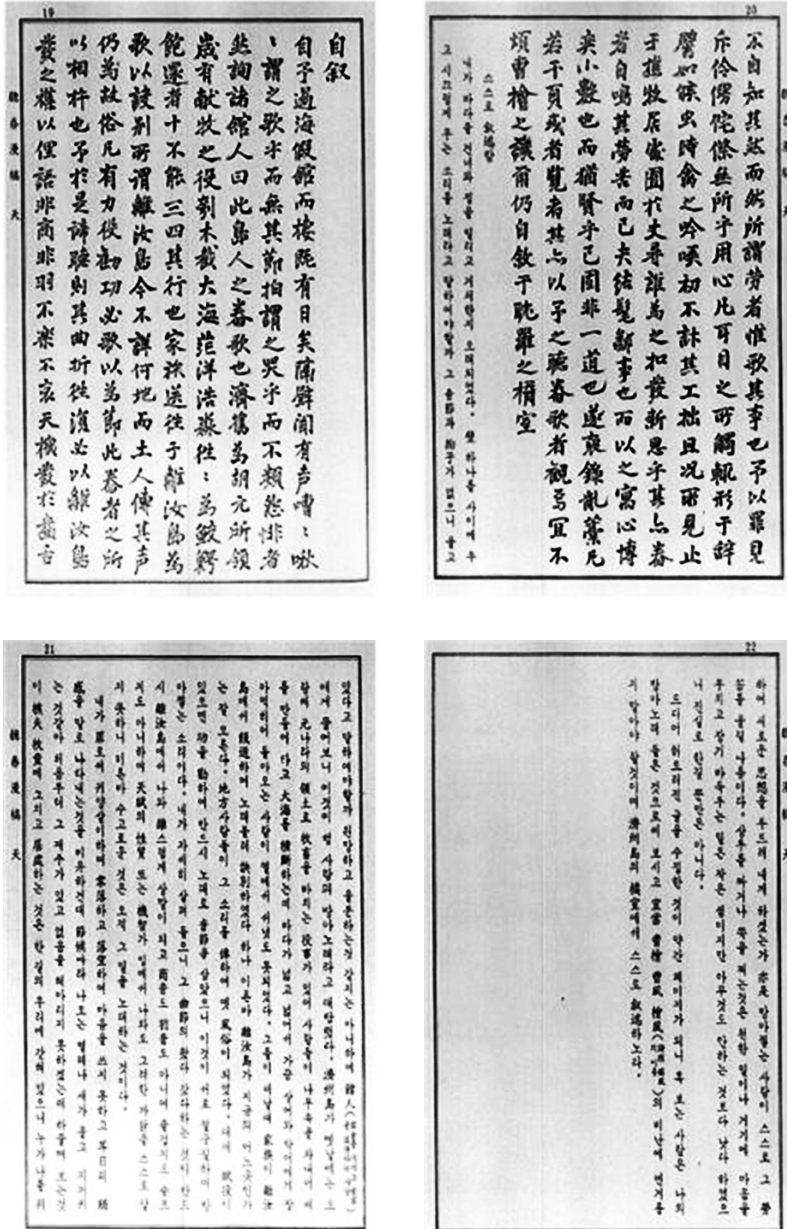
노래 곡절에는 반드시 ‘이어도(離汝島)’란 소리를 반복하면서 사투리로 잡다한 가사를 내고 있었고, 상조(商調)의 슬픈 가락이거나 우조(羽調)의 흥겨운 가락은 아니었다.

이 책 『청용만고』는 필자 이용호의 증손(曾孫)인 이태영이 1996년 국역 판으로 출판했다. 이 내용에 근거할 때, ‘이어도(離汝島)’, 즉 ‘너를 떠나보낸 섬’이라는 뜻의 이어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주의 토박이들이 그 소리를 전하면서 오래된 풍속으로 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어도가 이미 19세기 이전부터 회자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아래

18) 이용호(李容鎬)의 자(字)는 자관(子寬), 호(號)는 석촌(石村)이다. 모양군의 13대손이며 청담공의 10대손이고 처상(致庠)의 아들이다. 1878년(고종 15)에 정시 병과(丙科)에 급제(及第)하고,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 및 충청 어사·경상 선무사를 역임하였다. 흥선대원군 섭정 기간 때 유능한 인재로 발탁되어 정사를 두루 근무하였다.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명성황후 일족의 집권으로 흥선대원군의 실권이 쇠퇴하여 그를 추종하던 모든 정객도 몰락하였다. 윤양 김윤식을 비롯하여 그 일당 수십 명이 각 섬으로 귀양 갔다. 그는 제주(濟州)에서 주민과 아동에게 경학을 가르치며 6년을 보냈다. 그는 그곳에서 기거하며 그 지방의 풍물과 풍치를 저술(著述)하고, 주옥같은 문장(文章)으로 세속을 표출하여 『청용만고』(聽春漫稿)를 냈다. 1905년(광무 9) 사면되었으며 64세로 별세하였다. ‘신종우의 인명사전’ 홈페이지 참조 (<http://www.shinjongwoo.co.kr/name/ah/azh/wjsw/wjs980.HTML>)

그림은 『청용만고』의 자서(自叙) 전문이다.¹⁹⁾

〈그림 Ⅲ-1〉 『청용만고(聽春漫稿)』 사본



19) 이윅호, 『聽春漫稿』(기증족보사, 이태영 역, 1996), p.19~22.

『청용만고(聽春漫稿)』는 이여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설화 기록물이다.²⁰⁾ 고종 때 흥문관 교리를 지낸 이용호는 흥선대원군의 정객이었다. 갑오개혁 이후 흥선대원군의 실각으로 제주로 유배를 오게 된다. 그는 이 책에서 1897년 3월 제물포에서 1901년 5월 제주 유배자들에게 이도 분산 명령이 떨어져 전라도 신지도로 가기까지의 삶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2권 1책의 일기체 형식으로 된 이 책은 유배지에서 방해질 소리를 들으며 감동한 이용호가 관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적은 것을 정리한 것이다. 이여도에 대한 언급은 문헌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표현으로 알려졌다. ‘이여도 사나’에 등장하는 ‘이여도’의 어원이 ‘너와 이별한 섬’이라는 의미의 한자어 ‘이여도(離汝島)’라고 밝혔다. 이여도라는 곳이 지금 어디인지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제주 사람들이 방아를 찧으며 부르는 노랫소리가 전해지면서 그게 바로 풍속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이여도’와 ‘방애질소리’는 질곡의 역사가 함축적으로 내포된 제주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몽골 오랑캐의 지배를 받던 시기 목축할 땅을 바쳐야 했던 제주인들은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바다로 나간 이들이 열에 서넛밖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기술하며 집을 나설 때면 제주인들은 ‘이여도’로 떠나보낸다는 전승의 노래를 불렀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멧돌을 이용해 곡물을 뿔었던 제주인들이 19세기 후반에는 제주인들이 말이나 소의 힘을 빌린 연자방아를 돌렸던 사실이 확인된다.²¹⁾

2-2. 강봉욱(1923)의 저술 『한국 구비문학 大系 -북제주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p.203~206.

〈표 III-3〉 강봉욱 콘텐츠 분석

등장인물	뱃사람들, 해설자
시간적 배경	시대 미상
공간적 배경	바다 위 배에서
주요사건	뱃사람들이 부른 노동요
이여도에 대한 장소성	노동요 :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섬 갈 때는 영화로 가도 올 때는 상여를 타고 오는 곳 해 설 : 전설 속에 있는 섬 서남으로 風船을 타고 4~5일 가야 하는 곳 제주 사람들의 이상향
주제	이여도는 이상향
화자	노래를 듣고 이여도에 대해 해설을 하는 사람
문예 콘텐츠	花旂 (상여), 고깃배

20) 이여도연구회, 역사설화를 활용한 이여도 이해증진 방안연구, 2015

21) 현행복 역, 『聽春漫稿』, 민음사, 2018

이어도에 관한 두 번째 오래된 기록물은 1923년 『開闢』 제32호에 게재된 강봉옥(康奉玉)의 “濟州島の民謡五十首, 맏돌 가는 여자들의 주고 받는 노래”²²⁾이다. 필자 강봉옥은 이 글에서 제주의 민요를 소개하면서 이어도에 대한 민요와 전설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이어도는 수평선과 같은 높이로 안개가 자욱한 봄 날씨가 지속되는 섬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제주도민이 동경하는 이상향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離虛島러라 이허도러라.
 이허, 이허 離虛島러라.
 이허도 가면 나 눈물 난다.
 이허말은 마라서 가라.
 울며 가면 남 이나 옷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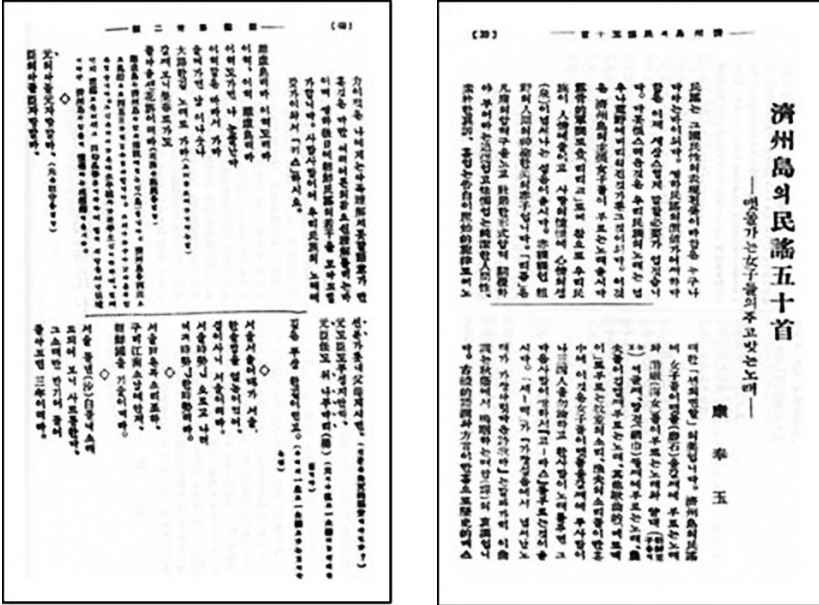
 大路 한길 노래로 가라. (노래 부르며 가라는 말)
 갈 때 보니 榮華로 가도
 돌아올 땐 花旃이러라. (花旃旃은 喪輿를 말함)

離虛島는 濟州島 사람의 전설에 잇는 섬(島)입니다. 濟州島를 西南으로 風船으로 4, 5일 가면 갈 수 잇다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갓다운 사람은 업습니다. 그 섬은 바다 가운데 수평선과 가튼 平土섬이라 하며, 언제던지 雲霧로 둘러끼고 四時長春 봄이라 하며 멀리 세상을 떠난 仙境이라구 濟州島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상향이올시다.

이 글의 필자 강봉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나 민족지인 『개벽』에 제주도 민요를 실은 것으로 봐서 민족주의 사학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22) 강봉옥, 「濟州島の民謡五十首」, 『開闢』, 32, 1923, p.39~40.

〈그림 III-2〉 『개벽(開闢)』 사본



1923년 『開闢』 32호에 게재된 강봉옥의 “濟州島の民謠 五十首, 멧돌 가는 여자들의 주고받는 노래”²³⁾는 두 번째 오래된 이어도에 관한 기록물이다.

離虛島러라 이허도러라.
 이허, 이허 離虛島러라.
 이허도 가면 나 눈물난다.
 이허말은 마라서 가라.
 울며가면 남 이나웃나

大路한길 노래로 가라. (노래 부르며 가거라는 말)
 갈때보니 榮華로 가도
 돌아올땐 花旃이러라. (花旃은 喪輿를 말함)

23) 康奉玉, 「濟州島の民謠 五十首」, 『開闢』, 32, 1923, pp.39~40.

離虛島는 濟州島 사람의 전설에 있는 섬(島)입니다. 濟州島를 西南으로 風船으로 4, 5일 가면 갈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갔다운 사람은 업습니다. 그 섬은 바다 가운데 수평선과 가튼 平土섬이라 하며, 언제던지 雲霧로 둘러끼고 四時長春 봄이라 하며 멀리 세상을 떠난 仙境이라구 濟州島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상향이올시다.

2-3. 다카호시 토오루 “民謠에 나타난 濟州女性-‘이허도(離虛島)’ 전설” 朝鮮, 212號 昭和 8年(1933년)

〈표 III-4〉 다카호시 토오루 콘텐츠 분석

등장인물	목관, 해상운송업의 거간의 아들 강씨와 그의 부인,
시간적배경	고려시대 충렬왕 3년
공간적배경	대정의 모슬포,
주요사건	고려말 원간섭기때 중국에 공물을 보내기 위해 대정에 사는 강씨라는 사람이 황해를 가로질러 공물선을 타고 갔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강씨의 부인은 “아아, 이허도야 이허도”라고 시작하고 끝나는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매우 슬픈 곡조였다.
이어도에 대한 장소성	제주 모슬포에서 중국 산둥으로 가는 뱃길 사이 공상의 섬 제주와 중국과의 중간쯤
주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이어도로 떠나는 여인의 애환
화자	3인칭 구술자
문예 콘텐츠	충렬왕, 목관, 공선, 산둥

옛날 고려 시대 충렬왕(忠烈王) 3년 원(元)의 지배를 받아 목관이 와서 통치하기 시작한 때부터 원말(元末)까지 제주에는 매년 공물을 중국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공선(貢船)은 북쪽의 산둥(山東)에 가기 위해 섬의 서남쪽 대정의 모슬포에서 준비하여 출발했다.

언제인지 모르나 대정에 강(姜)씨라는 해상운송업의 거간인 장자(長者)가 있어서 이 공물선의 근거지를 이루고 그때마다 수척의 큰 배가 공물을 만재하여 황해를 가로질러 출발했다. 그런데 이들 공물 선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강씨에게는 늙은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슬픔은 이기지 못하고 “아아, 이허도야 이허도”로 시작하고 끝나는 노래를 짓고 이를 불렀다. 그 곡조는 처참하도록 슬펐다.

다카하시 토오루는 1929년 11월에 민요 수집을 위해 제주도를 처음 방문했으나 별다른 성

과가 없었고 1930년 조수 조운제를 보내서 200수 정도의 민요를 수집하여 1931년 명륜학원에 입학한 제주 출신 이창해(李昌廈)에게 검증을 받은 후 1931년과 1932년 여름에 다시 제주를 돌며 모두 300수 가까이 수집했다. 그리고서 1933년에야 『朝鮮』 1월호에 실었다. 그런데 글을 발표하는 데까지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제주의 민요가 이미 10여 년 전 섬사람 김 모가 민요를 400여 수 채집해서 중추원에 보냈으며 그것의 일부가 『개벽』에 소개되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²⁴⁾ 『개벽』에 제주 민요를 400여 수 채집해서 중추원에 보냈고, 그 일부를 『개벽』에 소개한 섬사람은 강봉옥(康奉玉)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카하시 도오루의 글에서 이어도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²⁵⁾

제주의 노래에는 방아 찧는 노래에도 뱃노래에도 농가(農歌)에도 그 밖의 노래에도 노래의 첫 부분과 끝부분에 이어도야 이어도(또는 이허도라고도) 하는 후렴이 붙어있다. 어떤 이는 이허도(李虛島)라고 쓴다. 이 섬은 공상 속의 섬이며 제주와 중국과의 중간쯤에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가는 배이건 오는 배이건 이 섬까지만 오면 우선 안심한다는 곳이다. 그래서 떠나가는 배에 대해서는 이허도까지 무사하여지라고 비는 것이며 또 가서 돌아오지 않는 배가 있다면 최소한 이허도까지만 돌아오면 이 재난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을 하고 슬퍼한다.

다카하시 도오루에 의하면,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으며 500여 년 전에 이어도 전설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그 후 5백 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이 슬픈 곡조가 의미를 다 잊힌 채로 섬 여인네들에 의해 노래 불러 대부분 그네들의 노래 모티브가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것은 그네들의 마음이 당연히 여기에 공명공조(共鳴共調)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네들의 가사도 십중팔구는 슬픈 것이다. 기쁘다, 즐겁다는 노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그네들의 인생관이 어두운 것이다. 이 생을 기뻐하며 즐거운 기분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다. 어쩌면 이 세상 그 자체를 싫어하고 혹은 나 자신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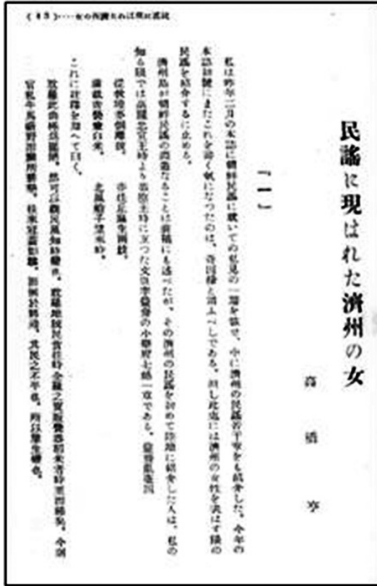
그리고 더불어 그는 이어도에 제주여인들의 어두운 인생관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의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어도를 하나의 이상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4) 박광현, 「다카하시 도오루와 경성제대 '조선 문학' 강좌 - '조선 문학' 연구자로서의 자기 동일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40집(2007), pp.47-48.

25) 다카하시 도오루, 「民謠에 나타난 濟州女性」, 『濟州女性史料集Ⅱ』, (제주 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 2008), pp.41-42.

26) 다카하시 도오루, 「民謠에 나타난 濟州女性」, 『濟州女性史料集Ⅱ』, (제주 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 2008), p.43.

〈그림 III-3〉 『조선(朝鮮)』 212號 사본



이 이야기에서는 고려 시대 충렬왕 3년이라는 구체적 시간적 배경이 나타난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해상운송업이라는 직업이 제주 지역의 특수성과 맞물리며 중국에 공물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진성기 채록 본에서 국마진상을 떠난 고동지와 상충한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배를 지어 남편을 찾아 떠나는 모습에서는 제주 여성의 강인한 정신을 엿볼 수 있다.

2-4. 진성기 「신화와 전설」, 제주 민속연구서, 1959.

〈표 Ⅲ-5〉 진성기 콘텐츠 분석

등장인물	고동지,
시간적 배경	어느 해 (원간섭기로 추정)
공간적 배경	조천리
주요사건	고동지라는 사나이가 중국으로 국마진상을 떠남 조천포구에서 떠난 배가 수평선에 이르렀을 때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이어도에 도착 고향을 그리워 하며 노래를 부름
이어도에 대한 장소성	과부들만 사는 섬 강남으로 가는 절반쯤에 이어도가 있다.
주제	죽어서도 사는 곳
화자	3인칭 구술자
문예콘텐츠	국마진상, 여돛할망, 장귀동산 당

옛날 조천리에는 고동지라는 사나이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해에는 중국으로 국마진상을 가게 되었다. 그날따라 바람 한 점 없이 바다는 잔잔하여 고동지는 동료 배들과 함께 말을 잔뜩 싣고 순풍에 돛을 달아 배는 조천포구 수진개를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배가 수평선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폭풍이 불어 닥쳐 배는 나무 조각처럼 흔들리며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고동지는 동료들을 모두 잃고 자기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표류하여 도착한 땅은 '이어도'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어도'에는 큰 태풍 때 고기잡이 간 어부들이 수중고혼이 되는 바람에 이른바 과부들만 사는 섬이었다.

과부들은 고동지가 떠돌다 물에 닿자 환영이 대단하였다. 과부들이 저마다 고동지에게 자신의 집에서 살기를 바라니 정말로 딱한 일이었다. 할 수 없이 고동지는 매일 과부들의 집을 바꿔가면서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와서 처마에서는 낙숫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불현듯 고향의 아내와 부모 형제가 그리웠다. 아내를 보고 싶은 생각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날 밤은 초승달이 반달이었으나 달이 유난히 밝았다. 바닷가를 배회하면서 멀리 수평선 너머로 아내의 이름을 수백 번도 더 외쳐 불렀다. 점점 더 달 밝은 밤이면 고향이 그리워졌고, 고향이 그리워지면 바닷가를 찾았다.

바다는 부드러운 가락으로 노래를 불렀다. 고동지도 파도의 가락에 따라 자신을 달래며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다.

이어도 (ㅎ)라 이어도(ㅎ)라
 이어 이어 이어도(ㅎ)라
 이어 말(ㅎ)민 나 눈물 난다
 이어 말랑 말랑근 가라
 강남을 갈 거면 해남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엿 해라

그 소리 사설은 강남으로 가는 절반쯤 길에 ‘이어도’가 있으니, 나를 불러 달라는 애절한 내용이었다.

이어도 주민들이 이 고동지의 노래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많은 주민이 그의 처지를 동정하여 흐느껴 울었다. 어느새 이어도 노래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어느 날 고동지는 뜻밖에 중국 상선을 만나 귀향하게 되었다.

이때 ‘이어도’의 한 여인이 고동지를 따라 제주에 들어오게 되었다.

고향에서는 태풍으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고동지가 살아 돌아오자 잔치를 벌였다.

‘이어도’에서 고동지를 따라서 온 여인을 마을 사람들은 ‘여돛할망’(이어도의 할머니라는 뜻)이라고 불렀는데, 세상을 떠난 후에는 마을 당신(堂神)으로 모시게 되었다.

지금 조천리 ‘장귀동산 당’이 바로 그 여돛할망을 모신 당이다.

이 채록본은 고동지라는 정확한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그가 국마진상을 떠났다는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며 조천포구라는 공간적 배경도 제시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어도라는 정확한 지명이 표기된 것도 이 설화에서 주목할만한 점이다. 고동지를 따라 이어도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의 여돛할망을 기리는 장귀동산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 설화를 기점으로 나머지 각 편을 조합하여 스토리텔링 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2-5. 현용준 · 김영돈(1980)의 저술 동김녕리 채록

〈표 III-6〉 현용준 · 김영돈(1980) 콘텐츠 분석

등장인물	남편, 아내, 첩, 시아버지
시간적 배경	옛날
공간적 배경	어느 마을 (동김녕리), 선흘 고지
주요사건	남편이 이여도로 가서 첩을 얻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가 남편을 찾아 떠난다. 이여도로 가서 남편을 찾아 오던 중 온 가족이 몰사 풍파를 만나 몰사한 가족을 불쌍히 여겨 당제를 지내주었다.
이여도에 대한 장소성	남편이 첩을 얻어 행복하게 사는 곳 멀고도 험난한 곳.
주제	죽어서도 살 수 있는 이여도
화자	3인칭 구술자
문예 콘텐츠	선흘고지, 꽃자왈, 동백나무, 이여도, 당제,

현용준 · 김영돈(1980: 203-206)이 동김녕리에서 1977년에 채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편이 아내를 버려두고 무인도인 ‘이여도’로 가서 첩을 정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는 늙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 부탁하였다.

“아버님, 배 한 척만 지어 주십서.”

“뭘 하젠?”

“남편을 찾아 보쿠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 선흘 고지(편집자 주 ; 조천읍 선흘리 꽃자왈로 동백나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나무가 뺨뺨이 들어선 천연림)로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지어 주었다.

어느 화창한 날을 택하여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함께 남편이 살고 있는 이여도를 향하여 배를 띄웠다. 이여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며느리가 노를 저으며 어서 ‘이여도’에 가자고,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소리[노래]를 불렀다.

드디어 힘겹게 이여도에 이르렀다. 과연 남편은 새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남편은 아버지와 본처가 귀향할 것을 설득하자 하는 수 없어 가족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기로 결정을 내렸다.

온 가족이 한배에 타서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파가 몰아치니 다 몰사당하고 말았다.

그 후, 그 고향 사람들은 풍파를 만나 몰사한 그 가족들을 불쌍하게 여겨 당제(堂祭)를 지내듯 늘 제사를 올렸다.

구술된 이야기는 화자의 구술능력과 청자의 공감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또 지역에 따라 변형되어 구술되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남편이 이여도로 가서 첩을 얻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고동지와 비슷하고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가 남편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는 대정의 강씨 부인과 겹쳐진다. 이 이야기에서는 죽어서도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여도를 그렸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만한 이야기이다.

2-6. 현용준 · 김영돈(1983)의 저술 서귀포시 대포동 채록

현용준 · 김영돈(1983 : 232-233)이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1981년에 채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7〉 현용준 · 김영돈(1983) 콘텐츠 분석

등장인물	군대 간 남편, 부인,
시간적 배경	옛날, 인편으로 편지는 가능하던 시절
공간적 배경	어느 바닷가 마을,
주요사건	군대 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빗돌을 돌리며 노래를 부름
이여도에 대한 장소성	바다 어디 먼곳, 오끼나와나 중원 어디쯤인지 몰라 혹시 이여도라는 섬이라는 곳에 있지 않을까?
주제	죽어서도 살 수 있는 이여도
화자	3인칭 구술자
문예 콘텐츠	군대, 빗돌, 이여도,

어느 한 남편이 군대에 출정을 나갔는데, 비교적 나가면은 혼 번 돌아 오도 못 후고, 옛날에 무슨 전화가 시카(있을까). 뒷이 아무것도 었는(없는) 때에 촌 펜지도 전후기가 곤란후주. 펜지도 사름이 날랐거든. 그럴 때에 혼 번 나가면은 소식 없이 혼 세상 다 무치는 사름덜이 많거든, 그 군대에 나가면.

그러면 ‘어평사(어떻게야) 지난(지내서) 이제도 죽어신 디(죽었는지) 살아신 디 모른다.’ 그

부인네는.

그러면 그 그래·방에(맷돌·방아) 흘 때에다 노래를 그렇게 부른다. 그 남편을 생각하는, 서방을 생각하는 견지에서 노래를 그렇게 멘드는데, 이어도라 훈 섬이, 이어도옌(이어도라고) 후민 섬 도째주게(島字이지).

이 섬이 어느 부근, 아마도 그 훈재(훈자) 있는디, 있으니까 여기서민 어디 오끼나와라던지, 어디 중원(中原) 어디 무슨 섬이라든지 이런 디가 있으며는 군대에 가서 요디나(여기에나) 부떠서(붙어서) 살아보지 안 후는가? 이렇게 짚으는 말인데, 그 이어도라는 섬이 어디 있는 것을 알아지민(알게 되면) 거 합격인디, 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주. 이어도 말 후되 이어도가 아니고 무슨 어디 섬을 이어도라고 했는지 모르주.

이 이야기는 설화보다는 이어도에 대해 제주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를 대변해주고 있다. 물질 나간 어멍이나 고기잡이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아도 주검을 수습할 수 없었다. 실종이 다반사였던 것이다. 제주 사람들은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은 혈육을 언젠가는 만날 것으로 생각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생각했고 그 언젠가 오기 전까지 그들이 살아야 할 공간을 상정해야만 했다. 이런 점에서 제주 사람들이 상정한 곳이 이어도였다.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의 이런 집단 기억이 만들어낸 공간이었다.

2-7. 고은(1976)의 저술

고은이 제주시 산지포에서 채록(채록 시기 미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8〉 고은 콘텐츠 분석

등장인물	늙은 어부와 그의 동료
시간적 배경	옛날
공간적 배경	산지포, 이어도, 표선, 애월,
주요사건	늙은 어부가 고기잡이 나갔다가 격랑을 만나 표류됨 표류 중 하얀 절벽으로 된 이어도가 나타났다. 이어도에서 표류하다 표선에서 발견된 그는 애월 집으로 돌아갔지만, 폐인이 되어 말을 하지 못했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어도를 보았다고 하고 숨을 끊었다.
이어도에 대한 장소성	바다 한가운데 절벽으로 된 이어도
주제	살아서는 갈 수 없는 이어도
화자	3인칭 구술자
문화 콘텐츠	군대, 맷돌, 이어도,

산지포(山地浦)의 한 늙은 어부는 그의 동료와 함께 근해어로(近海漁撈)에 나섰다가 극심한 격랑을 만나서 표류하고 배는 없어져 버렸다. 겨우 배의 널조각 하나를 붙들고 상어 새끼들이 지나가고 있을 무렵 그 상어 새끼에 쫓기면서 그의 삶을 붙들고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그는 죽어가기 시작했다. 더 아무런 힘이 없었다. 이제 곧 그의 의식이 사라지고 그의 몸은 시체가 되어서 상어 새끼들의 아기가 자기한 밥이 될 것이다. 마치 一七(십칠)세기의 끌레가 「하는 대로 버려두라. 가는 대로 버려두라(Lais-sez fair Laissez passer)」라고 외치고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살아 있는 한 힘을 다하여 헤엄쳐 갔을 때 더 헤엄칠 수 없는 완전무력(完全無力)의 상태에서 죽어가는 것 같은 고독과 절망이 그 어부의 마지막에도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어부의 극의(極意)의 시야에 하얀 절벽으로 이루어진 「이어도」가 바로 저쪽 바다 위에 떠 있지 않은가.

「이어도대! 이어도대! 이어……」

라고 말한 뒤 그의 의식은 전혀 그의 몸속에서 회복되지 못했다. 그러나 늙은 어부는 의식을 잃어버린 채 뜻밖의 어떤 주조류(主潮流)를 만나서 그 조류에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게 그는 제주 산남(山南) 동단(東端) 표선(表善)의 바다 기슭에 물에 닿았다.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시체가 또 떠내려왔는가 하고 살펴보았을 때 아직도 숨이 남아 있어서 신방에 빌고 몸을 녹여서 재생시켰다.

그는 얼마 동안 치료하다가 그의 집 애월(涯月)로 돌아갔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늙은 아내와 아들은 아마도 바다의 충격 때문에 병어리가 되었거나 바다 귀신이 쓰여서 영원한 침묵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방고래를 허물면서

「말 좀 합세! 말 좀 합세!」

라고 외쳐도 늙은 고기잡이 폐인은 허황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윽고 어부에게 임종이 다가왔다. 아들의 귀를 잡아 다녀서 그 자신의 유일한 씨앗인 아들의 귀에 대고

「이어도! 이어도를 보았다!」

라고 말하고 숨을 끊었다.

늙은 어부는 작은 메밀밭 복판에 파묻혔다. 아들은 아버지가 보았다는 이어도에 대한 감동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다음 마을을 떠나서 헤매어 다녔다.

그는 결국 그 「이어도」의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그의 아버지가 보았다는 이어도를 그 자신이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광인(狂人)이 되어서 후줄후줄 울어대고 히히히히 웃어대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도 그 자신이 「이어도」를 보았다고 말하고 광인(狂人)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미쳐서 죽어가고 「이어도」는 계속해서 제주도 일주(一周)의 마을에 전파되었다.

옛날 조천이엔 헌 모실에 고동지란 소나이가 살아신디. 호루는 중국으로 국마진상을 가게 되어서. 그 날따라 보름 혼 점 어시 바당은 잔잔허영 고동지는 혼디 나간 배들이영 물을 잔뜩 실영 순풍에 돛을 달양 조천포구 수진개를 떠나게 되었주 마썸. 경허디 배가 수평선에 이르림시난 갑자기 폭풍이 불연개마는, 배가 막 흔들리멍 표루허기 시작헌거라 마썸. 몇 날 며칠사 표류해신지 어렵사리 혼 섬에 도착허게 되어신디. 그제서야 고동지는 다른 사람덜은 문뜩 죽영 혼자만 살아 남고, 도착헌 디가 '이어도'렌 헌 것도 알게 되어서. '이어도'엔 혼디는 큰 태풍 때 괴기 잡으레 간 어부들이 물귀신이 되어부난 여자덜은 문뜩 과부가 되어부 섬 이우다. 이 섬에 고동지가 도착헌 '이어도'의 과부들은 난리가 나수다. 과부들은 고동지안 티 이 집에도 글라 저 집에도 글라 허멍 환영이 대단했던 거라. 고동지는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이 여자 저 여자 돌아다니멍 정을 나눈거라 마썸. 경허던 어느 날 비가 좌락좌락 온 다음 처마 끝에 낙숫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고동지는 갑자기 고향에 이신 각시영 부모 형제가 막 그리워진 거라 마썸. 마침 구름 사이로 달이 떠신디 반달인 데도 경볼글 수가 어신 거라 마 썸. 고 동지는 바닥에 강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 보 멍 각시 이름을 골백번도 더 불러 보았더구먼. 어뎡허거라 대답은 어시 파도만 찰랑거리는 디. 고동지는 파도 가락에 따라 서러운 모심 달래 멍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주 마썸. 강남 가는 반 짝썸에 '이어도'가 이신 난 자길 불러 주란 헌 애절한 내용이라 마 썸. 이어도 사람덜은 이 고동지가 부르는 노랏 들 쟈 곱닥곱닥 모다 들었고, 많은 여인네가 고동지의 처지를 동정허게 되었주 마썸. 그 사람들 부른 노랏 파도에 실영 먼디까지 퍼지고 누구나가 문 딱 알게 되었주 마썸. 얼마 어성 고동지는 뜻밖에도 중국 상선을 만나 그 도움으로 고향에 귀향허게 되는데, 이때 '이어도'의 한 여인이 고동질 따라 제주에 들어오게 되수다. 고향에선 태풍으로 죽은 줄만 알았던 고동지가 살양 돌아오난 잔치가 벌어지곡, 따라온 여인도 혼디 살게 되었주 마썸. 그때 '이어도'에서 고동지를 따라 온 이 여인네를 모실 사람덜은 '여뎡할망(이어도 할머니)'이렌 부르당, 그 할망이 죽은 후젠 모실 당신으로 모시게 되었주 마썸. 지금 조천리에 이신 '장귀동산당'이 바로 그 당이우다.

(진성기의 '제주도 전설' 중에서)

이 이야기에서는 늙은 어부가 고기잡이 나갔다가 격랑을 만나 표류한다는 이야기로 제주 사람들이 겪었던 일상이 드러나 있다. 더군다나 이어도는 살아서 갈 수 없는 곳이고 설사 이

어도에 갔다 왔더라도 정상적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이어도는 한번 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그려냈다.

국내외의 설화를 분석한 김영돈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는 이어도는 고해인 차안과 정토인 피안 사이에 소용돌이가 두루 설정됨을 확인하여 유토피아라고 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어도에 대해 도출해낸 장소성은 제주도 서남쪽 중국으로 가는 항로에 있다는 섬이라는 점이다. 또 이 섬 주변은 파랑이 거세어 파선되고 사람들이 흔히 몰사했다고 전해진다. 고은 역시 해녀들에게 있어서 이어도는 그들이 괴로운 나잡 어업이 끝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한다. 영혼의 닻을 내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어도는 제주 섬 신화중의 ‘서촌 꽃밭’과도 같은 세계로 생각했다.²⁷⁾

27)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2019, p.230

Ⅳ. 설화 속 이어도의 장소성

1. 이어도의 공간 이미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는 북위 32도 7분 동경 125도 10분 우리나라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서산다오에서는 287km, 일본 나가사키현 도리시마에서는 276km 떨어져 있다. 바닷속 4.6m 아래 있는 수중 암초로 남북의 길이는 1,800m이고 동서의 길이는 1,400m 크기로 타원형이다. 이어도는 바닷속에 숨어 있어 평소에는 그 모습을 숨기고 있다가 10m 높이의 파도가 일 때야 수면으로 잠깐 모습을 비춰준다. 그러나 이 수중 암초의 존재는 기록으로만 전해질 뿐, 한동안 그 소재가 확인이 안 됐다.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다. 존재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이어도는 늘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1984년 제주도와 KBS 탐사대가 공동탐사에서 이어도를 찾아낼 때까지 이어도는 상상의 섬, 혹은 환상의 섬이었다.

이어도를 찾으려는 노력은 1984년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다. 1951년 해군조사단이 탐색에 나섰다지만 실패했고 10여 년이 지나서 서울대 학술조사단이 해군 함정의 지원을 받아 다시 나섰으나 역시 실패했다. 1984년도 탐사에서 한광섭이라는 사람이 '북위 32도 10분, 동경 125도에 있는 파랑도'에 대한 이 수중 암초에 대한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교통부 수로국이 탐색에 나섰다 이 역시 실패로 끝났다. 이런 실패가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이 탐사가 성공했다면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청준에게 이어도는 찾을 수 없는 이상향의 상징이었다. 사람들이 설화 속에 나오는 이어도와 상관없이 수중 암초로서 인식하고 나서 1987년 해운항만청이 '이어도'라는 등부표를 설치하며 수중 암초는 이어도가 되었다.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진 이어도가 설화 속의 이어도가 맞는가에 대한 의견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인간의 동경이 믿어낸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전설의 영역이고 과학적 연구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설화 속의 이어도가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진 이어

도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주강현은 2004년 서울신문 기고에서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는 것은 자유겠지만 소크트라 록은 어디까지나 현존하는 것이고 이어도는 비실재적인 상상의 세계일 뿐이다.”는 김영돈 민요학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어도는 전설의 섬으로서, 환상의 섬으로서 도민들의 마음 속에 살아 숨 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어도의 허구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송성대는 반론을 제기하며 토론을 제기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이어도는 이어도가 상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허구론과 이어도는 실재한다는 주장의 실재론이 있다. 허구론 진영의 대표적 인물로는 김영돈, 현용준, 홍순만 등이다. 반면 송성대, 한림화, 김은석, 송상일 등이 이어도 실재론의 학자들이다.

이어도는 아득히 먼 바다에 있는 섬으로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이별의 섬이요, 눈물의 섬이며, 저승과 대동소이한 나라라며 이어도를 유토피아로 여겼다. 먼바다로 고기잡이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남편의 사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랑하는 이가 먼먼 어느 곳에서 살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살아갔다고 생각했다.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도 허구론에 가깝다.

송성대는 이어도의 실재론을 제기하는 학자의 선봉에 서있다. 송성대는 중국과 제주를 잇는 ‘이어도 항로’가 있었고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가 경계표로서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이 최부의 표해록이다. 최부의 표해록에는 표류 7일째 되는 날의 기록에 이어도 부근에서 표류한 이야기가 나온다. 최부는 전남 나주사람으로 성종 18년인 1487년 제주 추쇄 경차관이 되어 제주에 내려왔으나 아버지 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중국에 도착한다. 최부는 그동안 겪고 본 일을 글로 자세히 적었다. 7일째 표류일기에는 바람 형세가 몹시 나쁘고 파도 물결이 크게 넘실거렸고 바다 색깔이 백색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의 현감 채윤혜는 “제주 늙은이들이 말하는데, 하늘이 맑은 날에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 멀리 서남쪽을 바라보면 바다 밖의 외떨어진 구역이 흰 모래를 띤 듯 합니다.”고 하였는데 최부는 이때 흰 모래가 아니고 흰 바다를 보고 한 말이라고 적고 있다. 또한, 최부는 “고려 때 너희 제주에서 원나라에 조공하려고 명월포로부터 순풍을 타고 직항로를 얻으면 7일 밤낮 사이에 하얀 바다를 지나 큰 바다를 건넜다. 이제 우리는 바다에서 표류하여 직항로인지 제멋대로의 항로인지 가히 알 수 없다. 다행히 하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면 의심컨대 중국의 경계가 필시 가깝다.”²⁸⁾고 밝혀 이어도가 한라산 서남쪽 바다에 있으며 이어도 항로가 있다는 말을 내비치고 있다.

28) 김봉옥 · 김지홍,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 연합 제주도지회, 2001

제주인들은 이어도가 강남을 가는 길 중간쯤에 있다고 노래했다. 고동지 설화에도 강남으로 가는 중간쯤 길에 있으니 나를 불러 달라는 애절한 가사로 보아 제주인들은 이어도가 무속의 암초였음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어도는 오랜 옛날 이어도를 드나들며 생활을 영위해온 온 우리 조상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 서남쪽 중국으로 가는 항로에 있다는 점과 이 섬 주변은 파도가 거세어 지나가는 배가 파선되기 일쑤이고 사람들이 흔히 몰사했다고 전해진다.

제주인들은 수평선 너머의 바닷속에 존재하는 이상향을 그리면서도 한라산을 신선들의 세계로 그려냄으로써 한라산 속에 '또 다른 이어도'를 만들어냈다. 제주도민들이 이상향으로 그려오던 이어도는 제주도민들 정서가 묻어 있는 곳이다. 이어도는 바다 저편, 피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도가 여인들과 더불어 실제로 숨 쉬고 있는 현실 세계의 상징인 제주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설과 현실은 다르다. 전설과 현실 사이에는 변형, 왜곡, 과장, 비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설도 '어떤 현실'에 근거한다. 즉 전설의 실마리를 간직한 '어떤 현실'이 존재한다.

이어도는 상상의 섬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어도가 상상의 섬일 뿐일 수는 없다. 상상력도 허공에는 집을 짓지 못한다. 상상력도 발동하려면 모종의 물질적 근거가 '동기'로 주어져야 한다. 이어도를 순전히 상상의 산물로만 치부하는 것은 상상력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예컨대 반인반마는 상상의 동물이다. 그러나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인 존재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말이 실재하는 존재로서 먼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어도를 상상하기 위해서도 상상력이 근거할 어떤 공간체가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부터 찾으려는 것이 바로 그 공간체이다.

홍정표가 해석한 해녀 노래는 아래와 같다.

이어도여 이어도여
이어 이어 이어도여
이어 하는 소리만 들어도 나 눈물 난다.
이어도 말은 말고서 가라
강남 가는 해남길로 보면
이어도가 절반이라더라²⁹⁾

29) 홍정표, 『제주도 민요해설』, 제주문화, 2001.

여기서 흥정표는 제주도의 서남해 중에 있다는 섬이라는 각주를 붙여 놓았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는 제주도에서 149km 떨어진 곳으로 제주도에서 태평양 쪽으로 한참을 가서 있다.

제여도는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1602)에 소개된 섬이다. 이형상의 『남환박물관(南宦博物)』(1702)에는 ‘유여도’로 소개돼 있다. 좌혜경은 ‘이어도’를 여자의 섬으로 읽고, 고문헌에 나온 이 섬을 지목했다. ‘이어도’와 ‘제여도’ 혹은 ‘유여도’는 음운적으로 유사하기는 하나, ‘이어도’를 ‘여도’로 읽는 것이 가능한가는 논란거리다. 더구나 이 섬의 풍토는 이어도와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남사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초란도의 서남쪽에 또 하나의 돌섬이 있어 솟아올라 있는데, 이름은 음녀도(淫女島)라고 한다. 그 까닭을 물으니, “주 사람은 여자의 수가 남자보다 배가 되어, 남편 없는 자가 매우 많아 의식(衣食)이 극히 어렵습니다. 매년 8~9월 사이에 북쪽 땅의 장사치들이 물건을 흥정하며 사고파는 일로 들어오면, 제주의 유녀(遊女)들은 머리 빋고 세수하여 예쁘게 단장하고는 포구에 모여들어 바라봅니다. 만약 청명한 날에 멀리 이 섬을 보면 마치 돛을 편 큰 배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상선으로 잘못 알아 서로 돌아보며 기뻐합니다. 호사자가 이 때문에 섬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한다.³⁰⁾

섬의 이런 외설적인 유래는 이어도의 엄숙한 인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이 설이 회의적인 이유는 지목된 두 섬이 자리한 지도상의 위치 때문이다. 문헌에서 제여도가 위치한 곳은 제주도와 한반도의 사이이다. 그리고 이 제주도와 한반도 사이의 뱃길은 옛 제주 사람들에게 자기 손바닥처럼 휼했다. 그런 투명성은 이어도의 신비주의와 치명적으로 어긋난다.

한편 제주도 전설 중에는 이어도 말고도 신비스러운 섬 이야기가 또 있다. ‘이동하는 섬’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혹 이어도의 기원이 이 설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해양과학기지의 이어도와 전설의 이어도가 같은 섬일 가능성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왜냐하면 ‘이동하는 섬’은 이미 다른 섬, 즉 비양도와 연고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도와 의 비교를 위해 ‘이동하는 섬’에 대해 알아보자.³¹⁾

‘이동하는 섬’은 제주도 한림읍 비양도에 얽힌 전설이다. 이 전설에 의하면, 아주 옛날 비

30) 김상헌, 흥기표역, 『남사록』(제주 : 제주문화원, 2009), 183쪽. 좌혜경이 ‘제여도’라고 읽은 섬 이름이 이 역서에는 ‘음녀도(淫女島)’로 나와 있다.

31) ‘이동하는 섬’에 대해서는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잡문당, 2005, pp.85~86. 과 현승환, 『섬 이동설화고』, 『제주도연구』 제7집, 1990. 참조.

양도는 중국 쪽에서 떠내려와서 떠돌던 섬이었다. 바다에서 해초를 따던 해녀가 섬이 떠내려 오는 것을 발견한다. 이상하게 여긴 해녀는 섬에 올라가 쉬다가 오줌이 마려워 그 자리에서 오줌을 본다. 그러자, 떠돌던 섬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이본(異本)에서는, 여자가 섬이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야, 저기 섬이 떠온다.’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질하자 섬이 멈췄다고 돼 있다).

신비스러운 이야기다. 그러나 이어도와 ‘이동하는 섬’은 그 신비성이 오는 곳(현상)이 전혀 다르다.

‘자연의 신비’라는 말이 자주 쓰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형용모순이다. 신비스러운 것은 초자연적인 것에 쓰이는 말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것은 신비스럽지가 않다. 그 역도 마찬가지로, 신비스러운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러면 ‘이동하는 섬’은 어쩌서 신비로운가. 다시 말해 어떤 점이 초자연적인가.

섬은 있는 그곳에 언제나 있어야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동한다면 그것은 자연적 경험을 벗어나는 것이다. 즉 신비스러운 것이다. 한편 이어도는 있는 그 자리에 고정돼 있다. 한 위치에서 머물되,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다. 거기서 신비로움이 나온다. 이렇게 이어도와 ‘이동하는 섬’의 신비는 각기 그 양태가 다르다. ‘이동하는 섬’은 위치가 바뀌나 그 실체는 지속적이다. 그 반면에 이어도는 위치는 고정돼 있으나 실체는 단속적으로 존재한다. 두 섬은 다른 현상으로 봐야 한다.

앞에서 우리는 ‘소코트라 록’의 해역을 가장 그럴듯한 이어도 후보지로 지목했다. 고대 제주 해민의 해로가 그 점을 뒷받침해 준다. 『바다에서 본 탐라의 역사』를 쓴 고용희에 의하면, 제주 해민 - 그는 ‘두모악 해민’으로 부른다 - 들이 바다로 나가는 길은 크게 4개의 항로가 있었다. 이하, 고용희의 서술을 필요한 정보만 발췌해 옮긴다.³²⁾

그 1은 제주도와 한반도의 남서해안을 잇는 뱃길이다. 그중 가장 가까운 코스는 해남반도와 완도 사이를 지나 지금의 강진에 이르는 뱃길이었고, 또 하나 영내 항로는 진도를 서쪽으로 돌아 영산강 하구 나주의 영산포에 이르는 뱃길과, 동쪽으로 고흥, 여주에 이르는 뱃길이 있었다.

그 2는 북로(北路)다. 제주도와 중국 요서(遼西)를 잇는 항로로, 앞에서도 그 이름이 나왔던 해랑도가 그 거점이었다. 북로의 출항지는 주로 제주도 서부의 두모리, 모슬포, 당개(안덕면 대평리)였다.

32) 고용희, 앞의 책, pp.59~61. 제주 해민의 고대 항로에 대해서는 그 밖에 강문규, 「제주인들은 왜 큰바다로 나갔는가」, 『제주문화의 수수께끼』, pp.129~142. 송성대, 「지리적 팩트에 기반한 제주해민들의 이어도 픽션」, pp.45~46. 한림화,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조선시대 제주도민의 해양활동과 항로 인지도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2009 (미공개 자료) 참조.

그 3은 남로다. 동중국해를 남서로 질러 중국 주산(舟山)으로 향하는 뱃길이다. 출항지는 주로 서귀포시 표선 당개, 성산 당개였다.

그 4는 제주도 북부의 포구를 출항하여 조선반도 남해안을 거쳐 왜(倭)로 가는 뱃길이다. 제주도에서 해류를 타면 곧바로 북구주(北九州)의 근해까지 곧바로 이를 수 있어, 이 뱃길을 통해 북구주 여러 나라와 교역을 했었다.

그런데 이상의 모든 뱃길에서 동해 - 현용준이 이어도의 후보지로 가리켰던 - 는 빠져 있다. 이어도의 신비가 조성되기에 동해 항로는 너무 뜸하고, 제주와 한반도 사이 제주해협 항로는 너무 뻥했다.

결국, 제주도와 중국 주산군도 뱃길 상에 놓인 '소코트라 록' 해역만이 앞에서 우리가 꿈꿨던 필요조건들, 즉 왕래가 너무 빈번하지도, 너무 드물지도 않고, 제주도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지고, 충분히 위험스러운 바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다. 이 해역에 관한 관심을 제주 사람들은 민요로 지어 불렀다.

강남을 가는 해남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엔 해라³³⁾

강남 바당 비지여 오건
제주 바당 빼놓지 말라³⁴⁾

강남 가도 삼 년에 온다..
서울 가도 삼 년에 온다..

황천길은 조반날 질이라도
한번 가난 올 줄 몰라라 한다.³⁵⁾

여기서 '강남 바당'은 제주도와 중국의 사이, 구체적으로 제주도와 주산반도 사이 뱃길을 가리킨다. 그곳은 전설 속 이어도와 지금의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있는 뱃길이기도 하다.³⁶⁾

그러나 흑자가 있어 물을 수 있다. 제주에서 '소코트라 록'까지 그 먼 뱃길을 활발히 오가기 위해서는 선박 건조와 항해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 하는데, 과연 고대 제주의 수준에

33) 홍정표, 앞의 책, p.107. 풀이는 주 42).

34) "江南 바다에 비가 올 듯하건/ 제주바당 배 띄우지 말라." 같은 책, p.91.

35) "江南 가도 삼 년이면 온다/ 서울 가도 삼 년이면 온다/ 黃泉 길은 하루아침 길이면서도/ 한 번 가서는 올 줄 모르더라." 같은 책, p.306.

36) 홍정표의 주석에 의하면 이어도는 "제주도의 서남해 중에 있다는 섬"이다. 같은 책, p.107.

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즉각적이고 확실하다. 물론이다.

제주도는 기원전(고용희의 용어로는 ‘두무악 시대’)부터 바다를 건너 장사를 하는 해민의 나라였으므로, 고용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드넓은 해역을 ‘이웃집 드나들 듯’ 왕래하고 있었다. 그들은 계절풍을 이용하고, 대만 부근에서 복상하는 쿠로시오 조류를 이용할 줄도 알았다.³⁷⁾

송성대는 전한(前漢, B.C. 202~A.D. 8)의 화폐인 오수전(五銖錢), 왕망(王莽, B.C. 45~A.D. 8)의 화폐 화천(貨泉), 당나라 현종 원년(A.D. 713)의 개원통보(開元通寶), 송나라 때(A.D. 1111)의 정화통보(正和通寶), 소희통보(紹熙通寶) 등이 제주에서 그것도 대량으로 발굴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제주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먼바다를 건너다니며 교역을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³⁸⁾

고문헌들의 증언도 여럿 있다. 『삼국지』 「위서」는 “주호(州胡=탐라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장사를 한다.” 했고, 오나라 손권이 수전(水戰)에 쓸 요량으로 동현인(東縣人=탐라인)을 잡으려 했으나 그들의 배가 워낙 빨라 도저히 따라잡지 못했다는 기록도 있다. 고대 제주 해민의 선박과 항해술은 그만큼 뛰어났다.³⁹⁾

8~9세기 탐라는 당(唐)의 주요무역상대국의 하나였고, 강력한 해상활동으로 축적한 탐라의 국력은 신라가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⁴⁰⁾

이때의 제주 해민의 선박은 짐작컨대 소위 덕판배였을 것이다. 이 덕판배에 대해서는 송성대의 힘차고 인상적인 서술이 있다.⁴¹⁾ 자세한 내용과 참고문헌은 생략하고 요점만 소개하면 이렇다.

덕판배는 조랑말을 30마리까지 실을 수가 있었고, 15세기 말 최부의 표해록에 의하면 43명이 탔을 만큼 크고 튼튼했다. 그 덕판배를 송성대는 ‘미니 항공모함’이라고 불렀는데, 그 운송 능력을 감안하면 그런 명명이 꽤터무니가 있어 보인다.

덕판배는 단순히 화물선이 아니었다. 조선배보다 날쌔고 일본배보다 견고해 송성대의 표

37) 고용희, 앞의 책, pp.234~239.

38) 송성대, 「지리적 팩트에 기반한 제주해민들의 이어도 픽션」, p.55.

39) 고용희, 앞의 책, pp.119~120.

40) 『삼국유사』에는 황룡사의 9층 탑이 자장 법사가 문수보살의 계시를 받아 세운 것으로 돼 있다. 탑을 세우면 구한(九韓)이 굴복하여 조공을 바칠 거라는 계시였는데, 구한을 뜻하는 9층은 1층 일본, 2층 중화, 3층 오월, 4층 탁라, 5층 응유, 6층 말갈, 7층 단국(거란), 8층 여적(여진), 9층 예맥을 가리킨다고 돼 있다. 그 중의 탁라가 곧 탐라로 그 순위가 4번이다. 탐라국에 대한 신라의 경계심은 탐라국의 국력 - 주로 해외 교역에 의해 쌓았을 - 이 상당히 컸음을 말해 준다. 고용희, 같은 책, pp.201~202.

41)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각, 2001, pp.315~321.

현을 빌리자면, “싸움배라 불렀듯이 상륙용이요, 돌격용이요, 충돌용의 어선이요, 상선이요, 전선(戰船)으로 - 내해용(內海用)의 거북선과도 달리 - 대양을 누빌 수 있는 다목적 배였다.” 몽골이 일본 원정을 위해 제주배 100척을 짓도록 요청했던 것을 보면, 이 배의 이런 능력을 몽골도 알고 있었다. “남국에서 일본을 거쳐 온 탐라 사람 세 명이 일본 태제부 등지에 배에서 내릴 곳을 도면으로 그려 왔다”라고 한 『원고려기사』 「탐라」의 기록에서도, 당시 제주의 해민들이 제주도, 남국 즉 안남(베트남) 등 포함한 동남아시아, 일본 사이의 뱃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그 당시 몽골은 세계제국이었다. 제주의 조선술은 그때 이미 세계적 수준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⁴³⁾

다시 말해, 노래 - “강남을 가는 해남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엔 해라(강남 가는 해남길을 보면/ 이어도가 절반이라더라)” - 가 가리키는 그 바다는 비록 위험한 항로이긴 했으나, 제주 해민이 자주 건너 다녔던, 그래서 낯설지 않은 바다였던 것이다. 이상의 모든 검토가 손가락으로 가리켜 이어도의 가장 그럴듯한 후보지로 지목하는 바다, 그곳에 지금은 이어도해양 과학기지가 우뚝 서 있다.

아무도 이어도에 간 일이 없다.
 그러나 누구인가 갔다 한다.
 가서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한다.
 이어도 어디 있나
 물결 靑銅 골짜기
 동남방으로 동남방으로
 눈썹 불태우는 수평선 뿐이다.
 이어도 어디 있나.
 濟州 漁夫 핏속에 사무친 섬
 아무리 노 저어도
 돛 올려 내달려도
 濟州의 꿈 어디 있나.
 이어도 어디 있나

42) 현경병 외,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 셋별D&P, 2010, p.68.

43) 인하대학교 선박공학과 연구팀이 4노트 항속에서 덕판배의 유체역학적 특성과 저항추진 특성 등을 실험했다. 그 결과 내파성(耐波性) - 파도에 기울어졌다가 복원되는 안정성 정도 - 가 지금의 3만톤급 상선보다 높아, 파도를 갈라 항해하는 능력이 그 어떤 배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같은 책, p.316.

- 고은, 「이어도」 앞부분

시인의 통찰은 놀랍다. “동남방으로 동남방으로.” 여기서 이어도는 동남방 수평선 넘어 -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서남방’이 맞겠으나 어쨌든지 간에 - 현실 공간에 위치한다. 그와 동시에 이어도는 “濟州 漁夫 핏속에 사무친 섬”이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섬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이어도의 실상과 거의 일치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어도는 경험적 사실과 상상적 사실, 이렇게 양면으로 이루어진다. 즉,

- ① 이어도는 보였다가 사라진다. 이 이야기는 십중팔구 제주 해민들의 경험에 기인할 것이다.
- ② 바다에서 안 돌아오는 사람은 이어도에 갔을 것이다. 이 부분은 상상적인 사실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근본적인 것은 ①이다. ①이 ②에 앞선다. 즉, ①을 경험하지 않으면 ②를 상상할 수 없다. 경험이 없다면 상상이 기댈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경험적 사실에 착안하면, 이어도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이어도가 실재할 가능성

우리 역시 전설과 현실 사이에 변형·왜곡·과장·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전설도 ‘어떤 현실’에 근거한다. 전설의 실마리가 됐던 ‘어떤 현실’ 즉 제주 사람들의 민간심의를 짚게 물들임으로써 그들이 이어도를 상상토록 했던 모종의 ‘동기’는 실재한다. 이어도는 상상의 섬이지만, 상상력도 허공에는 집을 못 짓는다. 상상력도 발동하려면 모종의 물질적 근거가 ‘동기’로 주어져야 한다. 이어도 상상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근거할 어떤 공간체가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어도는 분명 ‘있다’.

- 이어도가 수중 암초로 존재할 가능성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전설의 섬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전설을 낳게 한 ‘동기’다. 그런데 동기와 그것의 결과는 규모가 같지 않다. 날개 달린 사자(獅子)를 상상하기 위한 동기는 박쥐로도 충분하다. 상상 속의 날개 달린 사자에 비해 현실의 박쥐가 볼품없듯이, 이어도를 꿈꾸게 한 그 무엇도 보잘 것 없는 것일 수 있다. 사자는 크고, 박쥐는 작다. 이어도의 실제 역시 유인도의 면적이 필요치 않다. 상상 속에 이어도를 낳았던 공간체는 실재하되 아마도 최소한으로 실재하는 무엇일 것이다. 상상의 섬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중 바위섬 하나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의 소재는 제주 사람들의 경험 내에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이어도가 '여'의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

전설은 이어도의 거주 환경과 생활상에 대해 전하는 내용이 극히 빈약하다. 이어도의 수용은 한 쌍으로 이뤄진 역설이다. 즉 첫째, 이어도에 대한 정보는 극히 희박하다. 둘째, 그런 이어도가 제주 사람의 심정에는 강력한 인상으로 각인돼 있다. 희박함과 강렬함, 드러남과 숨음의 이 역설적 공존이 이어도의 가장 특징적인 점이다. 그 사실에서 다음 질문과 답이 나온다. 이어도는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 그것은 썰물 때는 모습을 드러내고 밀물 때는 숨는 '여'의 현상과 상응한다. 문제의 '소코트라 록'은 해저에 숨었던 암초가 큰 파도가 칠 때는 해면을 뚫고 섬의 모습으로 솟아나는 '여'다. 이 '여'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여기가 바로 그 이어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곳이 모든 조건을 제대로 갖춘 가장 유력한 후보지임에 틀림이 없다.

- 이어도의 위치 확인

이어도의 소재지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갖춘 바다라야 한다. 즉 첫째 왕래가 너무 빈번하지도 않고, 둘째 왕래가 너무 드물지도 않고, 셋째 제주도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지고, 넷째 조난 위험이 충분히 항로라야 한다. 이상 네 가지는 이어도의 '신비화'가 가능한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이상의 조건에 비추어 이어도의 가장 그럴듯한 후보지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진 '소코트라 록'의 해역이다.

이로써 이어도 전설의 이어도와 이어도해양과학기지의 이어도가 같은 이어도라는 사실이 '깨끗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증명이 두 이어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직 증명된 적이 없는 - 어떤 점에서는 시도된 적조차 없는 - 상황에서, 시론으로나마 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를 선도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면 본 연구는 몹을 다한 것으로 셈할 것이다.

문제의 수중 암초는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좌초하는 사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해도에 'Socotra Rock'으로 표시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전설과 현실은 다르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전설과 현실 사이에는 변형, 왜곡, 과장, 비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설도 '어떤 현실'에 근거한다. 즉 전설의 실마리를 간직한 '어떤 현실'이 존재한다. 예컨대 '에덴'에 대해서도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그 하나는 에덴은 인간의 조건을 상징 언어로 그려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도 허구론자들이다. 이어도가 실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설 이어도는 이어도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어도설화 속에 이어도가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스토리텔링방안 연구이다. 즉 이어도에 대한 장소성 연구이다. 이어도 설화속에 나오는 이어도와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수중 암초로 향하는 곳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진 이어도는 과연 같은 장소일까?


어떤 이는 전설은 전설이고 현실은 현실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어도는 상상의 섬이고 전설의 섬일 뿐이고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는 수중 암초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한편 전설 속의 이어도와 현재의 이어도가 같은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실증적 주장 대신 막연한 주장이 있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화 속의 이어도가 현실의 이어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어도 설화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장소성을 밝히는 연구이다. 장소성 파악을 통해 흩어져 있는 것들이 특정한 이미지로 모여 공간의 정체성을 만들게 된다. 장소성을 파악하는 것은 공간의 맥락을 하나로 집중시켜 공간에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는 일이다.

(그림 IV-1) 장소성 형성과정

▶ **장소에 대한 경험이 정체성으로 이어져 장소성을 형성**

- 장소(Place)는 물리적 공간(Space)에 인간의 경험과 태도, 그리고 가치 등 추상적 개념이 부여
- 장소성은 장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장소에 대한 감성 등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본 특성
- 장소성이 선명한 공간을 보유하면 도시브랜드 상승 효과를 가져옴 (예: 시청광장, 서울 도성)
- 장소성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은 '장소성'을 강화하는 좋은 도구이자 방법
→ 단, 스토리텔링은 의존성을 지니고 있음



제주도의 명칭은 동이, 탐라, 모라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으나 선사시대 이후 고대국가가 출현하면서부터 고려 초기까지는 독립국으로 존재했다. 독립국 시대에는 일본, 동남아, 중국 등과 교역을 하고 사신을 보냈다. 고려 중기 이후에 고려의 지방 행정조직으로 되었고 조선 시대에는 수탈의 지역과 유배의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제주는 고대로부터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을 왕래하던 바다였다. 기원후 3세기경의 기록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三國志 魏志東夷傳)에 의하면 선비족처럼 머리를 깎은 사람들이 사는데, 소나 돼지 기르기를 좋아했다고 하였다. 한반도에 사국시대가

성립될 당시에는 탐라국으로 백제, 고구려, 신라, 중국 등과 교역을 한 독립국이었고 나중에는 백제로 복속되었다가 7세기를 지나면서 신라에 복속되었다. 고려 때는 자치국으로 인정하였으나, 11세기 초에는 지방 행정조직으로 통합되면서 고려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되었다. 조선 시대 제주에는 제주목(濟州牧)이 설치되어 지방행정기관으로 정착하였으나 공물과 수탈이 심해지면서 이탈이 가속화되었으며 유배지로 활용이 되었다. ‘이어도’ 또는 ‘이여도’라는 지명은 제주도의 민요, 전설, 신화 등 구비문학으로 전해지고 있어 언제, 누구에 의해 그렇게 지어졌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어도’라는 말은 제주 사람들이 쓰는 ‘여’ 혹은 ‘여섬’에서 파생된 말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닷속의 조그만 바위를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 사람들은 지금도 바닷가의 작은 바위덩어리를 ‘여’라고 부른다. 맷돌노래나 방에 노래에 나오는 “강남을 가난 해남을 보라(강남을 가면 해남을 보라)/이어도가 반이 잉 해라(이어도가 반(半)이라고 하더라)”라는 가사에서 지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어도’는 누가 보아도 실재하는 섬의 고유지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옛날 고려 시대 충렬왕(忠烈王) 3년 원(元)의 지배를 받아 목관이 와서 통치하기 시작한 때부터 원말(元末)까지 제주에는 매년 공물을 중국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공선(貢船)은 북쪽의 산둥(山東)에 가기 위해 섬의 서북쪽 대정의 모슬포에서 준비하여 출발했다.

원 간섭기 시절 제주에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다. 몽골은 탐라를 국립목장으로 만들었다. 몽골의 탐라 국립목장 설치에 제주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영향도 오랫동안 이어졌다. 제주에는 몽골의 직할령이 되기 이전부터 나라에서 필요한 말을 채울 만큼 말 사육이 번성하던 지역이었다. 제주에는 천연 방목지였다. 몽골은 충렬왕 2년 (1276년) 제주로 말을 들여왔다. 제주에 몽골식 목마장이 설치된 것이다. 몽골의 세계정복사업 추진에 말은 전투에 쓰일 말로 필요했다. 제주에서 말이 잘 자라자 몽골은 제주말 사육에 더 열을 올렸다. 충렬왕 26년 무렵에는 우마 등이 많이 증가하고 사육시설과 운영 인원의 규모도 확대되었다. 소와 말은 몽골족 ‘하치’에 의해 사육, 방목되었다. 이들은 몽골족 가운데서도 목축 기술이 뛰어나 특별히 선발되어 제주에 왔던 사람들이고 제주 사람들은 이를 목호라고 불렀다.

제주의 전 지역은 방목지로 부족함이 없었다. 다만 겨울철 3개월 동안 생목초가 부족하여 겨울철에는 미리 마련해 말린 목초와 짚을 먹였다. 몽골사람들이 목초지를 찾아 유랑하며 키웠다면 농경을 병행했던 제주 사람들은 한자리에서 말을 키우되 겨울철에는 그 나름의 방식을 고안해낸 것이다. 몽골이 전쟁터에 쓰일 말을 충당하기 위해 말 사육에 나섰으나 제주 사람들은 농경과 운반 등의 실생활에 말을 이용했다.

탐라에 목마장이 설치된 이후에 제주에서의 우마 사육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고 목축 관련 방물의 산출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 몽골은 제주에서 나는 쇠고기, 모직물, 버터류 등

을 거둬들였고 고려 왕실은 제주에서 나오는 방물을 탐냈다.

제주의 마을형상은 주로 해안지대를 끼고 이루어졌다. 제주의 농업생산력은 매우 낮아 반농·반어 형태로 생업활동을 해야 했다. 제주 지역의 마을이 해안지대에 먼저 생겨난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제주 중산간 지대는 마을이 대체로 14세기 초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시기는 탐라목장이 번성하면서 중산간 지대의 마을 형성은 제주 사람들이 농경의 발전과 확대 등에 따라 해안지대에서 점점 떨어져 거주하는 그동안의 추세와도 맞물려 목마장 운영으로 인한 우마 사육의 확대 등 목축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인구 유입에 힘입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우마 사육방식의 경험은 조선 시대 이후에도 이어 내려와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목축업의 발달과 함께, 산촌 형성도 더욱 가속화되어 갔다.

몽골족이 제주에 오기 시작한 것은 원이 제주를 직할령으로 삼은 1273년(원종 14년)부터이다. 몽골이 군사 700명을 파견 주둔시키고 몽골족 관인도 보냈다. 이후 원이 보낸 군사는 점점 늘어나 제주의 1차 고려 환속이 이루어지는 1294년(충렬왕 20년)이전 무렵까지 최소한 1,400여 명이 주둔했었다. 죄수 170여 명도 1277년(충렬왕 3년) 이전 제주로 왔다. 이후에는 왕족, 관료들이 제주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원이 제주에 설치한 목장에도 목호가 배속되어 말 등의 방목을 주관했다. 원은 1367년(공민왕 16년) 무렵 황제 순제가 피난할 궁전을 짓기 위해 상당수의 몽골족을 제주에 보냈다. 명나라도 원을 밀어내고 원의 남은 세력을 평정하던 시기에 원의 왕실 가족 상당수를 제주로 보냈다. 제주의 몽골족은 자신들이 모여 사는 '부락(部落)'을 공민왕(1352~1374년)에 이르러 이미 이루었을 정도로 상당수가 장기간 거주하거나 정착했다. 오랫동안 목축을 업으로 삼아 유랑하며 살았던 몽골인에게 제주는 '낙토(樂土)'로 여겨졌다. 제주 지역 성씨 중에는 원을 본관으로 삼은 조, 이, 석, 초, 강, 정, 장, 송, 주 진 등과 아울러 명이 유배 보냈던 원 왕족으로 운남을 본관으로 삼은 양, 안, 강, 대 등이 있었다. 이들 주민은 원의 직할령이 된 1273년(원종 14년) 이래 제주에 거주했었던 몽골족, 혹은 그 후손이었을 것이다.⁴⁴⁾

고대 시대에 제주도와 중국 사이의 이어도 항로를 오갔던 제주도의 뱃사람들은 육지와 가까운 바닷가에만 있는 '여'가 먼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고 신비하게 여겨 이를 바닷가에서만 볼 수 있는 '여'와 구별하여 '여섬', 즉 '이어도' 또는 '이여도'라 불렀을 수 있다.

제주도의 민요, 전설, 신화에 등장하는 이어도가 세상에 밝혀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

44) 제주발전연구원, 『탐라사의 재해석』

다.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이어도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었다. 영국해군은 이듬해인 1901년 측량선을 보내 암초의 위치와 수심을 확인하고 ‘소코트라 암초’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처럼 이어도는 수많은 배가 지나가는 곳이었다.

동국대학교 윤명철 교수는 제주도와 중국을 잇는 동중국해 상의 항로를 비스듬히 가로지른다는 뜻에서 ‘동중국해사단 항로’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단순한 술어적 이름으로 의미부여가 되어 있지 않다. 송성대는 이 항로를 이어도를 지나간다는 의미를 부여하여 ‘이어도 항로’라고 재명명하였다.

“강남 가건 해남을 보라/이어도가 반이다.

(강남(江南) 가면 해남(海南)을 보라/이어도(礪島)가 반(半)이라고 한다.)”

이어도 항로는 제주도의 민요에도 등장한다. 이는 이어도가 중국을 오가는 바다 길목의 중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강남은 양쯔강 하류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남부지방을 가리킨다. 이어도 항로는 예나 지금이나 동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바다에서 가장 험한 바닷길이다.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일 뿐 아니라 고대 이렇게 수많은 제주해민들을 수장시켰던 돌풍(영등바람)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제주 속담에 “3대 보재기[浦作人]에 꼭 수장허는 액운신다(3대가 해상활동을 하면 그 중에 꼭 수장(水葬)되는 가족이 있게 된다).”가 있다. 제주 사람들은 바다를 ‘바당’이라고 부른다. 육지의 땅이 척박했던 제주에서 제주는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바다에 있는 밭이었다. 이런 제주 사람들에게 해난사고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주인들은 바다를 안방처럼 드나들었지만, 해난사고에 의해 가족 중에 누군가와 죽음으로 헤어지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망과 실종이 있게 마련이지만 제주도의 그것은 유별함이 있었다. 실종된 가족을 찾는 상실자(seeking-losser)로서의 기다림은 실종된 실종자(missing-hiker)에 대한 부질없는 희망이요, 기다림이기도 하다. ‘missing hiker’는 ‘흔적 없이 거니는자’라는 뜻이다. 실종자(失蹤者)는 그 자의(字意)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사를 불문하고 먼저 존재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다. ‘蹤’자는 ‘발자취’를 의미한다. 해난사고로 인한 실종자는 그 주검이 바다 밑 바위틈에 하얀 해골이 되었을지라도 죽은 사람이 아니고, 저어느 바다 무인도에서 원시인처럼 살고 있을지라도 산 사람이 아니다. 죽음의 골짜기서 짐짓 하얀 해골이 되었을지라도 죽은 사람이 아니고, 심산 벽촌에서 두더지처럼 땅을 일구고 살지라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그 육신(주검)을 확인하기까지 세상은 이들을 여전히 ‘사망자’가 아닌 ‘실종자’라 부를 뿐이다.

그 절망은 당연하게 더할 수 없는 위로 때문에 지워질 것이 틀림없다. 마치 집 없는 사람이 자기 집을 마련한 것과 같은 안심과 편안함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어도에 대해서 국민이 장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맥락 분석을 통해 장소성을 특정한 테마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텍스트 공간적 스토리텔링

2-1. 장소 스토리텔링

인간이 살아가면서 공간에 가치를 부여했을 때 그 공간은 특별한 장소가 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는 만큼 이야기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 단지 표면적 이야기만을 전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자기 생각과 판단을 더해 이야기한다. 조직사회의 의미와 조직사회의 생성과정에 대한 총체적 이야기가 생성되어 전달된다. 여기에 배경이 되는 장소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모든 이야기의 기본적 구성요소는 인물, 배경, 사건이 있다. 배경은 인물이 존재하며 사건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즉, 인간이 있던 공간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이야기가 탄생한다.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은 공간을 소재로 다른 인간과 소통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간과 인간 사이에 이야기가 자리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소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간을 인간의 의미로 전환하고 장소화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은 공간을 인간의 인식 속에 가두어 기억의 재생장소로 기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도는 공간 스토리텔링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며 제주인들의 공감을 끌어내어 제주인의 정신을 자극함과 동시에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이어도의 공간 스토리텔링은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장소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어도에 대한 공간 스토리텔링이 의의가 있는 것은 서사 형태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공간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물리적으로 실존하는 절대적 공간과 인간들 간의 생성을 통해 나타나는 상대적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공간이 독자들에게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특정 맥락 아래에서 작가가 의도하고, 정렬하고, 선택한 기호들의 집합적 실체인 텍스트로 간주한다. 이를 유통하고 새롭게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살아 있는 유기체와도 같다. 이처

럼 공간은 문화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의미가 타협이 이뤄진 결과로 나타난다.⁴⁵⁾ 장소는 반복이고 복잡한 연관 관계에서 기억과 경험이 쌓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장소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에 접근한 연구는 관광학 분야에서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그러나 장소의 특수성과 장소의 감성적 역할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지 못하였다.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에서 장소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제주인들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 이어도에 대한 인식과 이어도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면서 이어도 정신을 구축한 감성적 매력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어도에 대한 공간에 감성적인 애착을 갖게 된다면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어도라는 공간에 대한 장소성 연구를 통해 제주인들의 정신문화가 쌓여온 장소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스토리텔링을 도입했다고 하면 이전과 다르게 장소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다른 곳과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장소는 물리적 공간에 인간의 경험과 태도 그리고 가치 등 추상적 개념이 부여된다. 장소성은 장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장소성에 대한 감성 등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특성을 말한다. 장소성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 '이야기'이다.

전설은 증거물이 있지만, 민담의 경우 증거물이 없는 경우가 많다. 비록 작은 화소라 하더라도 장소와 연관해야 한다. 이야기가 지닌 의미가 중요하고 서사 풍부한 이야기라도 장소와 연관이 있으면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성이 잘 드러나면서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 독특하고 참신하면서 새로운 가치가 충분한 이야기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혹은 구전되는 것을 말한다. 스토리텔링은 문학 분야에서 학문적 개념이 가장 먼저 정립되고 문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문학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하여 문학의 배경이 되는 공간에 주목하고 있다. 인간은 공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이해하고, 사물을 이해하며, 세상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제주인이 경험했던 이어도라는 장소에 대한 분석은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원래 있었던 이야기를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각색해나가는 과정이다. 각색의 과정에서 스토리는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다. 청중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몰입적인 방법이 된다. 소설에서는 스토리를 말한다. 공연 매체에서는 이야기를 보여준다. 말하고 들려주는 과정에서 청중의 의견이 반영된다. 스토리텔링은 복제하지 않는 반복의 형식을 띠고 있기에 배경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스토리의 의미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에 상응하여 변화될 수 있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들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해주는 기술이다. 다만 다르게 말해야 한다. 스토리텔링은 말하기, 보여주기,

45) 김영순, 「공간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재구성고 공간스토리텔링」, 인문콘텐츠, 19, 2010

상호작용하기를 통해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를 현대 사람들이 들어도 그럴싸한 이야기로 꾸며내는 작업이다. 앞선 이어도 설화의 텍스트를 수용하고 새롭게 치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채집된 7편의 이어도 설화에서 이어도의 장소성에 대해 특화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였다. 이어도는 우리 국민이 알아들 만한 가치가 있고 이야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더 큰 욕심을 내자면 지금의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곳이 우리 제주인들의 정신에 스며들어 있던 이어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장소성을 강화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배경, 캐릭터, 사건, 상황은 얼마든지 재미를 위해 변형이 가능하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캐릭터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력을 보여준다면 이야기에 재미가 더해져 한층 더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의 공간이다. 제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어도에 대한 정신 그것만은 지켜내야 한다. 제주인의 기억 속에서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이어도라는 장소에 대한 애착을 형성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어떤 사건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도구나 프로그램을 통해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에게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관심 있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⁴⁶⁾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에서 장소에 의미를 두는 이유가 있다. 이어도라는 특정한 공간이 제주인의 해양활동을 통해 인지되어 의미가 있는 공간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공간은 거리, 방향, 위치 등의 가치를 지니는 지구표면의 공간이지만, 장소는 인간의 눈과 마음, 태도와 가치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과 공간이기 때문이다. 제주인들은 어업 활동을 통해 이어도에 대해 더 많은 가치를 부여했다. 이렇게 해서 이어도라는 장소는 제주인의 삶의 정서를 품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이어도라는 공간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특별한 매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공간의 특징을 잘 활용하면 제주 지역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도 가능하다.

최인호·임은미는 장소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장소 스토리텔링으로 정의했다. 장소 마케팅에 스토리텔링을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특성 형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했다. 장소를 둘러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장소 마케팅에 주목했다. 장소의 가치를 발견하고 체험하며 장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이 장소 스토리텔링이다. 이어도라는 공간에 이야기를 부여하여 장소성이 형성된다면 체험적 가치가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어도라는 장소에 애착이 형성되어 장소의 의미가 제공될 것이다.

46) 임화순, 「문학 공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연구」

2-2. 공간 스토리 발굴

이어도 공간스토리 발굴은 설화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나타난 장소에 각종 문헌을 통해 나타난 한계를 두었다. 공간 이야기 발굴은 이어도라는 공간에 스토리텔링의 요소가 있는가를 발굴하는 작업이므로 이어도 설화뿐 아니라 각종 문헌에 나타난 이어도의 공간도 이야기 발굴의 목적으로 파악하여 스토리를 부여하였다.

이어도 설화의 7편을 종합하여 간추린 이야기로 플롯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1. 고려 원간섭기 충렬왕 때 제주에서는 중국으로 말을 진상해야 했다.
- #2. 조천에 사는 고동지라는 사람이 국마진상을 떠났고 국마진상을 떠난 고동지는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 #3. 사람들은 고동지가 이어도에 가서 복락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 #4. 고동지 부인은 시아버지께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남편을 찾아 떠난다.
- #5. 이어도로 가는 길은 험하고도 험했다. 여러 난관을 헤치고 이어도에 간 부인은 고동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이미 고동지에게는 이어도에서 만난 여인이 있었다.
- #6. 부인은 배신감에 혼자서 제주로 돌아오지만,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수중고혼이 된다.
- #7. 고동지는 고향으로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함께 돌아가지 못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한다.
- #8. 괴로워하는 고동지를 위해 이어도의 여인은 고동지를 따라 제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 바닷속 세월과 육지의 세월이 달라 고향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9. 고동지를 따라 이어도에서 온 여인은 여똥할망이라 불리며 제주 사람들에게 의로운 일을 하며 살아간다.
- #10. 이후 여똥할망은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신으로 추앙받는다.

그런 점에서 7편의 이야기 중 고동지 설화는 위기와 시련,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점을 고루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이야기는 장소성을 강화한다. 장소에 대한 경험이 정체성으로 이어져 장소성을 형성한다. 장소는 물리적 공간에 인간의 경험과 태도, 그리고, 가치 등 추상적 개념이 부여된다. 장소성은 장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장소에 대한 감성 등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바라본 특성이 다. 장소성이 선명한 공간을 보유하면 지역문화 콘텐츠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장소성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 이야기이고, 스토리텔링은 그 장소를 잘 표현하는 좋은 도구이자 방법이다.

스토리텔링을 도입했다고 하면 이전과 다르게 공간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다른 곳과의 차별화에 성공해야 한다. 전설은 증거물이 있지만, 민담의 경우 증거물이 없다. 이어도에 대한 비록 작은 화소라 하더라도 장소와 연관이 있어야 청중들의 주의력 유지가 가능하다.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하는 일이다. 이야기의 청자가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에 따라 이야기는 구성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랴’는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사고를 나타낸다. “개구리 울창이 적 모른다.”는 초심을 잃지 말라는 충고가 담겨 있다. 이처럼 속담은 한번 들으면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뇌리에 딱 달라붙는 스티커 같은 특징이 있다. 성공한 스토리는 속담이나 격언처럼 간단명료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지녀야 하는 단순성,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성, 허황하지 않은 구체성, 진실하고 정직하며 믿음을 주는 메시지로 신뢰성을 획득하고 상대방을 움직이는 감성, 이 모든 것을 한데로 풀어나갈 수 있는 통합적이고 독창적인 이야기(story)가 필요하다.

〈그림 IV-3〉 토비야스의 20개 플롯

토비야스의 20개 플롯

추구	모험	추적
구출	탈출	복수
수수께끼	라이벌	희생자
유혹	변신	변모
성숙	사랑	금지된 사랑
희생	발견	지독한 행위
상승	몰락	

장소성 파악을 통해 흩어져 있는 것들이 특정한 이미지로 모여 공간의 정체성을 만들게 된다. 장소성을 파악하는 것은 공간의 맥락을 하나로 집중시켜 공간에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는 일이다.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 정책과 제도를 이야기해주고 시민의 삶과 연관시키며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시킨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어도가 가진 지정학적 위치로서의 중요성과 해양영토로서 갖는 의미를 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어도는 옛날 그 옛날부터 우리 제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목

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야 한다. 타인의 관점에서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타인이 말해 주지 않아도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타인의 느낌을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꾼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이념을 스토리텔링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사회관, 경제관 등을 확립하여 정의롭고 신념에 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2-2-1. 인물 설정과 구체화 방법

주인공은 의식적인 욕망과 이에 모순되는 무의식적 욕망을 가진 양가성을 가진 인물로 선악과 관계없이 감정이입이 대상이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 주인공이 난관을 헤치고 목표를 끝까지 추구하는 의지력을 가질 때 우리는 주인공에 공감하게 된다. 수집된 7편의 이어도 설화에서 고동지를 주인공으로 삼는 이유는 비교적 이러한 요소를 두루 갖추었기 때문이다. 캐릭터는 특정 계층의 생활양식과 태도, 특정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전형적 존재이다. 캐릭터의 구성요소는 사회계층의 공통된 특징이 중심이 된다. 계층, 계층의식은 개인의 활동, 생활수준,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친다. 계층은 재산이나 가문, 성별, 인종 등과 같이 유전, 혹은 세습되는 요소가 많고 인습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일이 많다. 전형성은 한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성격으로 개인으로서의 개체성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의 계급을 대표해야 획득될 수 있다. 주로 사실주의적 성격을 띤 서사에서 주목받는다.

앞에서 분석한 이어도 설화 중 그나마 드러나는 캐릭터는 다카호시 토오루 “民謡에 나타난 濟州女性 - 이허도(離虛島) 전설”에서의 해상운송업의 거간의 아들 강씨와 그의 부인, 진성기 「신화와 전설」에서의 국마진상을 떠나는 고동지, 현용준·김영돈(1980)의 저술 동김녕리 채록에서는 남편, 아내, 첩, 시아버지 정도이다.

캐릭터는 작품의 내용에 설정된 허구적이고도 개성적인 성격과 이미지가 부여된 인물 또는 존재이다. 만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 동물이나 생명을 부여한 무생물 등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인물이나 존재의 모습을 디자인화한 것이다. 자기만의 성격과 특징을 통해 생명력을 가지게 된 원형이 캐릭터이다. 캐릭터는 등장인물의 성격, 개인을 특정 짓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 양식을 말하며 문학작품의 문자 매체를 통해 추측되는 그 어떤 것을 말한다. 반면 인격(personality)은 도덕적 완결성을 암시한다. 캐릭터는 가치중립적 표현이 아니다. 핵심 특성과 체험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부분과 설명되지 않는 영역, 즉 우리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알 수도 이해할 수도, 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 캐릭터는 개별적 존재로서 현재의 우리 자신으로 만드는 모든 것이다.

〈표 IV-1〉 캐릭터 설정 비교

텍스트에 의한 구축물	실재 인간의 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롯 중시 - 기능적 측면 ○ 작품의 장식적인 요소 플롯과 관련하여 어떤 기능을 하나? 플롯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하나? ○ 이야기의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중시 - 주제적 측면 ○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 역사적 사회적 환경에서 무엇을 의미 하나? ○ 이야기의 목적

캐릭터는 텍스트에 의한 구축물과 실재 인간의 표상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기능적 측면으로 플롯을 중시하고 작품의 장식적인 요소로 플롯과 관련 속에서 어떤 기능, 어떤 행위를 하는가를 질문하며 이야기의 수단이 된다. 반면 후자는 인물을 중시하여 주제적 측면을 나타내며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역사적 사회적 환경과 관련하여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질문하는 이야기의 목적이다.

캐릭터는 이야기꾼이 선택하고 구조화한 인물로 디자인된 어떤 존재, 혹은 배우들과 결합하여 현존한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 정해진 틀에 따라 움직이는 행위자로 특정한 성격을 지닌 결정적인 인격체이다.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떻게 행위로 발전되는가를 추적하며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상상한다.

캐릭터는 특정 계층의 생활양식과 태도, 특정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정형적 존재이다. 캐릭터의 구성요소는 사회계층의 공통된 특징이 중심이 된다. 계층의식은 개인의 활동, 생활수준,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친다. 계층은 재산이나 가문, 성별, 인종들과 같이 유전, 혹은 세습되는 요소가 많고 인습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유산계급(자본가)과 무산계급(노동자)의 계급 갈등으로 보면 권력과 이해관계에 의한 대립과 착취에 대한 사회적 투쟁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현대 사회의 사회적 갈등은 주로 계층세습, 계층갈등, 계층이동 문제에서 비롯된다. 캐릭터의 설정과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인간 존재를 해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캐릭터는 인간의 심리적 본성을 탐구하고 드러내는 요소로 구성된다.

캐릭터는 주요 캐릭터와 주변 캐릭터로 분류할 수 있다. 주요 캐릭터에서 프로타гон리스트는 구조상 중심부에 있는 인물로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응하는 결정을 내린다. 안타гон리스트는 극적 구조에 선명함과 힘을 더해준다. 프로타гон리스트에 비해 안타гон리스트의 지위나 능력이 높을수록 긴장감은 증가한다. 주변 캐릭터에서 촉매적 인물은 주동 인물을 변화시키는 인물이다. 주동 인물이 행동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정보를 주거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분위기를 획극적으로 살려주는 인물은 심각한 비극의 조역으로 웃음을 유발하기

도 한다. 캐릭터는 이야기 구조의 한 요소이자 서사 전개를 위한 하나의 기능이다. 서사 상의 기능에 따라 캐릭터를 유형화할 수 있다. 캐릭터는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어도 설화는 각 편으로 된 7편의 채록본이 전해지고 있다. 이어도 설화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인물로는 국마진상을 떠나는 고동지, 이어도에서 고동지를 따라온 여섯할망, 해상상인 강씨, 강씨의 부인, 그리고 시아버지 정도이다.

스토리텔링에서 캐릭터를 형상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이어도 설화 속에 나타난 캐릭터 분석을 통해 제주 여인의 정체성에 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주로 다루고자 하는 캐릭터는 다카하시 토호루의 채록본에 나오는 해상상인 강씨의 부인이다. 대정에 사는 강씨라는 사람이 중국에 공물을 보내기 위해 서해를 가로질러 공물선을 타고 갔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강씨의 부인은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찾아오겠다며 시아버지에게 배를 한 척 지어달라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는 고려 시대 총렬왕 3년이라는 구체적 시간적 배경이 나타난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해상운송업이라는 직업이 제주 지역의 특수성과 맞물리며 중국에 공물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진성기 채록본에서 국마진상을 떠난 고동지와 일맥상통한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배를 지어 남편을 찾아 떠나는 모습에서는 제주 여성의 강인한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의 특성상 이야기는 마을마다, 듣는 사람의 반응이나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 조금씩 보태지거나 빠지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다. 이야기는 그럴싸하겠다고 설득력이 있을 때 공감이라는 힘을 얻으며 재미가 더 풍부해진다. 역사적 사실보다는 역사적 시대에 상황에 맞춰 상상력을 갖고 이야기가 구성될 때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토퍼 보글러(Christopher Kogler)의 영웅 이야기의 원형에 따르면

- 1) 영웅은 일상세계에서 떨어져 나와
- 2) 모험에의 해명을 받는다.
- 3) 주저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다가
- 4) 정신적 스승의 격려와 도움을 받아
- 5) 첫 관문을 통과하고 특별한 세계로 진입한다.
- 6) 영웅은 시험에 들고 협력자와 적대자를 만나며
- 7)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 진입하여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데
- 8) 그곳에서 시련을 이겨낸다.
- 9) 영웅은 대가로 보상을 받고

- 10) 자신이 떠나왔던 일상세계로 귀환의 길에 오른다.
- 11) 영웅은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해 부활을 경험하고, 그 체험한 바에 의해 인격적으로 변모한다.
- 12) 영웅은 일상세계에 널리 이로움을 줄 은혜로운 혜택과 보물인 영약을 가지고 귀환한다.

7편의 스토리를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해 보았을 때, 구성된 스토리 라인을 통해 크리스토퍼 보글러(Christopher Kogler)의 영웅 이야기의 원형에 따라 하나의 완결된 구조의 이야기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다.

옛날 고려 충렬왕 때, 제주에는 원나라의 목마장이 있었어요. 조천 사는 고동지는 국마진 상을 떠나야 했지요. 고동지는 동료들과 함께 말을 잔뜩 싣고 순풍에 돛을 달아 뱃길을 떠났어요. 뱃길로 300리를 지나고도 70리를 더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폭풍이 일어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예부터 사람들은 마라도에서 남남서쪽 300리 너머에는 바닷길이 험한 이어도라는 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센 파도에 말도, 배도, 뱃사람들도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고동지가 깨어나 보니 선녀처럼 어여쁜 여인들이 둘러싸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여기는 이어도입니다. 탐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 있는 이곳은 제주 사람들이 지나다가 풍랑을 맞으면 잠시 쉬어가는 곳입니다.”

고동지는 이어도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고향에 있는 아내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고동지의 부인 강씨는 시아버지에게 배를 한 척 지어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님. 배를 한 척 지어주세요. 제가 이어도로 가서 남편을 찾아오겠습니다.”

“얘야. 이어도에 간 사람들은 돌아오는 법이 없단다. 이어도로 가면 너는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어린 자식들과 이 늙은 시아버지는 어찌 살란 말이나. 이곳은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돌밭을 일궈야 겨우 조밥이나마 먹을 수 있지만, 이어도에 가면 날마다 연꽃 위에 앉아서 쌀밥을 먹으며 편히 산다고 하지 않더냐? 아버님은 이어도에서 잘살고 있을 거야.”

시아버지의 만류에도 고 동지의 아내 강씨 부인은 혼자서 배를 타고 이어도를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폭풍우가 치는 날에는 폭풍우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자 저 멀리 집채만 한 파도가 치는 곳에 보일락 말락 한 섬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이어도에 도착했다고 생각한 순간 파도는 배를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정신이 들어 깨어난

강씨 부인은 이미 이어도에서 다른 여인과 복락을 누리며 잘살고 있는 고 동지를 만났지요.

강씨 부인은 고향에 있는 어린 자식들과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혼자서 제주로 돌아와야 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이어도에서 다른 여인을 만나 잘살고 있다는 배신감에 힘이 빠진 강씨 부인은 그만 노를 놓치고 말았어요. 뒤늦게 고동지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아내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이어도외의 여인도 고동지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수중고혼이 되어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어도에서 온 여인은 여똥할망으로 불리며 죽은 고동지 아내 강씨 부인을 위해 기도를 하며 장귀동산 당을 차렸습니다. 여똥할망은 죽은 부인 원혼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이어도로 고기잡이 떠나는 배가 바람을 만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똥할망의 기도 덕분에 이어도를 지나는 배들은 무사했고 고기잡이 나간 배들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캐릭터의 사회적 기능과 유형

캐릭터는 특정 계층의 생활양식과 태도 그리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존재이다. 캐릭터를 통해 당시의 사회계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회계층은 사회 구성원들의 능력이나 지위의 차이, 인습적인 구분에 따라 생기는 서열과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받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 평가의 고저에 따른 서열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활동, 생활수준,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계층의식은 큰 영향을 끼친다. 계층은 재산이나 가문, 성별, 인종 등과 같이 유전 혹은 세습되는 요소가 많고 인습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일이 많다. 전형성은 한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성격을 말하며 개인으로서의 개체성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의 계급을 대표한다. 캐릭터는 이야기 구조의 한 요소이자 서사 전개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다. 서사상의 기능에 따라 캐릭터를 유형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편의 완결된 이야기로 구조에서 강씨부인은 해상상인 강씨의 부인이라기보다는 고동지가 국마진상을 떠나기 전 제주에서 함께 살았던 고동지의 아내로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고동지의 부인이 대정에서 조천으로 시집온 강씨 성을 가진 여인인 것이다. 고려 시대 탐라는 활발한 무역 국가였다. 해상상인이라는 텍스트에서도 나타나듯 서귀포, 차귀도, 대정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선과 공물선이 술하게 다녔다. 당시 국마진상을 다녀온 사람이 또 갔을 확률이 높을 것이며 국마진상을 다니는 고동지와 해상상인의 딸 강씨가 부부의 인연을 맺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혼인을 하면 남자가 여자의 집에 들어가 작은 집을 짓고 사는 서옥제가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남자가 장가를 간 것이다. 지금도 제주에서는 아들을 장가보낼 때 '아들 판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한국사 능력시험, 공무원 시험의 단골 시험문제로 고려시대 여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조선시대 여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다. 조선시대 여인들과 달리 고려시대 여인들은 혼인 후에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성을 갖고 있었다. 남편의 계보에 종속되지 않았음은 물론 남편과 사별했을 때도 얼마든지 재혼도 가능했다. 특히 재산은 남녀 구별 없이 균분 상속을 받아 여자들도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부별산제에 따라 혼인 관계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자신의 재산은 그대로 유지했기에 경제력을 갖춘 여성들이 많았다. 육지에서는 장자가 제사를 지내는 것에 비해 제주에서는 제사를 나누는 풍습이 있다. 재산을 나눠주며 제사도 하나씩 맡아 지내는데 이는 제주의 풍습은 조선의 풍습보다는 고려시대의 풍습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성이 강인하고 독립적인 성격이 그러하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따져본다면 강씨 부인은 배를 지을 만큼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 심리적 기능과 유형

캐릭터의 설정과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인간 존재를 해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캐릭터는 인간의 심리적 본성을 탐구하고 나타내는 요소이다. 사체액설, 사상의학, 골상학, 수상학, 인상학 등은 모두 인체 생리학적 성격 유형에 따른 분류라 할 수 있다. 인체 생리학적 성격 유형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성격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융은 인간을 크게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누었는데 외향형은 정서의 표현이 활발하고 결단이 빠르며, 통솔력이 있고, 사교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내향형인 사람들은 주관적인 면을 중시하고 내성적이며 사려가 깊으나 결단력이 부족하고 고독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이를 더 세분화하면 내향적 감정형, 외향적 감각형 등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지만 우선 강씨부인의 캐릭터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유추해보고 또 제주 여인의 강인한 정체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강씨 부인은 외향형에 가깝다. 남자들도 배를 타고 건너기 힘들다는 이어도를 향해 떠나는 것에서 충분히 그러한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지금처럼 뱃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천 동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배를 지어 달라고 한다. 배를 한 척 지어달라고 할 정도로 배포가 있으며 경제력을 갖춘 사람일 것이다.

최후의 표해록에는 옛 제주 사람들은 아들은 낳으면 자라의 밥이 될 것이고 딸을 낳으면 나를 봉양할 아이라고 기뻐했다고 한다.

강씨 부인은 고 동지가 국마진상을 떠날 때 의연하게 보내주며 꼭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부모를 봉양하며 아들, 딸을 키우며 의연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

다. 다만 아이들이 크면서 아버지의 부재에 관해 물었을 것이고 아이들에게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게 하지 않으려는 모성애 그 때문에 험한 바다를 건널 생각도 했을 것이다.

막상 이어도에 가보니 남편은 복락을 누리며 잘살고 있었고 고동지 아내도 이어도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 늙으신 부모와 어린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는 책임감과 독립성 때문이다. 제주 할망들은 장터에 푸성귀를 내다 팔아서라도 죽을 때 자신의 장례비는 꼭꼭 챙겨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주 여성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강인하다. 강씨 부인의 캐릭터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주요캐릭터와 주변 캐릭터

영화에 주연과 조연이 있듯이 캐릭터에도 주요캐릭터와 주변 캐릭터가 있다. 주요캐릭터는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응하는 결정을 내리는 구조상 중심부에 있는 인물이다.

protagonist = Porto(주요한) + agon(투쟁, 갈등) + ist

antagonist = ant(반대) + agon(투쟁, 갈등) + is

프로타고니스트는 구조상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응하는 결정을 내리며 안타고니스트는 극적 구조에 선명함과 힘을 더해준다. 프로타고니스트에 비해 안타고니스트의 지위나 능력이 높을수록 긴장감이 증가한다. 여기서 고동지 아내 강씨부인이 프로타고니스트라면 고동지나 이어도에 사는 여인들은 안타고니스트라고 할 수 있다. 고동지 아내가 인간 세상의 여인이라면 이어도에 사는 여인들은 수중에서도 살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인간과 신세계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로 선녀처럼 아름다웠을 것이다. 반면 제주의 구전설화에서 나타나듯 제주의 옛이야기에서 여인들은 예쁘고 아리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힘세고 일을 잘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주변 캐릭터에서 포일(foil)은 다른 것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이다. 주인공의 협력자가 될 수도 있고 방해자가 될 수 있다. 배를 지어주는 시아버지 역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강씨 부인에게 선홍꽃에서 동백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주는 협력자이다. 콩피당트(confident)는 신뢰할 만한 친밀한 동료로 심복이나 친구 하인, 유포 등 주인공의 분신과 같은 인물이다. 주인공 내면의 갈등을 털어놓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도 민요는 멧돌을 갈면서 이어도에 고기 잡으러 간 아방이 살고 있을 거라고 노래한다. 멧돌을 돌리는 강씨부인 옆에서 아버지는 어디 갔느냐고 묻는 아들을 설정한다면 그 아들의 역할이 바로 콩피당트일 것이다.

작가를 대신해서 주제나 중심사상을 전하는 인물로는 이성적 인물(레조뇌르; raisonneur), 주제적 인물(thematic character)이 있다. 작가를 대신해서 주제나 중심사상을 전하는 인물로 주제를 훨씬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달하여 신뢰성을 갖게 한다. 설화에서는 이야기를 전하는 화자가 될 것이다. 이어도 설화 속에 나타난 강씨 부인의 캐릭터 분석을 통해 나타난 제주 여인의 정체성은 험한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은 강한 책임감으로 당당하고 의연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V-4〉 캐릭터의 원자료

- **캐릭터의 원자료 - 캐릭터는 창조되는가, 발견되는가**
- 자료로서의 다른 이야기
 -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캐릭터
 - 예술 혹은 자연에서 오는 캐릭터
 - 실재하는 인간의 재현이자 모방
 - 복합된 캐릭터

2-2-2 장소성 도출

장소는 심리적 장소, 물리적 장소, 경제적 장소로 구분될 수 있다. 장소는 인간 활동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서 인간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원이 된다. 장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 가운데 극적 요소가 채택되고 이것이 가시성을 획득하면, 사람들이 이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장소성이 형성된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지역주민이 활동하는 공간적 배경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곳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어도라는 공간적 배경을 매개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만들기이다. 제주인의 삶의 터전인 이어도에 이야기를 부여하는 역할이다. 이어도를 스토리텔링 할 때는 원래 공간에 존재하는 이야기에 가상의 이야기가 합해진다. 그래서 이어도라는 공간에 존재하던 이야기에 변화된 이야기가 합해질 것이다. 어떤 공간에 대해 사람들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때 그 공간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된다. 아는 곳이 곧 장소라는 의미이며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은 그 장소에 대한 그 사람의 경험이 보태어져 의미

있는 곳이 되기 때문이다.

제주도 구비 서사물에 나타난 해상 타계는 본질과 그 변화의 맥락에서 고찰할 가치가 있다. 그동안 해상 타계는 해양 타계라는 큰 범주 안에서만 논의됐다. 그러나 해상 타계 삽화는 여타의 해양 타계와 구별되는 특유의 속성과 성질을 갖는다. 강남 천자국, 벽랑국, 이어도에 주목하여 이 같은 실상과 변주 양상을 살폈다.

강남 천자국은 동해용왕국처럼 본래 해신적 속성을 띤 여신들이 출자하는 상상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해상 타계는 해저 타계보다 실제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신앙민의 체험적 인식, 시대적 이데올로기가 당신본풀이의 서사에 반영되며, 해상 타계는 중국과 같은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상 타계는 강남 천자국이라는 명칭을 획득하고, 동해용왕국의 우위에 놓일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해양신앙적 성격을 점차 잃고, 신의 권위를 강조하는 서사적 장치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탐라국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벽랑국도 강남 천자국과 유사한 해상 타계이다. 이곳에서 출자한 세 여신은 오곡 종자와 우마를 가지고 제주도에 표착한다. 이 설정은 해상 타계의 여신으로부터 농경의 풍요가 온다는 원형상징을 탐라국의 사정과 건국신화의 위상에 알맞게 다듬은 것이다. 〈송당본향당 본풀이〉의 백주또, 영등신의 속성도 본래는 해상 타계로부터 여신이 가져온 전반적인 풍요와 관련이 깊은 것이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이 같은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당신본풀이나 생업신앙은 건국신화와는 달리 전승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재편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유는 천계에 출자처를 둔 풍요의 여신 등장으로 그 위상이 흔들린다.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한 새경 신은 점차 해양 타계, 해양신앙의 전반에 침투하였다. 결국, 신화체계 안에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해상 타계로부터 전하는 풍요는 천신 중심주의에 밀려 농경의 범주까지 소급되기 어려워졌다. 해양신앙과 관련된 의례에 요왕세경이라 불리는 신격이 깊게 관여하는 상황은 이와 관련이 깊다.

한편 이어도는 강남 천자국, 벽랑국과는 달리 전승민의 역사적 체험과 삶의 애환이 직접 형상화된 인간의 해상 타계이다. 인간을 위하여 마련된 해상 타계이지만, 채록된 각 편에서 이어도는 상상과 현실, 신과 인간, 신화와 설화를 아우르는 점이지대의 성격을 띤다. 〈장귀동 산당본풀이〉는 이어도 전승의 특별한 사정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오키나와에 전승되는 해상 타계 신화(신앙)와 설화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특색은 제주도에 전승되는 해상 타계 삽화의 변별적 자질과 다름없다.⁴⁷⁾

47) 이현정 「제주도 구비서사물에 나타난 해상 타계의 변주 양상과 의미」 한국무속학회. 한국무속학회 제36집 2018

2-2-3. 이어도 스토리텔링의 구성 전략

이야기 전개 유형

내러티브의 유형으로는 개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알리기 위한 목적의 개인적 내러티브, 사건을 전달하거나 교훈을 주기 위해 제작하는 정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 다큐멘터리와 사건을 파헤치고 진실을 구하기 위해 이야기를 구성하는 역사적 사건을 조사하는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이야기의 재해석

독특한 시각(Point of view)은 이야기 안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이나 이야기에 대한 특별한 깨달음을 말한다. 스토리텔러는 남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보며,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만의 견해를 갖는 습관이 필요하다. 제주인들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날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지금도 노인세대는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다. 제주인들은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고달픈 세상에 태어남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생일의 진정한 의미를 육체적으로 태어난 날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이승에서 안식할 수 있는 저승으로 가게 된 날로 여겼던 듯하다. 호강한 자들의 죽음은 비통과 두려움이었지만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죽음은 해방과 기쁨으로 해석되었다.

양자 간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이별에 대한 슬픔뿐일 것이다. 놀 새 없이, 쉼 새 없이 살아야 했던 제주인에게 죽음은 해방이었고 또한 새로운 세상에서 새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믿었기에 망자를 위한 그 날의 의식만은 잊지 않고 행했다. 그리고 망자가 가족과 거주 공간을 달리하여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이어도로 가게 되는 장례일 만은 평소 안하던 가무를 행함으로써 이를 축복했다. 만농 홍정표 선생의 사진 '영장밭디'에서는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제주인의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서방정토라 할 저승의 이어도로 떠나는 시간이기에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시간만은 샤먼의 장구 소리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여 새 삶을 축복하고 축복했다. 이러한 제주의 독특한 장묘문화는 극히 도교적인 것으로 육지와는 전혀 다른 양식이었다.⁴⁸⁾

질문하기 (Dramatic question)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마지막 순간까지 몰입하도록 하는 전략을 말하며 독자의

48)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p.212~213, 도서출판 각, 2019

주의를 끌게 만드는 질문을 말한다. 고동지는 몇 살쯤 국마진상을 떠났을까? 고동지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고동지가 타고 간 배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을까? 국마 진상하러 갈 때는 몇 필의 말을 싣고 갔을까? 당시 고동지의 사회적 신분은 누구였을까? 등등 이야기를 들을 때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 궁금증은 해소되어야 한다.

독자의 주의 집중을 지속시키는 한편 감정적으로 동조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꾸며야 한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내러티브의 유형은 정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원래 공간에 존재하던 이야기에 변화된 이야기를 조합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다. 어떤 공간에 대해 사람들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때 그 공간은 장소가 되며 장소는 '아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앎'은 그 장소에 대한 그 사람의 경험이 보태어져 의미 있는 곳이 된다. 주인공이 부여받은 임무와 장애물에 대해 필요한 요소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주인공이 해야 하는 일과 갈등을 제시한다. 인물 간의 관계 사건에 대한 위기가 집약되고 주인공이 장애물과의 갈등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 핵심 장애물, 갈등의 요소를 극복하던 좌절하던 종결할 때는 새로운 국면에 필요한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마지막 해결을 위한 설정하고 마지막 해결을 위한 대결, 선택하며 대결의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대사 속의 숨은 의미(subtext)가 있어야 한다. 상황의 전진 될 수 있어야 한다(전진성).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경제성).

〈그림 IV-5〉 스토리텔링의 구성 전략 - 질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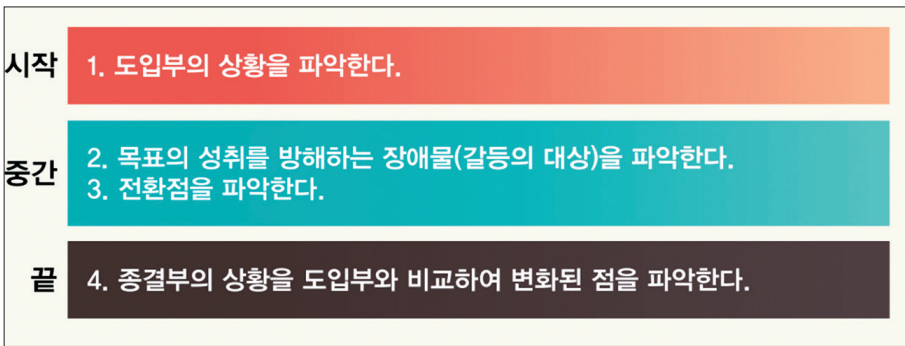


- 고동지는 어느 나라 시대 사람일까?
- 고동지의 사회적 신분은?
- 고동지가 살았던 역사적 배경은?
- 고동지가 국마진상 갈 때 타고 갔던 배는?
- 그때 제주 사람들의 정체성은?
- 이어도는 왜 여인국이라고 불렸을까?

3. 상황의 설정과 전개 방법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동물이다. 감성이란 사람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가치 의식, 개성, 취향 기분 등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청중의 주의 집중을 지속 시킬 수 있는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동조하게 만드는 내용일 때이다. 감동을 주는 스토리텔링 전략은 시간, 장소, 기억이 공유된 상태에서 가치와 사상을 공유한 감정을 공유하고 이러한 것들에 공감하는 이야기에 감동하게 된다.

〈그림 IV-6〉 상황의 설정과 전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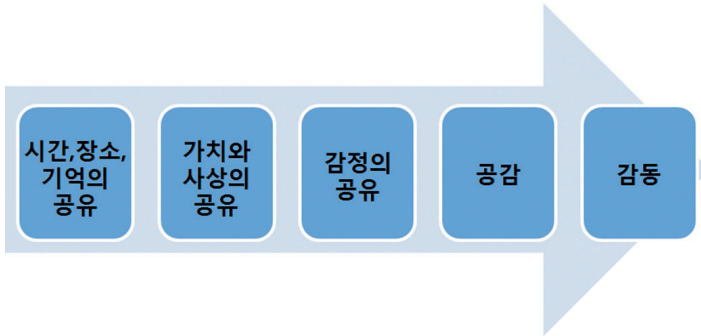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보편적이면서도 참신한 흥미로운 이야기여야 한다.

대부분 신화, 설화, 전설 민담은 야생적인 사고/이성적 사고, 이성/감성, 합리성/비합리성과 같이 대립하는 단쌍구조를 이룬다. 신화와 전설, 민담,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친밀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 스토리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처럼 익숙한 이야기이다. 가장 보편적인 스토리텔링이야말로 누구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친숙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상상과 체험, 기억 때문에 완성되며, 인간의 이야기는 상상, 체험, 기억의 각 요소에 의해 창작되기도 하고, 두 요소 혹은 세 요소의 혼합 때문에 구성되기도 한다. 상상이 무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으므로 체험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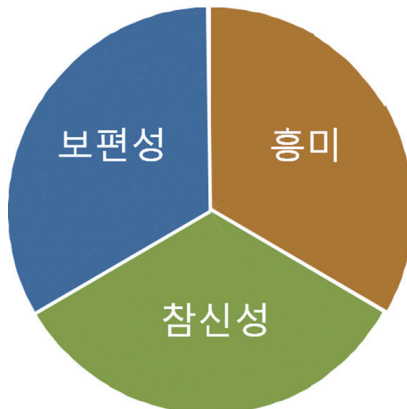
〈그림 IV-7〉 보편적 이야기의 스토리텔링



이야기의 ‘재미’는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 흥미를 주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통된 체험과 인식 그리고 삶의 보편적 모양새를 담아야 하므로 체험이 중요하다. 기이한 경험과 다양한 체험으로 점철된 삶이 녹아들면 감흥은 훨씬 커지게 된다. 병이나 고난의 극복, 사랑, 기술이나 물건의 발명, 고고학적 발견, 암호의 해독 등에 관한 이야기는 흥미진진하며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한다. 개인의 경험이 녹아있는 이야기는 더욱 감동을 주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모험을 즐기는 이야기는 흥미를 더해준다.

매 순간 새롭고 독창적이며,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의 이야기를 같은 방식으로 두 번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과 자연에 대한 관찰,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사유가 이 모든 것을 버무리거나 연결하는 상상력이 이야기에 흥미를 준다.

〈그림 IV-8〉 스토리텔링 구성요소



3-1. 이어도 스토리텔링

3-1-1. 기본방향

첫째,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옛 제주 사람들이 소박하고 진솔한 삶의 모습이 녹아 들어 고운 정서로 표출되어야 한다.

둘째, 제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는 연결고리로서 꿈과 희망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주인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또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암시하는 지리적 위치가 표출되어야 한다.

넷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문체로 전개해야 하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해서 표기해야 하므로 문장의 길이도 짧아야 한다.

3-1-2. 이어도 이야기 분석

- 민요 속의 이어도

이어도는 해녀 노래와 맷돌, 방아 노래, 타작 노래, 망건, 양태 노래 등 제주의 거의 모든 노동요에 후렴으로 나타난다. 그중 맷돌, 방아 노래에는 이어도가 후렴이 아닌 가사로 등장한다. “이어하니 나 눈물 난다. 이엇말일랑 말아서 가라, 강남 가거든 해남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엔 해라.” 이어도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 나니 이어도라는 말은 제발 말아 달라는 맷돌 노래 속에는 이어도가 제주도 남쪽 강남 가는 바닷길 절반쯤 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어도가 어떠한 공간이라는 속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역사 속의 이어도

이어도가 어떤 곳이며,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기록한 문헌은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 해랑도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마포에서 평안도 서천 장녹도를 지나 사나흘 정도면 닿을 수 있다는 명나라의 섬으로 이 섬에는 중국 사람들과 비슷한 말을 하며, 노루 가죽옷을 입고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어업과 수렵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데 원주민은 불과 5가구인데 제주 사람 20여 명이 몰래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랑도에는 고기잡이 나섰다가 풍랑을 만난 제주 어부들이 흘러 들어가 살기도 하고 탐관오리의 수탈과 척박한 삶에 지친 주민들이 몰래 도망가서 사는 일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이 해랑도의 ‘바다해’자가 바로 와전돼서 바람으로 전해지다가 파랑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향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 문학작품 속의 이어도

이어도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청준 소설 '이어도', 고은 시인의 시 '이어도' 등이 대표적 작품들이다. 이청준은 이어도를 “긴긴 세월 동안 섬은 늘 거기 있어 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했다. 고은의 시 '이어도'에서도 “아무도 이어도에 간 일이 없다/그러나 누구인가 갔다 한다/가서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한다”고 썼다. 문학작품 속의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을 넘어 이상향을 동경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가서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 무속에 전해지는 이어도

옥황상제의 따님이 어버이 뜻을 거슬러 용궁으로 귀향을 내려온다. 옥황황제국에서는 그 녀에게 이어도를 차지해서 그곳을 오가는 배들로부터 인정받아 먹으며 살라고 명한다. 어부들은 이어도에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인정을 걸지 않는다. 옥황상제의 딸은 배가 지날 때마다 파도를 일으켜 침몰시키곤 한다. 그 뒤로 어부들은 이어도에 신령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어도 손주 돌보는 할머니이라 부르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인정을 많이 걸었다는 얘기다. 이 내용은 제주 MBC가 제작했던 다큐멘터리 이어도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칠머리 당굿 기능보유자였던 고 안사인 심방의 인터뷰를 기초로 한 것이다.

3-1-3. 이어도 스토리텔링의 실제

스토리텔링은 이어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이어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해서 문화해설사 같은 안내자가 설명토록 하며 다른 하나는 설치될 표석에 단순하게 표기할 이어도의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어도 이야기 그 자체가 이야기

노동요 속에 들어 있는 이어도는 그 명확한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이어도의 방향과 위치만 나열해 놓고 있다. 또 노동요에는 반복적으로 후렴구로 나타나고 있어 일부 학자들은 이어도는 후렴구, 즉 노동할 때 힘을 돋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르는 조사어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역사와 이청준이 쓴 소설 역시 이어도에 대한 속성을 표출하지 않고 있다. 무속에 묘사되는 이어도는 옥황상제 따님이 사는 곳이라는 정도이다.

결국, 이어도가 어떠한 곳이고 어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이어도 표석에 들어갈 내용을 압축하거나 상징물의 주제로 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서 지적했듯이 현장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등이 활용케 할 수 있다.

- 상상의 섬 이어도를 스토리로 압축

노동요에 나오는 이어도, 문학작품 속의 이어도, 역사 속의 이어도, 무속 본풀이에 나오는 이어도에 관한 내용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어떠한 공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어도 표석과 상징물에 묘사될 스토리텔링은 공간의 속성을 묘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관념 속의 공간, 상상의 섬 이어도를 말한다. 유럽의 유토피아 역시 관념의 세계이지만 이미 세계인들은 상상 속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유토피아적 이어도는 과거 선인들의 궁핍과 곤경, 그리고 한을 탈출하려는 시도의 감정과 인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인생의 불행이 남아 있는 한 이어도는 영원히 남겨져야 할 염원과 소망의 공간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를 지켜나갈 영토의 개념으로 확고히 다져나가기 위해서라도 이어도는 소중한 아름다운 공간으로 미화될 필요가 있다. 그 전제는 제주 사람들의 꿈과 희망, 사랑까지 묘사하는 공간으로 말이다.

- 이어도 스토리텔링의 사례

마라도 동남방 00지점에 이어도가 있습니다. 불로장생하는 신비한 묘약이 자라며, 고통과 한이 없는 웃음과 기쁨만 가득한 섬, 제주 사람들이 현실을 떠나 영원히 안식할 그곳, 바로 이어도입니다.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의 영원한 꿈과 희망의 섬입니다.

3-2. 이어도 Viewpoint

3-2-1. 기본 방향

이어도 스토리텔링을 수용해서 특정 공간에 형상화 작업을 연출해야 한다. 경관과 어우러진 이어도의 시각적 형상물을 통해 감성적 신비로움과 역사·문화적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어도가 더욱 품격 있고 흥미 있는 관광 가치로 거듭날 수 있다.

형상화 작업은 스토리텔링을 수용할 수 있는 표석과 상징물 설치를 구상해 볼 수 있다. 표

석은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서술하며 상징물은 이어도의 가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다른 상징물들과 확연한 차별화가 이뤄져야 하며, 예술적인 의도가 살아나야 지속적인 관심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인 설치방법으로는 이어도의 내용을 담은 표석만 설치해서 신비감을 자아내게 한다거나 또 표석과 상징물을 병행해서 설치함으로써 경관과 어우러진 Viewpoint를 연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3-2-2. 표석과 상징물 설치에 대한 방안

제1안: “이어도가 보이는 곳”(표석과 할망당 설치)

표석을 설치해서 이어도 스토리텔링을 담은 동시에 소코트라 암초의 위치를 방향표(화살표)로 표시한다.

원시적인 이어도 할망당을 설치해서 소원 빌기 체험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제2안: “이어도가 어디 이시니?”(표석과 군상제작 설치)

이어도 스토리텔링을 담은 표석을 설치하고, 그 위로 이어도를 그리는 제주인들의 마음을 담은 군상을 제작해서 설치한다.

제3안: “이어도의 여인들” (표석과 군상제작 설치)

이어도 스토리텔링을 담은 표석을 설치하고, 그 위로 환상적인 이어도를 연상케 하는 “이어도의 여인들” 군상을 설치한다.

제4안: 이어 이어도 허라! (표석과 군상 제작 설치)

이어도 스토리텔링을 담은 표석을 설치하고 그 위로 멧돌을 갈며 노래하는 제주 여인들의 군상을 설치한다.

* 이 경우 스토리텔링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빙빙 돌아가는 멧돌처럼 돌고 돌아가는 인생, 멧돌처럼 돌아가다 이어도로 가는 인생”

〈멧돌 돌아가는 의미〉

빙빙 멧돌 돌아가는 모습은 마치 우리네 세상사와 닮았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그리고 주어진 운명, 그렇게 같이 돌아가는 멧돌.

제주 여인들이 멧돌 돌아가는 소리와 노래에 모든 것을 내맡겼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번민과 슬픔 모두 내일을 향한 긍정의 힘으로 승화.

제5안: 예술적 상징물

이어도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예술 작품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모에 의한 선정방법을 쓸 수 있겠다. 이를테면 경북의 호미곶 광장 상생의 손과 같은 예술 작품은 어떨까?

3-3. 공간설정 방향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징물들의 경우 그 설치된 공간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어도 상징물 역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어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은 없다. 다만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고작인데 그곳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거리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일반인들의 왕래가 불가능하고 중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굳이 제3의 조건을 단다면 다음과 같은 장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먼저 이어도를 생성케 한 역사성과 신기루와 같은 신비로운 자연적 현상이 존재하는 곳,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연결될 수 있는 곳,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경승지를 선택한다면 이어도의 보편적 이미지 확산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3-3-1. 제1안 송악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장 적합한 장소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송악산이다. 송악산은 제주도 내 자연 관광지 가운데 경관이 가장 수려한 곳이다. 한라산과 산방산, 단산, 형제섬 등 Viewpoint가 총집결해 있다. 그런가 하면 주변에 전통문화의 고장인 안덕면 덕수리, 산이 수동의 전적지, 그리고 대정의 추사적거지 등 역사·문화가치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송악산은 경관이 아름답고 또 신기루가 자주 출몰해서 목민관들이 즐겨 찾았던 곳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신기루는 이어도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재다. 기후적 현상인 것을 몰랐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 신기루는 이어도와 같은 이상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그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진시황 불로초 대탐사라는 역사적 대사건이 바로 신기루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기루가 기후적인 현상임을 몰랐던 진시황은 서복에게 속아 불로초 대탐사라는 어처구니없는 탐사를 기획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승지라는 점, 제주역사·문화의 총집결지라는 점, 그리고 신비로운 기후 현상인 신기루가 최근 까지도 솔하게 출몰했던 장소라는 점 등은 송악산이 가진 매력이자 강점이다. 송악산은 이어

도의 신비로움과 함께 역사성까지 아우르면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 판단된다. 더구나 송악산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이야기 하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구를 계기로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으리란 여겨진다.

3-3-2. 제2안 마라도

마라도는 대한민국의 최남단으로 그 의미가 깊다. 또한, 현재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섬이다. 4면이 확 트인 공간에 이어도 표석과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 역시 의미가 깊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특별한 역사성이나 문화적 감동이 없어서 이어도 스토리텔링을 달고 상징물을 설치하기에는 적합지 않으리라고 여겨진다. 결국, 송악산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장소라 판단된다.

3-4. 체험시설(할망당) 구상

3-4-1. 기본방향

단순하게 Viewpoint만 조성하는 것보다는 교훈적 메시지를 주는 체험시설을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 방안은 상징물 설치에서 제시된 첫 번째 안으로 이어도 할망당 조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제주는 당 오백 절 오백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 특히 제주의 당은 과거 제주 사람들의 생활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제주의 당은 이어도처럼 고통과 절박한 삶이 낳은 동종의 산물로 토속적이며, 진득한 사연들이 넘쳐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어도는 관념의 세계인 데 반해 당에 내재한 이야기는 실제 생활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 주로 무속의 내력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무속 속에 있는 옥황상제의 딸 이어도 할망을 테마로 한 원시적인 형태의 당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체험을 유도한다면 한층 더 흥미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3-4-2. 체험 프로그램 연출

소원 빌기 체험을 연출하는 것이다. 비염문화가 성행하는 국내 및 아시아권 관광객들에게 매우 흥미 있는 체험요소가 될 수 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백년 해로하게 해달라는 소원, 부부들에게는 아이를 점지해달라는 소원, 그리고 어머니들에게는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소원 등등 현대인들의 고민과 바람을 주제로 연출한다면 그 의

미가 새로워질 수 있다. 주변 상가에서 당에 걸어놓을 수 있는 부적 등을 관광객들에게 팔게 하고 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구상일 수 있다.

3-4-3. 조성형태 및 규모

제주의 당은 상당히 투박하고 원시적이다. 당을 조성하는 방법 또한 체계적인 건축이 아니라 돌이나 바위, 나무 등 자연 그대로의 소재를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변의 돌을 자연스럽게 쌓아 올리고 명주실 같은 소재들을 여기저기 걸쳐놓는 수준에서 조성돼야 당 특유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또한, 비범할 대상으로 이어도 할망을 상징하는 형상석을 당 내부 전면에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당의 규모는 4~5평 정도로 검토해 본다.

3-5. 상징물 건립 추진 시스템 구축

특정한 공간을 설정해서 이어도 표석과 상징물을 건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특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어도 연구회와 같은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행정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가칭 이어도상징물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지역주민과 협조체제 구축

이어도 상징물을 설치하게 될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설치 후 사후관리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함께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마을 특화사업과 연계 추진

국가 행정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특화사업의 목적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득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얻어낼 수 있고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스토리텔링의 활용 방안

1. 공간과 이야기를 결합한 지역문화 자산화

지역적 특성이 내재한 특화 공간을 핵심적인 공간적 대상으로 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기존 1차 및 2차 산업 육성과 활용 위주 방법론에서 벗어나 3차 산업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꾸준히 변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2000년 중반 이후부터 각 산업군을 융·복합한 6차 산업 육성 방식이 새로운 지역 개발 전략으로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 농어촌 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생산자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 및 인구감소, 안정적 상품공급의 한계와 함께 소비자 측면에서 식습관의 변화, 관광 패러다임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전통적 방식인 1차 및 2차 산업만으로는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1차 및 2차 산업의 산업 영역은 지속적인 확장보다는 정체 또는 침체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농산물 가격 중심, 생산 및 유통 중심, 농산물 생산 및 제공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은 농산물 가치 중심, 6차 산업의 융·복합 중심, 복합문화공간의 활용 중심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자원들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서 대두되었으며 외래형 개발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 내발적 개발을 통해 내적 역량 강화를 이루어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원사업, 지자체지원사업,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간형 콘텐츠 기반의 지역 문화콘텐츠이다. 여기서 공간형 콘텐츠는 공간이라는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로서 특정한 공간은 건축물 또는 구획된 공간을 의미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콘텐츠로서 박물관, 테마파크, 축제가 있다.

공간형 콘텐츠의 핵심 중 하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콘텐츠를 제공하여 이를 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당 공간으로 직접 방문하여야 체험과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콘텐츠 그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2차, 3차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해당 콘텐츠가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가치 확장을 위한 매개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박물관 자체가 하나의 공간형 콘텐츠로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박물관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유도를 모색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즉 여기서 박물관은 지역에 대해 방문객들에게 콘텐츠 체험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인지하도록 하여 호기심을 갖도록 기능하는 하나의 매개체이며 이러한 인식과 호기심은 방문객들을 지역 관광지로의 유도를 통해 체류 시간 강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에서의 공간형 콘텐츠 기반 지역 문화콘텐츠에 대한 활용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관광의 방식 변화와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농촌관광의 새로운 형태로서 착지형 관광이 운영되고 있다. 착지형 관광이라는 것은 기존의 관광 상품들이 여행사들이 중심이 되어 관광 상품을 기획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발지형 중심과는 다르게 해당 관광지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장점을 어필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여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동시에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일방적 정보습득이 아닌 관광객들이 적극적으로 관광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다른 여행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여행자들의 지역관광으로 유도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 SNS 등의 확대와 더불어 더욱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착지형 관광이 유행하게 된 이유는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인 온천과 관광지 체험 등이 더 이상 관광객들의 만족감을 이루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존 발지형 관광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소비자들인 잠재 관광객들의 요구와 성향만으로는 그 지역의 관광 자원을 통한 관광 상품의 개발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다. 그 지역의 특성과 성향, 지역자원의 다양한 매력적 요인들의 융·복합을 통한 관광 상품의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착지형 관광은 해당 관광지 소재 여행사가 지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만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은 관광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형 관광지 중심의 관광 콘텐츠가 아닌 지역만의 고유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다양한 관광 자원의 진정한 매력 요인을 접목한 지역의 주체가 된 관광 상품을 누리는 착지형 관광이 기존 발지형 관광의 대안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착지형 관광에 대한 관광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된 지역 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은 지속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제는 그 지역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들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지역 문화콘텐츠로서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지역 브랜드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시대이다. 단순한 소득 창출의 도구로써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의 새로운 소득 및 가치 창출 전략의 모델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브랜드로서 의미를 창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브랜드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그들의 다양한 체험과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 문화콘텐츠로서 그 의미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최근의 관광 추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지역 문화콘텐츠인 축제와 캐릭터의 실패 및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정량적 방법론인 설문 조사 및 인터뷰 중심 조사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점 분석과 이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⁴⁹⁾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국민이 이어도라는 장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맥락 분석을 통해 공간특성을 특정한 주제로 구체화 시킨다. 이러한 작업은 선악과 관계 없이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 스토리텔링은 어떤 관념이나 개념적인 정보보다는 맥락이 공간특성과 닮아 마치 신화나 전설처럼 자연스럽게 흘러 공간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일상적 삶이 역사를 구성한다는 시각으로 이어도라는 공간과 제주 사람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제주인의 경험을 활용하여 이야기 역사를 구성한다. 또한, 이어도가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경험이 현재와 어우러지고 있음을 표현한다.

오래전부터 여러 지역에서 그 지역의 신화와 전설을 활용한 축제를 개발해왔다. 그 지역만의 차별화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 축제는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 발전시킬 수 있다. 이처럼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통한 가치 창출이 강조되면서 각 지자체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지역 축제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역 정체성을 잘 표출할 수 있는 이어도 설화와 고동지, 강씨부인, 여똥할망들 캐릭터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특성화된 축제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지역 축제에서 설화적 인물의 실존성을 문제

49) 이웅규(2018). 지역사회의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사례 분석. 글로벌문화콘텐츠(37), 89~108

삼는 경우가 있으나 이야기의 창의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실존성보다는 그 인물이 가진 정체성, 그리고 교훈적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거친 바다를 배경으로 살았던 제주인의 삶과 모험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평화를 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어도 설화 스토리텔링 연구를 통해 고동지, 강씨부인, 여돛할망 등의 캐릭터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영웅 원형 스토리 설화 스토리텔링 표현요소에 따른 축제 개발 생산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상황을 재현하는 공간 스토리텔링, 캐릭터 개발, 죽은 자와의 이별을 체험행사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차별화된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지역의 대표 캐릭터와 결합하여 스토리텔링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설화 스토리텔링을 토대로 이어도 설화 캐릭터인 고동지, 강씨부인, 여돛할망을 특성화하여 이어도를 더욱 쉽게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어도의 보편적 가치 확산은 우선 관광 콘텐츠로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는 온통 뒤따라 하기, 제주와 무관한 콘텐츠 개발에 매달려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어도의 이야기를 테마화한 관광지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제주다운 멋들어진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어도의 관광 콘텐츠화는 제주다운 문화관광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제주를 찾은 내외국인들이 이어도가 제주의 영원한 이상향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하는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천지연 계곡의 동선을 이용해 이어도의 목가적 풍광을 연출하는 것도 멋들어진 발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제주 여성 신화의 역기스인 생명의 서천 꽃밭을 활용한다면 그 가치는 환상적일 수 있겠다. 천도복숭아 나무 사이를 거니는 동자들의 모습, 정자에서 백발노인들이 바둑 두는 모습, 한가로이 떠다니는 작은 배 자연을 숭상하는 도가사상의 이어도 풍광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야간에는 조명을 이용해서 환상적인 이어도를 연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어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기획도 이어도의 보편적 이미지를 확산시켜나가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상징물 설치 공간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 방편이 될 수 있다. 앞서 제시했듯이 제주 여성 신화 생명의 서천 꽃밭을 활용해서 뮤지컬, 불꽃 축제, 조명축제 등을 연출한다면 획기적인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 문학작품으로 재탄생

2-1.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 활용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방안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고동지 설화를 배경으로 한 동화나 그림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난해 이어도연구회에서는 이어도 그림책을 발간한 바 있다. 그림책 제작 보고회가 있었지만, 발주처인 이어도연구회와 그림책 제작 팀 간에는 상당한 설전이 오갔다. 그림책 제작팀에서는 그림책이 가진 일반화에 치중했고 이어도연구회에서는 이어도가 가진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어도에 관련된 수많은 학자와 연구자들 누구도 이어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워한다.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그러한 면에서 이어도가 가진 특수성에 참신성과 흥미를 더해 보편적 가치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안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의 원형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수행되는 스토리텔링은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원형적(Archetypal) 이야기들을 어떻게 가공하는가에 따라 단계별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원형적 이야기란 스토리텔링의 지표, 근본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소재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의 캐릭터의 개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원형적 이야기가 완성된 캐릭터의 형태로 구현된 그것을 1차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며 1차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야기를 변용시키는 과정을 2차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스토리텔링의 이야기 확장성, 이야기의 창조적 재구성, 주체간 상호작용성, 향유의 지속성이라는 특징과 관련이 있다. 지자체의 지역 자산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자원을 스토리텔링의 과정을 통해 주민의 애착을 고취하고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서로의 상상력과 감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자산은 지역의 긍정적 요소와 유·무형의 자원, 구성원들의 재능, 사회적 연결망, 물리적, 경제적 자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연적(자연적/환경적), 구조적(공간적/시설적), 문화적(역사적/관광적), 사회적(인적/이미지), 경제적(기업체/노동력/생산물) 자산으로 세분되어 구분될 수 있다.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 자산 스토리텔링은 지역의 이야기 자원을 어떻게 발굴, 정리,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이야기 자원 '발견'

지역의 이야기 자원을 발견한다는 것을 아직 알려지거나 찾아내지 못한 지역 자신의 이야기 자원을 찾아내거나 지역자원 스토리텔링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이야기 자원을 선택하는 것을 뜻하며 탐색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이야기 자원의 '보존'

이야기 자원의 보존이란 수용의 단계로 지역에서 상징적 가치를 인정받는 이야기 자원들이 후세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탐색하여 발견한 지역의 이야기 자원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기존 이야기 자원들의 훼손된 가치를 복구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 이야기 자원의 '확장'

지역의 이야기 자원의 확장 개념은 응용의 단계로 지역의 이야기 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존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상충할 수 있는 과거와 현대의 가치 체계를 조정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확장된 지역의 이야기 자원은 본래의 의미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것, 스토리텔링 주체의 문화적 요구지점을 수렴한 결과이다.

- 이야기 자원의 '창조'

이야기 자원의 창조는 지역의 이야기 자원에 내포된 가치와 의미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의의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는 변용의 단계로 지역의 이야기 자원을 사회의 여건과 매체 환경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시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자산의 스토리텔링 과정은 지역의 이야기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심층적인 이해를 토대로 지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 이야기 자원 스토리텔링은 탐색단계에서 수용, 응용, 변용 단계로 진행되며 캐릭터를 콘텐츠로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지역의 이야기 자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다양성을 증진하고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 지역의 이야기 자원은 전설이나 민담처럼 실제로 존재하거나, 상상력을 통해 일정한 서사구조를 갖추거나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 추구하는 비전 등이 특정한 맥락의 이야기로 엮어질 때 지역주민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오랫동안 생명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캐릭터와 관련된 지역 이야기 자원을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개념화하여 이야기의 발화하는 부분

의 의미맥락을 분석하여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네 가지 범주는 캐릭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의 이야기를 구분하는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며 지역 자산의 이야기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스토리텔링으로 개발될 수 있다. 특정한 맥락으로 묶일 수 있는 줄거리와 전승력 있는 서사적 줄거리는 허구(Fiction)+실재(Non-Fiction) 이야기에 각각 포함될 수 있으나 세분화하여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몬스터 주식회사’ 등은 분명한 로마신화나 그리스신화 등 서양적 원형 및 고유성을 지닌 허구적인 줄거리에 광의의 이야기 범주라고 할 수 있다.⁵⁰⁾

2-2. 이어도 설화의 그림책

이어도에서 온 여인

1.

옛날, 제주 바닷가 마을 조천리에 고동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고동지는 아내 강씨와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고동지는 말을 키우는 말테우리였어요.

2.

고려 총렬왕 때부터 원나라는 제주에 목마장을 운영했어요.
그러나 정작 말을 돌보는 사람은 제주의 말테우리들이었어요.
한겨울에도 새파랗게 잘 자란 목초가 지천인 제주는 말들이 살기에 좋았어요.

3.

안개가 자욱한 어느 봄날,
말테우리였던 고동지는 한라산으로 내달린 말을 쫓아갔어요.
도망친 말을 찾아 한라산 자락을 헤매던 중, 고사리를 꺾고 있는 강씨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강씨는 새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늙은 아버지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50) 이승영 (2018). 지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 이야기 자원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2), 549~560

4.

탐라 때부터 제주는 여러 나라와 해상무역을 하였습니다.
 고동지 아내 강씨는 대정 해상상인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의 세기나 방향으로 바닷속을 점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강씨는 남자 못지않게 힘이 세서 동네의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부지런하고 늙은 시아버지를 잘 봉양한다고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어요.

5.

가을이 오자 고동지가 기른 말들은 살이 통통하게 올랐어요.
 이렇게 잘 기른 말은 원나라에 진상해야 했어요.
 고동지는 국마진상⁵¹⁾ 떠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배에 말을 싣고 바다를 건너기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뱃길이 험해 배에 한가득 말을 싣고 바다를 건너는 일은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일이었
 어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 자라의 밥이 되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부모를 봉양할 아이라 하여 기뻐하고
 아들을 낳으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자라의 밥이 될 거라 여겨 슬퍼하였어요.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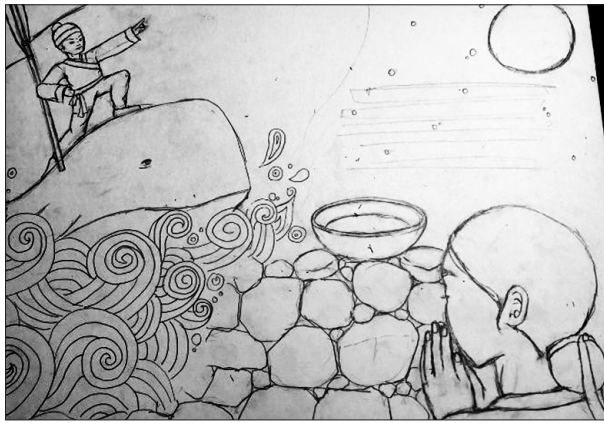
고동지가 국마진상을 떠나야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강씨 부인은 새벽 별빛을 머리에 이고 나가 십리 길을 걸어 물을 길으러 갔어요. 등에
 물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밝기 시작했어요.

“바다에 사는 용왕님네,
 한라산의 산신님네,
 우리 낭군 고동지가 무사히 말을 싣고
 남풍에 돛을 달고
 고래의 등을 타고
 집채만 한 파도를 뚫고
 이어도를 무사히 지나?
 머나먼 원나라까지
 무사히 말을 싣고 가게 해주소서.

51) 원간섭기때 제주에 원의 목마장이 있었고 잘 기른 말을 원에 진상해야 했다.

제주로 오는 길에는
순풍에 돛을 달고
자라의 등을 타고
이어도 여인들의 손짓을 마다하고
여기 조천포까지
바람길로 한걸음에 돌아오게 해주소서.”

강씨 부인은 돌담에 정화수를 올려놓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무사귀환을 비는 강씨 부인

7.

이제 내일이면 고동지가 국마진상을 떠나야 했어요.

강씨는 버선 한 켤레와 초신 한 켤레를 내놓았습니다.

“서방님! 우리 친정 동네에서는 뱃길을 떠나 돌아오지 않은 남정네들이 허다했습니다. 남정네들이 뱃길을 떠날 때, 여인들은 시집을 때 입고 온 속치마로 지아비의 버선을 지었답니다. 풍량이 일 때라도 얼른 그 버선을 머리에 뒤집어쓴 사람은 죽어서 혼이라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이 초신⁵²⁾은 산굼부리에서 꺾은 억새에 내 머리칼을 잘라내어 한데 섞어 꼬아 지은 초신이에요. 서방님! 이 초신을 신고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정성 들여 만든 버선 한 켤레와 초신 한 켤레를 받아든 고동지는 힘껏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고동지와 강씨는 달빛 아래서 흐르는 눈물을 서로 닦아 주었어요.

52) 풀로 만든 신으로 짚신을 일컫는 말이지만 제주에서는 짚신 대신 억새로 만든 신을 신었다.

8.

국마진상은 용천수가 풍부하고 꽃이 완만하여 풍량을 막아주는 조천포에서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조천포에 모여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 국마진상을 떠나는 고통지 일행을 배웅했습니다.

9.

예부터 제주 사람들은 한라산에서 남서쪽으로 300리 너머에는 바닷길이 험한 이어도라는 섬이 있다고 하였어요.

이어도만 잘 지나가면 중국이 가까워진다고 하였지요.

이어도는 여인들만 사는 여인국이었어요. 이어도에는 공녀로 끌려간 여인들이 중국으로 가기 전 몸을 던져 그 혼들이 지나가는 뱃사람을 쉽게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다행히 날이 좋은 날, 여인들의 혼을 잘 달래 이어도만 무사히 건너면 중국의 바다에 닿을 수 있다고 전해졌지요. 그렇게 열흘쯤 지나면 배는 무사히 강남땅에 닿을 수 있었어요.

10.

고동지와 마을 사람 여럿은 말을 잔뜩 신고 순풍에 돛을 달고 뱃길을 떠났어요. 뱃길로 옛새를 지나 이레째 되는 날이었어요. 300리를 지나고도 70리쯤 되는 곳에 다다르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어요. 캄캄하게 어두워진 바다에 안개까지 끼어 지척을 구별할 수 없었어요. 삼대같이 굵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성난 파도가 한라산보다 높이 일어났어요. 고동지는 그 순간 얼른 아내의 말을 떠올렸어요. 재빨리 신고 있던 버선을 벗어서 머리 위에 뒤집어썼어요. 두 눈을 감은 고동지는 바닷속으로 깊이깊이 가라앉았습니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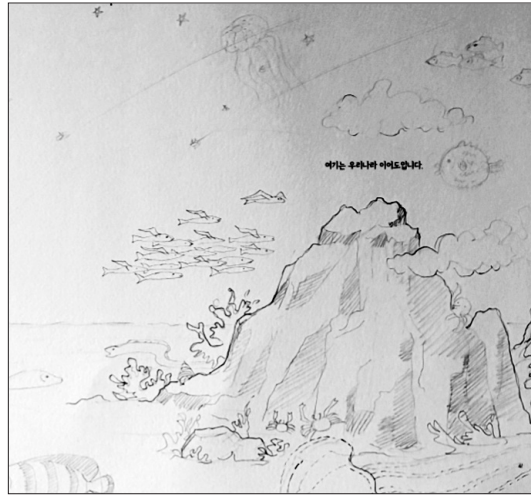
며칠이나 지났을까, 눈부신 햇살이 깊은 바닷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고동지가 깨어나 보니 선녀처럼 어여쁜 여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여기는 이어도입니다.”

선녀처럼 고운 여인들이 잠자리 날개처럼 가벼운 옷을 입고 날마다 진수성찬으로 고통지를 섬겼어요.

하지만 고통지는 자나 깨나 고향의 아내 생각뿐이었어요.



바닷속 아래 있는 이어도

이어도는 바닷속 깊은 곳에 있었어요. 아내가 사는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풍량이 높게 이는 날 바위 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어요.

날이면 날마다 고동지는 바위 위를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한참 흐른 어느 날, 고동지는 드디어 이어도의 파도를 거슬러 올라 바위 꼭대기에 앉을 수 있었어요. 파도가 휘몰아치는 날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바위에 올라앉아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정작 돌아갈 배가 없었습니다. 풍량이 세게 일었기에 이어도를 오가는 배들은 모두 풍량에 휘말려 흩어지고 말았어요. 고동지는 멀리 고향 바다를 바라보며 피리를 불었어요. 날이 갈수록 고향에 있는 가족이 그리웠어요. 떠나올 때 아내 배 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났는지 무척 궁금하였어요. 가족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을 피리를 불며 달랬고 피리 소리를 듣던 이어도의 여인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2.

이어도 허라 이허도로라.
이에, 이허 이허도러라.
이허도 가면 나 눈물 난다.
이허 말은 마라서 가라.
울며 가면 남이나 웃나
대로한 길 노래로 가라

강씨는 멧돌을 돌리다 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동지가 떠날 때 배 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 어느새 열 살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강씨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시나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강씨는 어린 아들에게 고동지가 국마진상 떠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버선을 지어줬으니 아버가 풍랑 중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버선을 벗어 머리에 썼다면 이어도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3.

어느 봄날, 강씨는 시아버지에게 배를 한 척 지어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님. 배를 한 척 지어주세요. 제가 이어도에 가서 남편을 찾아오겠습니다.”

“얘야, 무슨 수로 배를 짓는단 말이나? 배 한 척을 짓기가 집 석 채 짓기보다 어렵다는 말을 모르느냐? 또 그럴 돈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나?”

“아버님 돈 걱정은 마세요. 제가 시집올 때 가져온 돈도 있고 물질을 해서 모은 돈으로 배를 지을 샀은 충분합니다. 아버지는 선흘곳에서 삼십 년 이상 잘 자란 동백나무를 베어다가 튼튼하게 배를 지어주세요.”

강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개! 이어도에 간 사람들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단다. 이어도로 가면 너는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남은 어린 아들과 이 늙은 시아버지는 어찌 살란 말이나. 이곳은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돌밭을 일궈야 겨우 조밥이나마 먹을 수 있지만, 이어도에 가면 날마다 연꽃 위에 앉아서 쌀밥을 먹으며 편히 산다고 하지 않더냐? 고동지는 이어도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너는 어린 아들을 잘 보살피거라.”



강씨 부인의 캐릭터

14.

시아버지의 만류에도 고동지의 아내 강씨는 기어이 배를 지어 혼자서 배를 타고 이어도를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폭풍우가 치는 날에는 폭풍우를 맞았습니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한쪽 손에 테왁을 메고
한쪽 손에 비창을 들고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칠성판을 등에다 지고
한질 두질 들어가 보낸
저승문이 눈앞이로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강씨는 오로지 고동지를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거친 바다를 헤쳐나갔습니다.

15.

해상상인의 딸인 강씨는 배를 타 본 경험이 많았습니다. 강씨는 거침없이 이어도로 배를 저어 갔습니다. 대엿새가 지나고도 반나절이 더 흘렀을 때 서쪽 바다가 붉은 노을로 덮였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희미하게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대나무를 깎아 만든 피리로, 남편이 불던 피리 소리였습니다. 강씨는 자못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강씨는 울부짖었습니다. 피리 소리를 듣자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그동안 홀로 살아온 세월의 설움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16.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파도가 치는 바위 위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고동지도 아내 강씨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아니, 당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소?”

고동지와 강씨는 반가움에 서로 멀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이어도에 있던 여인들도 너울대는 파도 속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강씨는 반가움과 놀라움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파도로 소금꽃이 피어나는 이어도

17.

강씨가 눈을 떴을 때는 고동지 품에 안겨있었습니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고동지 어깨 너머엔 수백 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강씨는 어찌 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고동지는 국마진상하러 가던 중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었고 아내의 말을 떠올려 재빨리 갓을 벗어 던지고 버선을 벗어 머리에 썼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깨어나 보니 이어도였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야 강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동지는 국마진상을 떠나던 그때의 모습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나라 관리처럼 귀티가 줄줄 흘렀습니다. 이어도의 여인들도 하나같이 아리따운 여인들이었습니다.

18.

고동지는 강씨 손을 잡고, 이어도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었습니다. 이어도는 전해오는 이야기처럼 그야말로 곡락세계였습니다. 대궐 같은 집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향아리마다 쌀과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고향에 있는 아들 생각에 어서 남편이랑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씨는 고동지에게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부인! 나라고 왜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소. 그러나 여기에 온 이상 제주로 돌아갈 방법이 없대요. 나도 돌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오. 부인이 타고 온 배는 이미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대요. 지나가는 배를 얻어 타 보려고 날마다 물살을 거슬러 올랐지만, 소용이 없었대요.”

강씨는 남편을 만난 것은 기뻐지만 고향에 있는 시아버지와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19.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씨는 여인들의 우두머리를 찾아가 사정을 하였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돌아갈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강씨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자식이 없지만, 나에게는 어린 아들과 늙은 시아버지가 있어요.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저를 돌려 보내주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20.

이어도의 여인들은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여인들은 원나라에 공녀로 끌려가다가 바다에 몸을 던져 이어도에 와서 살게 된 여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사는 곳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풍랑으로 수중고혼⁵³⁾이 될 처지에 이른 고동지의 목숨을 살려준 곳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동지는 오직 고향의 아내 생각에 이어도의 여인들을 품지 않아 아직도 여자들만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동지가 이곳에 있는 여인을 품어 생명을 잉태하게 해준다면 돌아갈 길을 찾아 주겠노라고 하였습니다.

21.

아내 강씨는 고동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도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직 탐라는 몽골 놈들의 횡포로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귀한 쌀이 그득하고 저토록 고운 여인들이 당신을 극진히 모시니 어찌 고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자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곳에 온 당신은 떠나 올 때보다 더 젊어진 모습이고 저는 당신보다 10년은 더 늙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버님은 누가 모시며 또 당신이 떠나올 때 배 속에 있던 어린 아들은 누가 돌보나요? 저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저 여인들을 품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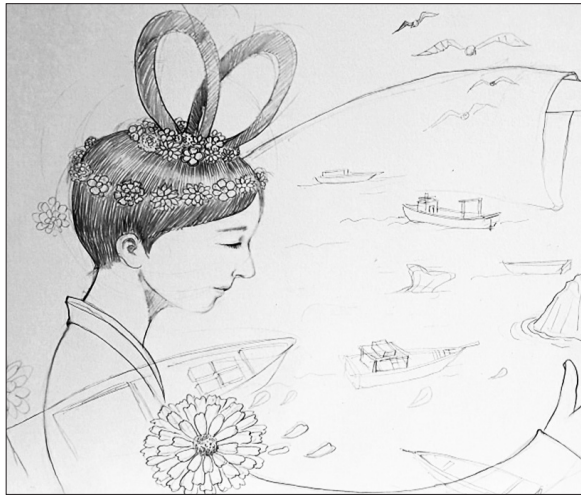
53)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외로운 넋.

22.

결국, 고동지는 여인들의 강권에 못 이겨 주저앉기로 하고, 아내만이라도 고향으로 안전하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어도의 여인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비단 치마를 벗어서 밧줄을 꼬더니 순식간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씨를 배에 앉혔습니다.

“부인께서는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거든 이것을 팔아 살림에 보태세요.”

이어도의 여인들은 각자 목에 걸린 목걸이를 벗어 강씨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러앉아 주문을 외웠습니다. 강씨 부인은 제발 집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눈을 꼭 감은 채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감았던 눈을 떴더니 어느새 조천포구에 다다랐습니다.



이어도에서 돌아온 여인

23.

강씨 부인은 이어도 여인들이 목에 걸어 준 각종 금은보화를 팔아 넓은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어먹게 하였습니다. 이어도에서 배를 만들어 타고 온 비단을 팔아 ‘당(堂)⁵⁴⁾’을 만들었는데 그 당 이름이 ‘장귀동산당’입니다. 강씨 부인은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이 무사할 수 있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고기잡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는 이어도에 가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랐습

54) 당(堂)-당집의 준말

니다. 강씨 부인이 이어도에서 돌아온 후 마을에는 평화와 부귀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강씨 부인을 '이어도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으로 '여뒫할망'이라고 부르며 잘 받들어 모셨습니다.



이어도는 죽은자들의 이상향

2-3. 이어도 설화의 동화책

이어도에서 온 여인

몽골의 침입

제주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습니다. 원나라는 충렬왕 2년 제주에 목마장을 만들었습니다. 제주에 몽골인 목호를 두어 목마장을 운영했습니다. 제주에서는 한 겨울에도 새파랗게 잘 자란 목초가 지천이었습니다. 말들이 마실 물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말들이 먹을 풀을 찾아 유목민 생활을 하던 몽골인들에게 제주는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을 돌보고 키우는 사람은 제주 토박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말을 매년 중국 원나라에 진상해야만 했습니다.

원나라의 지배를 받기 전 탐라 시대 제주 사람들은 해상무역 활동을 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초원의 작은 부족에서 일어난 몽골군은 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하더니 말머리를

고려로 향했습니다. 말을 타고 전쟁터를 누비던 몽골군의 군사력은 이전에 고려를 침입해오던 거란이나 여진족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몽골군은 고려 사람들을 보는 족족 잡아서 먹는다느군.”

“아이고, 어디 그뿐인가? 그놈들은 사람 몸에서 짜낸 기름에 불을 붙여 공격한다느군.”

백성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들의 야욕으로 고려의 산천은 몽골군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몽골군이 지나간 마을마다 집들이 불에 타 폐허가 되었고 참혹한 백성들의 시체가 나뒹굴었습니다.

최씨 무신정권은 몽골에 맞서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수많은 대신과 백성들은 수도를 옮기는 일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왕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무신정권의 수장 최유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200년 도읍지 개경을 버리고 강화로 떠나는 날, 백성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몽골군의 침입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몽골과 오랜 전쟁으로 백성들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한데 모이기 위해 대장경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불교의 힘을 빌려서라도 몽골군을 무찌르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몽골군의 공격은 한층 심해졌고 백성들은 죽을 힘을 다해 몽골군에 저항하며 처절한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힘없는 고려 백성들의 끈질긴 항쟁에 결국 몽골군도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조건을 내걸며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과 고려왕이 직접 원나라 황제를 알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려왕 고종은 몹시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 기회에 최씨 무신정권을 몰아내고 개경으로 돌아가 왕권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려와 몽골이 강화를 맺음으로써 무려 60여 년간 계속됐던 최씨 무신정권은 드디어 붕괴하였습니다.

삼별초 항쟁

고려왕 고종은 백성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돌아왔고 몽골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고려인들은 서로를 감싸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의 횡포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선 군대 해산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고려 정부는 최씨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던 삼별초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신 정변 이후 백성들의 삶은 날로 고단해졌습니다. 생활고에 쫓기던 농민들과 천민들은 도적 떼가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최유가 만든 특별부대가 바로 삼별초였습니다. 하지만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뒤에는 최씨 정권의 사병집단이 되어 그들의 호

위무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려 정부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고 최씨 정권이 무너지자 삼별초의 군사들은 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군대 해산 명령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백성들은 한낱 최씨 정권의 사병인 삼별초의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백성들과 군졸들은 왕을 따라 섬을 떠났습니다. 삼별초의 지휘관들이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바닷길을 건너 진도로 근거지를 옮겨 또 하나의 고려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삼별초는 더 이상 고려조정기의 반란군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과 힘을 합해 몽골군의 횡포에 대적하여 싸우는 투쟁군이었습니다. 남해안과 전라도 일대의 백성들은 이런 삼별초의 항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고려 정부와 몽골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공격에 쫓겨 삼별초는 근거지를 탐라로 옮겨오게 됩니다.

평화롭던 탐라에 삼별초가 들어오자 탐라 사람들의 삶은 끝도 없이 힘겨워졌습니다. 관군에 맞서 3백 리가 넘게 환해장성을 쌓느라 동원되어야만 했습니다. 척박한 땅에 2천 명이 넘는 삼별초 군이 점령하자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삼별초가 주둔한 향파두리성을 쌓을 때는 굶주린 백성들이 자기가 누운 똥을 집어 먹을 정도로 삶이 망가졌습니다. 고려는 몽골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을 해왔고 탐라는 여몽 연합군의 공격으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탐라 사람들은 삼별초와 여몽 연합군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삼별초도 연합군도 탐라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삼별초는 여몽 연합군의 강력한 공격에 맞서 힘껏 싸웠지만, 대장 김통정이 붉은오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4년에 걸친 삼별초 항쟁이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나라는 삼별초를 진압한 공을 내세워 제주에 탐라총관부를 세웠습니다. 송나라와 일본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탐라를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는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 고려의 군사를 강제로 동원하고 고려왕을 원나라 공주와 결혼시켰습니다. 이제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되어 원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나라는 또 해마다 금, 은, 베, 인삼, 약재, 매 등의 특산물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도감을 설치하여 고려 처녀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열한 살부터 열다섯 살까지의 처녀가 결혼하려면 반드시 관청에 신고하도록 했고, 만약 어기고 몰래 결혼하면 큰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원나라에서는 일 년에 몇 번씩이나 예쁜 고려 처녀들을 뽑아갔습니다. 원나라 관리의 아내나 궁녀가 되어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녀나 몸종이 돼서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말테우리 고동지

고동지는 육척의 장신으로 동쪽 바닷가 마을 조천리에서 말을 키우는 말테우리였는데, 말 두 마리를 한 손으로 번쩍번쩍 들어 올릴 정도로 힘이 세고 달리는 말에서도 고삐를 잡지 않은 채 한라산 중턱까지 한달음에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고동지는 좋은 말을 키우기 위해 잘 자란 목초와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고동지가 키우는 말의 오른쪽 엉덩이에는 고동지의 성을 따서 高자로 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에는 잃어버린 말을 찾아 한라산 깊은 곳까지 헤매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늘이 높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말들이 순식간에 산을 넘어 표선으로, 한림으로, 서귀포로 달렸습니다.

“호이이! 호이이!” 고동지는 재빨리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말들은 바로 방향을 틀어 고동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여아 어려령! 어형 어려려 허엇! 워러려려려 이너리 말 엉어엇! 워러려려!”

집으로 돌아갈 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300여 마리의 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풀을 뜯다가도 고동지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고동지가 키운 말들은 모두 최고의 품질을 받은 갑마(甲馬)들이었습니다.

몽골인 목호 하치는 갑마(甲馬)를 원나라에 진상하고 큰 벼슬을 얻어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치는 원나라로 돌아가면서 고동지에게 말 한 필을 선물하였습니다. 그가 선물 받은 말은 털이 검은 흑마였습니다. 갈기가 바람에 휘날리면 기품이 흘렀습니다. 고동지는 그 말에게 ‘거문돌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고동지와 거문돌이는 한 몸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이웃 사람의 밭을 갈기도 하고 씨를 뿌리면 밭을 밟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동지와 거문돌이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어느 봄날 거문돌이는 고동지를 등에 태우고 한달음에 한라산을 넘었습니다.

“호이이! 호이이!”

고동지는 재빨리 휘파람을 불어 말을 제지했지만 거문돌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차게 달렸습니다. 산 속 깊은 곳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는 한 여인 앞에서 거문돌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 고동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강정마을의 해상상인 강대인의 딸인 강씨 여인은 이렇게 인연이 되어 고동지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국마진상을 떠나는 고동지

고동지는 강씨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늙은 아버지를 잘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얼마 지나

지 않아 예쁜 딸까지 낳아 그 딸이 어느덧 아홉 살이 되었습니다. 강씨는 힘이 남자 저리 가라 하게 세서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동네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 일을 해결했습니다. 시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부지런하여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해가 뜨면 들로 나가 돌밭을 일구다가 물때에 맞춰 바다에 나갔습니다. 또한, 해상무역을 하던 친정아버지의 영향으로 바람의 방향을 보고 파도의 세기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멀리 고기잡이를 나갈 때는 강씨를 찾아와 바다에 나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아내 덕분에 고동지 가족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나라의 관리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집집이 돌아다니며 처녀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말총, 전복 등 온갖 진상품도 모자라 이제는 어린 여자아이까지 진상해야만 했습니다. 공녀는 원나라가 요구한 또 하나의 공물이었습니다. 고려에 사신으로 오는 자들은 모두 고려의 아리따운 여인을 욕심내고 한 여자를 데려갈 때마다 수십, 수백 집을 뒤졌습니다. 수천 명의 고려 여인들이 인간 공물, 공녀가 되어 중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공녀로 뽑히면 부모와 친족들이 서러움에 곡을 터트렸는데 그 울음소리의 울림은 담장을 허물고 나무뿌리를 흔들었습니다. 공녀로 뽑혀 떠나는 날이면 울부짖다가 비통하고 억울한 마음에 스스로 목을 매 죽는 이도 있었습니다. 막강한 중국의 위협에 공녀를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몽골사람 반, 제주 사람 반인 탐라에서는 몽골인의 횡포에 맞서 공녀로 끌려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딸이 있는 것을 감출 수 있으면 감추는 것이 최고의 방도였습니다. 살림 밀천이라던 딸의 출생은 이제는 더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원으로 끌려간 공녀들은 원나라 황실의 궁녀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중국으로 보내진 공녀는 기생으로 팔려가 처참한 생활을 하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멀리 타국에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어갔습니다. 고동지에게도 아홉 살 된 딸 달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스로 공녀로 끌려가는 것을 면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언제 공녀로 끌려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동지는 어떻게 하면 달래를 지킬 수 있을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나라 관리 하치를 따라 국마진상을 다녀오면 달래가 공녀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약조를 받았습니다.

마을에서는 남정네들이 배를 만드느라 한창이었습니다. 말을 실으려고 만든 배는 고기잡이배와는 모양이 달라야 했습니다. 많은 말을 싣고 떠나야 했기에 배 너비는 서른 자, 너비가 열 자, 깊이 또한 말이 서기에 충분하게 석 자가 넘었습니다. 널판은 나무뭇으로 이어져 삼베로 만든 엄청나게 높은 돛대 두 폭이 달렸습니다. 배 밑바닥에는 말들이 움직여도 배가 뒤집히지 않게 큰 돌을 주워 깔았습니다.

조천포는 용천수가 풍부하고 풍랑을 막아주는 곳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으로 무역을

떠날 때도 이곳 조천포에서 떠났습니다. 강씨는 해상상인의 딸이었던지라 중국으로 가는 길 반절이 미치지 못한 탐라 땅에 이어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도 해역은 험난한 뱃길이었습니니다. 떠날 날이 다가오자 아침 일찍 일어나 용천수에서 떠온 물로 목욕을 하고 바닷가를 향해 빌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달래의 눈에서도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다에 사는 용왕님네, 이어도에 사는 용왕님네. 부디 우리 남편 고동지가 무사히 말을 싣고 진상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드디어 내일이면 고동지가 국마진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포구에서 출발하면 열흘 이상 망망대해를 항해야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마을 사람들은 국마진상을 떠나는 고동지를 위해 날 씨를 살피고 풍량이 없도록 돼지를 잡아 제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강씨는 고동지에게 곁게 지은 버선과 초신을 내놓았습니다.

“달래야방! 내일 떠나면 언제나 돌아올까요? 우리 친정 동네 대정에서는 아내 속곳으로 지은 버선을 싣고 배에 오르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록 낡은 천으로 지은 것이지만 싣고 가세요. 만일 풍량이 일거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갓을 벗어 던지고 재빨리 버선을 벗어 머리에 쓰세요. 그러면 용왕님이 머리에 버선을 쓴 사람이 갓을 바친 것으로 알아차리고 목숨을 구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방님은 이어도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초신은 산굼부리 역새풀을 베어다가 내 머리카락을 섞어서 몇 날 며칠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새겼습니다. 이 갓은 거문돌이의 갈기로 만든 것이니 이 갓을 쓰고 가세요. 영험한 거문돌이가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부인! 고맙소. 이런 호강이 어디 있겠소. 태어나 처음으로 고관대작들이 쓰는 것을 써보다니 이제 죽은들 뭐가 아쉬울 것이 있겠소. 당신이 머리카락을 잘라 신으로 삼아주다니! 내 어찌 부인의 머리카락으로 지은 신을 수가 있겠소. 가슴 속에 고이 품고 가리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구려. 이번에 원에 다녀오면 달래를 구할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오. 국마진상을 마치고 돌아오면 목마장 옆에 붙은 조발 한 뼨기도 받기로 하였소. 이번 일만 잘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우리도 배곯지 않고 살아갈 날이 올 거요. 배 속에 있는 아이는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으면 좋겠소. 그동안 아버님 모시고 잘 지내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오.”

고동지는 아내 강씨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고동지의 품에 안겨 강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배 가득 말을 싣고 원나라로 떠나는 고동지를 배웅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포구에 모여들었습니다. 남편을 배웅하는 강씨는 눈물을 삼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린 달래도 어머니의 치마폭에 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그저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배가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북쪽의 산둥(山東)에 가기 위해 배는 섬의 서남

쪽 대정의 모습포에서 하루 묵어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배는 망망대해를 순항해서 갔습니다. 사나흘이 지났을까? 갑자기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풍량이 일자 말들이 날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일자 말을 가득 실은 배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졌습니다. 고동지는 아내 강씨의 말을 떠올리며 갓을 벗어 던지고 재빨리 물에 젖은 버선을 벗어 머리에 뒤집어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신을 잃고 물속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고동지가 눈을 떴을 때는 수많은 여인이 고동지를 둘러싸고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려 보았습니다. 고동지는 깜짝 놀라 주변을 휘둥그레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여기는 이어도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나는 아직 탐라 땅을 벗어나지 않았구려.”

“맞습니다. 여기는 탐라 땅 이어도입니다.”

선녀처럼 고운 여인들이 잠자리나비처럼 가벼운 옷을 입고 날마다 진수성찬으로 고동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고동지는 자나 깨나 고향의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늙은 아버지와 어린 딸 달래를 생각하며 제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어도는 바닷속 깊은 곳에 있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는 풍량이 높게 이는 날 바위 끝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고동지는 날이면 날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바위 위를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한창 흐른 어느 날, 고동지는 이어도의 바위 꼭대기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파도가 휘몰아쳤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바위를 붙들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배가 없었습니다. 풍량이 세계 일었기에 오가는 배도 모두 풍량에 휘말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고동지는 멀리 고향 바다를 바라보며 피리를 불었습니다. 고동지는 고향에 있는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떠나올 때 배 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났는지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이어도의 여인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동지를 찾아 이어도로 떠나는 강씨 부인

한편 고동지 아내 강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이 아니라 아들인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고동지가 국마진상을 떠날 때 아홉 살이던 달래의 나이도 어느덧 열아홉 살이 되었습니다. 국마진상을 떠난 고동지 덕분에 달래는 공녀로 끌려가지 않고 어머니를 도와 물질도 하고 밭도 매며 아무진 살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때문에 국마진상을 떠난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달래는 주눅이 들어 점점 말을 잃어 갔습니다. 말을 잃은 달래는 혼기를 놓치고 그저 새벽을 기다려 일을 하고 날이 저물도록 일을 했습니다.

이어도 허라 이허도러라.
이허, 이허 이허도러라.
이허도 가면 나 눈물 난다.
이에 말은 마라서 가라.
울며 가면 남 이나웃나
대로한 길 노래로 가라

〈그림 V-1〉 멧돌을 갈면서 부르는 이어도 노래



강씨는 멧돌을 돌리다 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아들 마농이가 멧돌을 갈고 있는 강씨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나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강씨는 어린 아들에게 고통지가 국마진상 떠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버선을 지어줬으니 아버지가 풍랑 중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버선을 벗어 머리에 썼다면 이어도에 가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 이어도는 어디인가요?”

아들은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는 어머니 강씨에게 물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중국으로 가는 뱃길 중간 못 미친 곳에 이어도가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어도는 중국으로 가는 배이건 제주로 오는 배이건 이어도까지만 무사히 가면 우선 안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이어도까지 무사히 갈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이어도는 조공도 안 바치고, 공녀도 안 바쳐도 되는 곳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돌밭을 일구지 않아도 연꽃 위에 앉아서 곤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라도

좋은 곳에 살 수 있도록 울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들은 날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달래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 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아 더욱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보다 못한 강씨는 시아버지에게 배를 한 척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배 한 척만 지어주세요.”

“배는 지어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이제 마농이도 아홉 살이 지나 열 살이 다 되어 갑니다. 언제까지 아버 없는 자식으로 기를 순 없습니다. 제가 배를 타고 가서 남편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부질없는 짓이라며 말렸지만, 강씨의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도 거문돌이와 밭을 갈아주기도 하고 씨를 밟아 주기도 했던 고 동지가 돌아오지 않아 농사짓기가 힘들어 고동지의 귀환을 함께 바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끈질긴 며느리의 청에 어찌지 못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선흘곶까지 가서 베어 온 나무로 힘을 모아 배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강씨는 남편을 찾아 홀로 배를 타고 이어도로 향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분명히 남편이 이어도에 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어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잘도 간다
진도바다 어서나 가자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한쪽 손에 테왁을 메고
한쪽 손에 비창을 들고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칠성판을 등에다 지고
한질 두질 들어가 보난
저승문이 눈앞이로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그림 V-2〉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상



강씨 부인은 해상상인의 딸로 배를 타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남편을 찾아 배를 저어 갔습니다. 망망대해에 홀로 노를 저어 가다 보니 남편 없이 마놓이를 낳던 일과, 삐죽삐죽 눈치를 보던 달래, 아무 말 없이 바닷가에 나가 앉아 하염없이 앉아 있던 시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고동지가 국마진상을 위해 중국으로 떠나고 난 후에도 마을 처녀들이 공녀로 끌려갔습니다. 갈수록 극심해진 원나라 관리들의 수탈에서 늙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어린 자식을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은 달래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달래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국마진상을 떠나 돌아오지 못하는 사실에 죄인처럼 말을 잃어 갔습니다. 달래는 강씨 부인 못지않게 일을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물을 길어다 놓고 해가 뜨면 돌밭을 일구러 밭으러 나갔습니다. 밭일하다가도 물때에 맞춰 바다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달래가 한푼 두푼 돈을 모은 덕택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흐르며 바닷물인지, 눈물인지 모르는 잔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에도의 여인들

사나흘이 지나고 반나절이 흘러 서쪽 바다가 붉은 노을로 덮였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 희미하게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분명히 시아버지가 한라산에서 나는 대나무를 깎아 만든 피리로 남편이 불던 피리 소리였습니다. 강씨는 자못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달래 아방!”

“달래 아방!”

강씨는 울부짖었습니다. 피리 소리를 듣자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그동안 홀로 살아온 세월의 설움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파도가 치는 바위 위에 남편이 앉아 피리를 불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고동지도 아내 강씨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달래 어멍!”

“여기까지 어떻게 왔소?”

고동지와 강씨 부인은 반가움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이어도에 있던 여인들도 너울대는 파도 속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강씨는 반가움과 놀라움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강씨가 눈을 떴을 때는 고동지 품에 안겨있었습니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고동지 어깨너머로 수백 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보였습니다. 강씨는 어찌 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고동지는 국마진상하러 가던 중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었고 아내의 말을 떠올려 갓을 벗어 던지고 버선을 벗어 머리에 썼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깨어나 보니 이어도였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니 고동지는 국마진상을 떠나던 그때의 모습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나라 관리처럼 귀티가 줄줄 흘렀습니다. 이어도의 여인들도 하나같이 아리따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고동지는 강씨 손을 잡고서 이어도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었습니다. 이어도는 전해오는 이야기처럼 그야말로 극락세계였습니다. 대궐 같은 집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향아리마다 쌀과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고향에 있는 자식들 생각에 어서 남편이랑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씨는 고동지에게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부인! 나라고 왜 그 생각을 안 했겠소. 그러나 여기에 온 이상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나도 돌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오. 이미 부인이 타고 온 배는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어요. 지나가는 배를 얻어 타 보려고 날마다 물살을 거슬러 올랐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강씨는 남편을 만난 것은 기뻐지만 고향에 있는 시아버지와 자식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씨는 여인들의 우두머리를 찾아갔지만,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돌아갈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강씨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자식이 없지만, 나에게도 자식이 있어요.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저를 돌려 보내주세요. 당신들에게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어도의 여인들은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여인들은 원나라

로 끌려가다가 이어도에 와서 살게 된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살고 있어 풍랑으로 수중고혼이 될 처지에 이른 고동지의 목숨을 살려 주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동지는 오직 고향의 아내 생각에 이어도의 여인들을 품지 않아 아직도 여자들만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동지가 이곳에 있는 여인을 품어 생명을 잉태해준다면 돌아갈 길을 찾아 주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아내 강씨는 고동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도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직 탐라는 몽골 놈들의 횡포로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귀한 쌀이 그득하고 저토록 고운 여인들이 당신을 극진히 모시니 어찌 고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자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곳에 온 당신은 떠나 올 때 그 모습이고 저는 당신보다 10년은 더 늙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버님은 누가 모시며 또 우리 달래와, 당신이 떠나올 때 배 속에 있던 아들 마농이는 누가 돌보나요? 저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저 여인들을 풀어주세요.”

결국, 고동지는 여인들의 강권에 못 이겨 주저앉기로 하고 아내만이라도 고향으로 안전하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어도의 여인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비단 치마를 벗어서 밧줄로 꼬더니 순식간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씨 부인을 배에 앉혔습니다.

“부인께서는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시거든 이것을 팔아 살림에 보태세요.”

이어도의 여인들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벗어 강씨 부인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러앉아 주문을 외웠습니다. 강씨 부인은 제발 집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눈을 꼭 감은 채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감았던 눈을 떴더니 어느새 조천포구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포구의 모습이 사뭇 자신이 떠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기를 보고도 아는 듯 모르는 듯 지나갔습니다. 이어도 여인들이 치마를 벗어 만들어 준 배는 물에 젖지도 않고 오색찬란한 고운 비단이었습니다. 비단으로 된 배를 머리에 이고 마을을 지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농아! 달래야! 아버님!”

그때 낯선 여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요?”

“아니 이 집은 우리 집인데, 여기 살던 마농이와 달래는 어디 갔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차근차근 말해 주시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강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하고 본인이 이어도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니다.

“고동지 어른이라 하면 우리 집안의 5대조 어른으로 고려 시대 때 살았던 어른이신데. 지금은 조선 시대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마을 어른을 불러오리다.”

그 집에 살던 주인은 마을 어른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이 낯선 여인이 고려적 조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동지 어르신은 그 옛날 고려 때 원나라로 국마진상을 떠났던 조상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동지 어르신을 찾아 나섰다가 이어도에서 돌아온 강씨 할망이라고 합니다.”

마을 어른은 어릴 때 그런 얘길 들은 적 있다며 강씨 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부터 이어도는 여인국으로 불리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었는데 인제 보니 원나라로 끌려간 공녀들이 이어도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원나라에 공녀로 끌려가다 몰살당한 여인들이 중국을 건너기 전 탐라 땅, 이어도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었다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강씨는 이어도 여인들이 목에 걸어 준 각종 금은보화를 팔아서 넓은 밭을 사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어 먹게 하였습니다. 이어도에서 배를 만들어 타고 온 비단을 팔아 당을 만들었는데 그 당 이름이 장귀동산당 입니다. 강씨 부인은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이 무사할 수 있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고기잡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는 이어도에 가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강씨 부인이 이어도에서 돌아온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강씨 부인을 이어도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으로 여뎃할망이라고 부르며 잘 받들어 모셨습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이어도는 제주해민들의 집단기억 때문에 재현되는 장소이다. 기억은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장치이다. 집단기억은 사회적 구성 틀, 특정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들 간에 자연발생적으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틀을 이루는 언어나 상징체계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닌 사회적인 증거라는 점에서 기억은 애초부터 집단으로부터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구성 틀을 통해 발생, 분배되는 집단기억은 공간을 통해서 실체화된다.

따라서 이어도라는 장소는 생활 체험을 토대로 인지되며 친밀감이나 거리감을 비롯한 여러 감정이 부여되어 상징적으로 의미화된다. 장소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 일정한 경계가 있는 현장으로서 정체성이 형성되고 유지되며 변형되면서 의미 있는 틀을 제공한다. 집단기억은 그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렇기에 집단 외부에는 배타적이며 내부에서는 동질성을 강화한다.

이어도가 실재하는 섬인지 아니면 단지 설화에 나오는 상상의 섬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제주 사람들은 예부터 이어도를 상상의 섬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어도에서 가서 잘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어도는 이승의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서 극락을 누리는 곳으로 상징함으로써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위안의 장소가 되었을 것이다. 제주 사람들은 실제로 이어도가 있다고 믿었다. 이어도가 실재한다는 믿음으로 제주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고 후세에 계속 전승시켜왔다.

이어도 설화의 스토리텔링은 옛 해양대국 탐라에 이어 제주에서 산 사람들의 생활사 측면에서 이어도를 재조명하여 스토리텔링 함으로써 이어도는 예로부터 제주인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장소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제 언

본 연구는 막연한 이어도의 공간적 거리를 문헌이나 구술되어 전해지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찾아보는 것으로 의의를 갖는다. 이어도는 제주에서 뱃길로 4~5일 걸렸던 곳이고 강남으로 가는길 절반쯤에 있다고 믿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륙사관으로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의 극동지역의 반도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를 낮게 평가했다. 그러나 해양사관으로 우리나라를 살펴본다면 우리나라는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어 지리적 위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고대 해양무역국가로서 버젓하게 주변국가 외교를 통해 자주국으로서 살아왔다. 4면이 바다인 제주의 지리적 특징으로 한반도는 물론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거리가 먼 곳까지 왕래하며 지냈다. 그런 제주가 한반도에 딸린 섬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상업이 왕성했던 고려시대와 달리 성리학을 받아들인 조선에서 농업국가를 표방했고 이로 인해 제주를 유배지 정도로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주는 고대 해양국가로서 당당히 자주국으로 살아오며 집채만한 파도가 이는 이어도를 오가며 무역을 했다는 자긍심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특히 이어도는 제주의 소중한 지역문화콘텐츠로 제주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브랜드 확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어도라는 공간에 깃들여 있는 우리 제주인들의 집단기억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어도의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많은 문학작품은 물론 영화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어 지역문화콘텐츠로서 빛나는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康奉玉, 「濟州島の民謡 五十首」, 『開闢』, 32, 1923
- 강정원, 「옹기 문화지도 작성에 대한 이론적 모색 - 문화 전파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논총』 3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8
- 김봉옥 · 김지홍,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 연합 제주도지회, 2001
- 김상헌, 홍기표 역, 『남사록』(제주: 제주문화원), 2009
- 김영순, 「공간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재구성과 공간스토리텔링」, 인문콘텐츠, 19, 2010
- 김영순 · 정미강, 「공간 텍스트로서 도시의 스토리텔링 과정연구」, 텍스트언어학 23, 2008
- 김영순 · 정미강, 「공간 텍스트로서 도시의 스토리텔링 과정 연구」 『텍스트언어, 학』 24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74, 2008
- 다카하시 도오루, 「民謡에 나타난 濟州女性」, 『濟州女性史料集Ⅱ』, (제주 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 2008
- 박광현, 「다카하시 도오루와 경성제대 ‘조선 문학’ 강좌 - ‘조선 문학’ 연구자로서의 자기 동일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40집, 2007
- 박진, 「스토리텔링 연구의 동향과 사회문화적 실천의 가능성」, 어문학, 122, 2013
- 백선혜, 「소도시의 문화예술축제 도입과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대한지리학회지 39-6, 2004
-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2019
- 송정란,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서울 문학아카데미, 2006
- 아서 프랭크, 최은경 옮김, 『몸의 증언: 상처 입은 스토리텔러를 통해 생각하는 질병의 윤리학』, 2013
- 이민정, 「이정춘 ‘이어도’의 토포필리아와 여성성 고찰」, 문화와 융합 제41권 2호
- 이석환 · 황기원, 1997: 최병두, 2002: Relph, 2005, 최인호 · 임은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장소마케팅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학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68), 한국관광학회, 2008
- 이승영, 「지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 이야기 자원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 한국디지털문화학회지, 24(2), 2018
- 이어도연구회, 『역사설화를 활용한 이어도 이해증진 방안연구』(사)이어도연구회 연구보고서, 2015
- 이용호, 『聽春漫稿』(기중족보사, 이태영 역), 1996
- 이용규, 「지역사회의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사례 분석」, 글로벌문화콘텐츠(37), 2018
- 이인화,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 살림출판사, 2005
- 이현정, 「제주도 구비서사물에 나타난 해상타계의 변주 양상과 의미」, 한국무속학회, 한국무속학 제36집, 2018

- 임화순, 「문학 공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연구」, 『탐라문화』 40(4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2
 제주발전연구원, 『탐라사의 재해석』
- 조정래, 「스토리텔링 육하원칙」 지식의 날개, 2010
- 한림화, 『제주도 전승 구비문학으로 본 이어도』, (사)이어도연구회 연구보고서, 2011
- 현경병 외,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 셋별D&P, 2010
- 현승환, 「섬 이동설화 고」, 『제주도연구』 제7집, 1990
-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잡문당, 2005
- 현행복 역, 『聽春漫稿』, 민음사, 2018
- 홍정표, 『제주도 민요해설』, 제주문화, 2001.
- Ian M.&John, G. H., How storytelling shapes memory and impressions of relationship events over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3),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Storytelling Method of leodo Island
- Focus on the placeness -

Society of leodo Research
Ju, Min-uk / Chio, Mi-kyoung

This study is aimed at awakening the importance of the value in terms of the life history of Jeju people through the leodo tales and deriving the placeness of leodo that appeared in the story.

By analyzing the text related to leodo tales, the space called leodo was found in the context of the tales, and the place was given the placeness and leodo was proved the existential value.

Through this study, the placeness of leodo was derived through text analysis based on leodo tales and one complete story was composed. As a result, the complete story revealed the truth that leodo was a place of life for Jeju people.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is three.

First, literary contents text was analyzed in the collected leodo tales.

Second, the story is composed of one stor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ales, and the situation was set up to express the life of Jeju people well and making it as a well-organized passage.

Third, In this study, through the literary contents analysis, the related text was given leodo as a placeness.

leodo is a reenactment place because of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Jeju people living on the sea. Memory is a device that present the past. The collective memory is created through spontaneous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among members of a particular group in a social framework.

The storytelling of leodo tales is re-examining the story in terms of people's life history from the ancient maritime kingdom of Tamna to the present-day Jeju.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highlight that leodo has been the home of Jeju people's lives since ancient times, and to make efforts to strengthen its placeness.

연구진

연구책임	주 민 옥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공동연구	최 미 경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제주학연구 70

이어도 설화 스토리텔링방안 연구 - 장소성을 중심으로

발행인 || 김 순 자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이도1동 1244-4)

제주문화예술재단 3층

전화, (064) 747-6138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 www.jst.re.kr

ISBN : 979-11-90748-11-7 9309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와 제주인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따뜻한 제주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Tel. 064-726-5623 Fax. 064-747-6140
www.jst.re.kr

제주학연구
70

제주학연구 70

주민욱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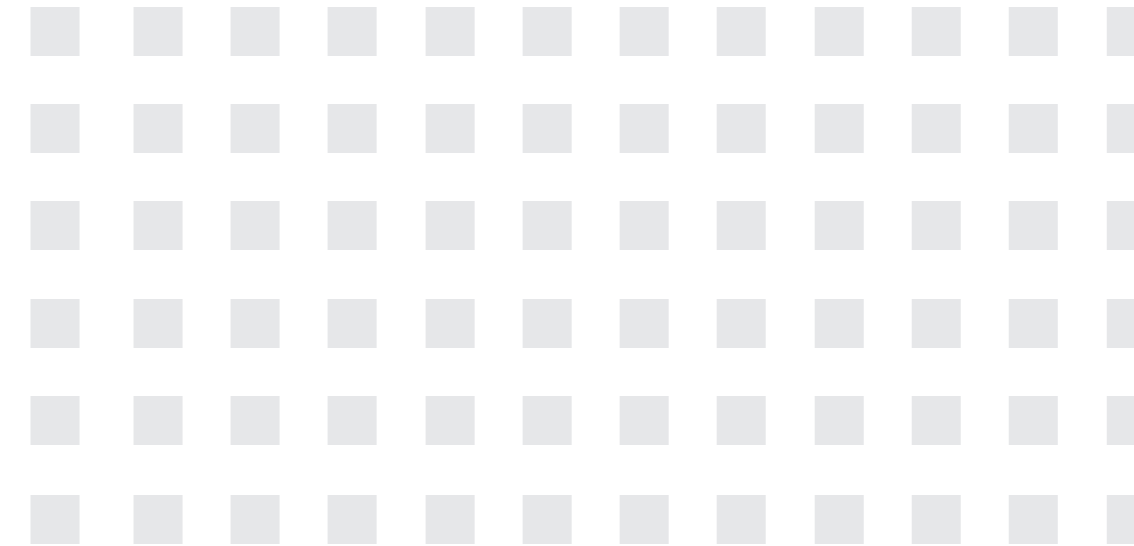
최미경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이어도 설화 스토리텔링방안 연구 - 장소성에 중점을 둔 연구

이어도 설화 스토리텔링방안 연구 - 장소성을 중심으로

주민욱 · 최미경



비매품/ 무료



9 791190 748117
ISBN 979-11-90748-11-7

